

김성군 변호사
160 main street
Stoneham, MA02180
781.438.6170
www.songkimlaw.com

보스톤 코리아

BOSTONKOREA.com

뉴스타 부동산
주택 / 콘도
비즈니스 / 건물
617.921.6979
www.bostonkorea.com
DianaPark.com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161 Harvard Avenue, Suite 13, Allston, MA 02134

전화: 617-254-4654, 광고문의 전화: 617-775-8474

ISSN 1554-6942

석사 이상 본인 스폰 영주권 솔깃하지만 실상 알고보니

간단 절차에 고학력자들 관심 증폭, 기준 까다롭고 승인 쉽지 않아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박예바다 기자 = 최근 미국내 한인 일간지와 일부 한인 신문들이 보도한 '석사 이상 지원 가능한 본인 스폰 영주권' 이 한국내 독립이민 전문 회사의 홍보와 달리 대부분의 취업이민 희망자

에게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National Interest Waiver (이하 NIW)라 불리는 이 고학력 독립이민 제도는 고용주나 가족 등 외부 스폰서가 필요치 않고 노동인증서(PERM)도 요구되지 않으며 개인의 특출난 능력을 입증하는 것만으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해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다

NIW는 취업이민 2순위로, 한국에서 학위를 받은 사람도 신청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STE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분야에만 적용된다고 알려져

있으나 교육이나 예술계 전문인들도 지원할 수 있다. 일반 이민과 달리 3개월~6개월 안에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다는 것도 큰 장점이다. 그러나 이 솔깃한 정보가 사실상 영주권 취득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별반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스톤코리아가 인터뷰한 이민전문 변호사들에 따르면 고학력자, 즉 석사 이상은 지원 자격일 뿐, NIW 승인을 위해서는 미국에 큰 유익을 끼칠 수 있는 '특출함(extraordinary ability)'이 중요하다. 즉 자신의 전문분야 출간물, 특허, 수상여부, 해당분야의 경력 및 업적 등 성과물이 뛰어나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2면으로 계속



메사추세츠 주, 2달간 세금 자진신고 시 벌금사면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세금을 제 때 납부하지 못했거나 또는 적게 낸 개인 및 사업자들은 향후 2달간 밀린 세금을 납부할 경우 패널티가 부과되지 않게 된다. 이번 사면은 그러나 세금관련 범죄로 인해 조사받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혜택을 주지 않는다.

소득세, 종업원 원천소득세, 레스토랑 등 각종 세금을 사면 기간 내에 납부하는 경우 벌금을 면제 받는다. 일반적으로 벌금은 세금 미납시에 매달 부과되며 최대 원금에 25%까지 부과된다. 또한 미신고시에도 부과되며 최대 원금

의 25%까지 부담된다. 이번 사면 기간에는 이 같은 벌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단 원금에 대한 이자는 납부해야 한다.

메사추세츠 주 드벌 패트리 주지사는 13일 세금 체납자들에게 대한 사면 법안에 대해 서명했다. 이 법안은 메사추세츠주 하원 공화당 의원들이 발의했다

이번 법안으로 메사추세츠 주는 체납 세금 약 3천5백만불가량을 걷어 들일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번 세금 사면으로 확보된 세수 중 5백만불은 주 양물납용서비스 펀드에 적립될 예정이다.

hsb@bostonkorea.com

이민법
상법
민·형사소송
부동산 매매·부동산법

성기주 변호사
Kiju Joseph Sung

617-504-0609
Cambridge Office
929 Massachusetts Ave.
Cambridge, MA 02139
www.lookjs.com

2014년 할인항공전문

From **\$1116~**

보스톤-인천 (왕복!) ONLY 1 Stop

9,10,11월 비수기 출발!

본 금액은 세금과 유류할증료가 포함된 가격입니다. 티켓가격은 항공사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디즈니 패키지 투어, 고국투어, 크루즈, 호텔, 국내선 및 국제선 항공권 문의 바랍니다. **IACE TRAVEL**

1-866-619-4223 (Toll Free) / 617-424-8956

한국어 상담 월~금 12pm~9pm
예약센터 영어, 일어 only 1-877-489-4223 (24/7)
이메일 info@iace-korea.com 온라인 예약 www.iace-korea.com
페이스북 www.facebook.com/iacetravelkorea
카톡상담아이디: IACEKOREA

MORTGAGE MASTER

#1 Lender in Massachusetts!
EXCELLENT RATES
LOW CLOSING COSTS
ADVICE YOU CAN TRUST

Ezer Lee
NMLS #859995
Mortgage Loan Originator
P (781) 591-2722
F (617) 395-6865
Kakao Talk ID: ezerlee
elee@mortgagemaster.com
www.mortgagemaster.com/elee
MA LIC # ML0859995

Call me today for a free pre-approval!

Languages: English + Korean

44 Trapelo Road, Belmont, MA 02478
Mortgage Master, Inc. NMLS #4251/MA Lender/Broker MC4251

뉴스타 부동산의 나원태, 제이슨 전의
경험과 전문성으로 명쾌한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Lexington, Newton, Allston, Brighton, Cambridge, Boston

MA, RI 전 지역의 리스팅 구축, 빠른 정보 전달, 정확한 정보, 철저한 분석으로 최적의 결과 창출, 완벽한 팀워크를 통한 차별화된 부동산 마케팅 제공

Exclusive Listing: 뉴튼 맨달

- \$2,650/ 3 beds/ 2 baths
- 그라지 파킹 포함
- 뉴튼 초, 고등학교와 인접한 거리에 있음

나원태 Realtor
미주 전체 뉴스타 부동산 금탑 다수 수상
Direct: 617.642.3156
wonra@newstarrealty.com

제이슨 전 Realtor
미주 전체 뉴스타 부동산 금탑 다수 수상
Direct: 617.642.5670
jason.jeon@newstarrealty.com

독립 영주권 선부른 낙관은 금물

▶▶1면에 이어서

장우석 변호사는 “신청자가 자신의 논문과 학력 등을 가지고 NIW에 승산이 있다는 주관적인 평가를 많이 내리는데 언론 및 온라인 매체에서 과급된 마케팅에서 비롯된 판단인 경우가 허다하다” 고 전했다.

미국이 나라의 발전을 위해 해외 우

들의 의견이다. 최근에도 NIW 신청을 원하는 고객들과 상담을 많이 했다는 김연진 변호사는 “NIW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신 분들은 유명한 전문가들의 추천서를 7~8개 정도 받고 논문도 10~50개가량 발표하신 분들로 그 분야에서 큰 업

본인이 빠지면 연구팀이 돌아가지 않을 정도의 리더급이어야 좋다” 고 말했다.

NIW 승인에 있어서 화려한 경력과 업적을 보유하고 있어도,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자격요건을 법적인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과정 또한 간단치 않다. 타인이 비슷한 자격요건을 가지고 독립영주권을 획득했다 해도 증빙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그 사례가 자신에게 그대로 적용되진 않는다.

장우석 변호사는 “한 과학자가 ‘난 이리이러한 논문을 냈다’ 라고 하면, 같은 분야 과학자들은 그것이 대단한 일이란 걸 알지 몰라도 이민국 심사 위원들은 모른다” 며 “자신의 자산을 법적으로 설득력이 있도록 재가공하는 과정이 중요하고 까다롭다” 고 덧붙였다.

미국에 도움이 될 자신의 능력을 증명할 수만 있다면 복잡한 일반 취업 이민절차보다 NIW를 통한 영주권 획득을 시도해볼만 하다. 그러나 단순히 ‘서사 이상의 고학력자이니 신청해라’ 라는 추천에 무작정 기대를 거는 것은 경솔한 판단일 수 있다.

epark@bostonkorea.com



수 인재들을 향한 문호를 확대하자 영주권 획득이 훨씬 수월해지리라는 기대를 샀었다. 그러나 고학력자가 나날이 증가하고 역량있는 전문가들이 늘어나면서 신청자들에게 요구되는 입증 서류도 함께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NIW 승인이 쉽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

적은 남긴 뛰어난 인재들이었다. 많은 분들이 지원하지만 승인률이 희박한 것이 사실이다” 고 밝혔다.

성기주 변호사 또한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되는 전문가임을 반드시 입증해야 한다. 쉽게 예를 들어 어떤 중요한 연구 팀에 속해 있다면, 연구원보다는

이민자상대 IRS 사칭 전화기승

(보스톤=보스톤코리아) 박애바다 기자 = 연방 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s)을 사칭해 세금 납세자의 개인 및 금융정보를 노리는 피싱 사기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IRS는 최근에 미국으로 건너온 이민자들을 상대로 하는 사기전화의 특별히 많다고 전해 한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IRS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납세자의 세금체납을 언급하며 이미 현금이 들어있는 데빗 카드나 전신 송금으로 세금을 납부할 것을 요구한다. 납세자들이 이를 의심하고 거부하면 체포, 추방, 운전면허 및 사업자등록을 취소한다고 협박한다.

IRS는 피해자가 늘어나지 않도록 IRS 사칭 전화의 특징과 대처법을 간략히 소개했다.

사기범들은 가짜 이름과 뱃지 번호를 사용한다. 특히 일반적으로 흔한 평범한 이름을 사용한다. 그들이 납세자 개인의 소셜 시큐리티 끝번호 4개를 알고 있더라도 방심은 금물이다. 또한 개인 휴대전화에서 발신자 번호가 IRS 전화

번호로 표시될 수도 있다. 전화통화 후 이메일을 보내 신뢰를 얻려는 경우도 있다. 납세자를 운전면허 취소나 국외추방 등으로 협박한 후 전화를 끊고, 발신자 번호 표시에 경찰서 혹은 DMV(Department of Motor Vehicles) 전화번호를 띄우고 다시 전화해 겁을 줄 수도 있다.

위 경우처럼 의심되는 전화를 받았을 시, 납세자가 자신의 체납 사실을 알고 있거나 체납된 세금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면 IRS (1-800-829-1040) 에 전화해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세금을 모두 납부한 것이 확실하거나 수입이 없어 세금을 낼 이유가 없다면 Treasury Inspector General for Tax Administration (1-800-366-4484)로 전화해 피싱 사기전화 사건을 접수하길 권장한다. 또한, FTC.gov에 접속해 ‘FTC Complaint Assistant’ 를 클릭하여 사건을 설명하며 코멘트 내용 안에 반드시 ‘IRS Telephone Scam’ 이라고 적어달라고 IRS는 당부했다.

epark@bostonkorea.com

<진료 과목>

- * 일반 치과 * 잇몸 질환 치료
- * 신경 치료 * 보철 전문
- * 보톡스 & 필러

주요 보험

Delta, BCBS, Aetna, Cigna, MetLife, MassHealth, etc.

케임브리지 덴탈

큰 웃음을 드립니다

Cambridge Dental Associates

126 Inman Street
Cambridge, MA 02139
(617) 492-8210
한국어 진료 상담 가능

www.gracesalonsboston.com

영업 시간 월요일~금요일: 10시~7시
토요일: 9시~8시

예약을 하시면 기다리시지 않아도 됩니다.

각종 헤어 컷과 펌 그리고 스킨 케어

젊음과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곳!!

매직 스트레이트	Magic Straightening
브라질 케라틴 트리트먼트	Brazilian Keratin Treatment
Threading	Threading
디지털 펌 & 셋팅 펌	Digital Perm & Setting Perm
아이롱 펌	Iron Perm
헤어 칼라링	Coloring (GOLD WELL 사용)
헤어 메니큐어 (코팅)	Hair Manicure
메니큐어 & 페디큐어	Manicure & Pedicure
왁싱	Waxing
얼굴 마사지	Facials
웨딩 서비스	Wedding Services

Grace Salon

프리미엄 토탈 헤어 살롱

그레이스 컷팅 클럽

617-623-2430

56 Union Sq. Somerville, MA 02143
한국중합식품 옆 건물에 위치해 있습니다.

미 공영방송이 선택한 한인 2세 감독 다큐 인권운동에 전생애 바친 중국계 여성 이민자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박에바다 기자 = 미국 공영방송 PBS의 최장수 논픽션 방영 프로그램 'POV'에서 지난 달 30일 한인 교포2세가 만든 다큐멘터리가 방영돼 많은 시청자들에게 호응을 얻었다.

프리랜서 다큐멘터리 감독으로 활동하는 그레이스 리(41)는 술한 차별 속에서 흑인 인권과 미국 사회 운동에 크게 공헌한 동명이인이자 중국계 미국인 그레이스 리 보그스(Grace Lee Boggs, 97)의 철학과 삶을 다룬 다큐멘터리, 'American Revolutionary: The Evolution of Grace Lee Boggs'를 제작했다.

그레이스 리 감독은 보스톤코리아와의 전화통화에서 "소외받던 아시아 이민 여성이 일생을 바쳐 미국 사회의 변화를 촉구하는 사회 운동가로 살면서 오늘날까지 추앙받는 것을 보며, 많은 한인 교포들과 학생들에게도 긍정적인 메시지가 전달됐으면 한다"고 보그스에 대한 다큐멘터리 제작의도를 밝혔다.

"보그스 씨는 20세기 역사 속에서 살았고, 나를 포함한 현대인들은 21세기 다른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이민자, 아시아, 여성이라는 같은 정체성

을 공유하며 미국 사회에서 동일한 갈등에 직면한다"고 말했다.

리 감독은 다큐멘터를 통해 보그스 씨가 평생을 고민한 "진정한 미국의 진화(Evolution)은 무엇인가? 다민족 공동체인 미국이 어떤 방향으로 새로운 변화를 개척해 나가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다큐멘터리 주인공인 그레이스 리 보그스는 중국계로 로드아일랜드에서 출생했다. 25살 때 박사학위까지 받았지만 1940년대 미국인들은 아시아인이라는 이유로 백화점 판매직조차도 내주지 않았다. 그녀는 결국 자신처럼 고통받는 흑인들을 위해 사회 운동에 뛰어들었다. 마틴 루터 킹과 Malcolm X를 도와 최전방에서 활발히 활동했고 오바마 대통령 당선 당시 방송국에서 전화연결로 소감을 물을 정도로 유명인사가 됐다.

그레이스 리 감독은 "우리는 과거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데 요즘 세대가 기성세대와 커뮤니케이션이 없다"면서 안타까워했다. "보그스 씨처럼 우리와 정체성을 공유하면서 다른 시대에 다른 사상을 가지고 살아간 분과의 대화는 우리를 발전하게 한다"며 학생들이 열린 태도



왼쪽은 그레이스 리 감독, 오른쪽은 다큐 주인공인 그레이스 리 보그스

로 살아있는 역사의 증인들과 소통하기를 바랐다.

또한 리 감독은 "보그스 씨가 중국인 못지 않게 미국에서 큰 발전을 이룬 한인 교포들에게 관심이 많다. 1.5세·2세 학생들, 이민자, 아시아 여성들이 이 다큐멘터를 보고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싶다"며 다큐를 시청한 후 소감 코멘트를 달아주길 부탁했다.

그레이스 리 감독의 다큐멘터리는

PBS에서 7월 30일까지 무료 시청이 가능하다. 현재 리 감독이 막바지 작업 중인 아시아 아메리칸의 음식 문화 다큐멘터리 'Off the Menu'도 PBS에서 내년에 방영될 예정이다.

다큐멘터리 무료 시청:

<http://www.pbs.org/pov/americanrevolutionary/full.php#.U8R1iaiKz3o>

epark@bostonkorea.com

보스톤코리아
BOSTONKOREA.com



Publisher & C.E.O
장명술 Myong Sool Chang

Writer
한세벽 SaeByuk Han
정성일 Sungil Jung
박현아 HyunAh Park
박에바다 Ephatha Park

Graphic Designer
정한웅 HanWoong Chung

Marketing
최성우 SeongWoo Choi

Web Master
정한웅 HanWoong Chung

Contribution part

백린 Rin Paik
신영각 YoungGak Shin
공정원 JungWon Gong
김은한 EunHan Kim
백영주 YoungJoo Paik
성기주 KiJoo Sung
신영 Young Shin
윤희경 HeeKyung Yoon
이명덕 MyoungDuck Lee
앤드류악 Andrew Koak
앤젤라엄 Angela Um
정준기 JoonKi Jung
이선영 SunYoung Lee
소피아 Sophia
홍하상 HaSang Hong
오승준 Albert Oh
이명원 Myung Won Lee
장동희 Donghee Jan
김화옥 HwaOk Kim

& TV 사업국
617-955-9459

재휴일제 | 연합뉴스 | 미신협 회원사 | 세한연 회원사

맞춤식 교육 Mathematics • Verbal • Testing Skill

SAT Plus

SAT Plus Summer Schedule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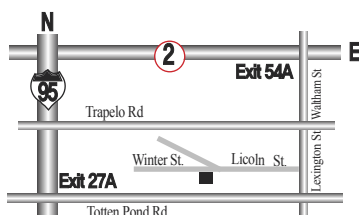
June 7/7 - 7/25 (3 Weeks)

Class	Time
SAT I Prep	8:00AM - 12:00PM (MORNING)
SAT I Prep	1:00PM - 5:00PM (AFTERNOON)

August 8/4 - 8/22 (3 Weeks)

Class	Time
SAT I Prep	8:00AM - 12:00PM (MORNING)
SAT I Prep	1:00PM - 5:00PM (AFTERNOON)

Rocky Hill School 과학 및 수학교사 Disciplinary Committee
MIT 생물학 학사학위
Who's Who Teachers of America-1992년 선출
Tandy Award Finalist(수학 및 과학분야 우수교사 표창)
지난 10년간 SAT I 및 SAT II 개인교습



SAT I 및 SAT II 준비 전문학원

TEL: 781-398-1881

2 Winter Street Suite 104, Waltham, MA 02451



"항상 Tutoring이 가능합니다!!"

English Writing, Biology, History, Chemistry, Math, Physics

10년 이상의 지도경력으로 우수한 학생을 배출하신 한상훈 선생님이 항상 지도하시고 계십니다.

커다란 조개도 잡고, 해변도 즐기고 윙거쉬크 비치 해변에 푹 빠져보자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박에바다 기자 = 보스톤 한인들 사이에서 조개 잡기 장소로 꽤 호평받는 해변가가 있다. 손바닥만한 조개를 손쉽게 채취할 수 있는 매사추세츠 주 글러스터 (Gloucester) 시의 윙거쉬크 비치 (Wingarsheek Beach)이 바로 그곳이다.

같은 시의 굿하버 비치 (Good Harbor Beach)와 더불어 유명한 이 곳은 비록 작은 규모지만 깨끗한 바닷물과 부드러운 모래, 덩치 큰 바위들이 아름다운 장관을 이루는데다 대왕조개를 어렵지 않게 채취할 수 있어 휴식에 재미를 더한다.

최근에 이 해변을 방문해 9개의 왕조개를 채취했다는 최 씨는 “조개가 손바닥만해서 아이들이 겁을 먹거나 조개껍질에 다칠 염려가 있어 직접 잡게 하지는 못한다. 그렇지만 어른들이 잡는 것을 옆에서 보고 신기해하고 해변에서 조개껍데기를 주우며 놀기도 한다” 며 가족이 함께 즐기기에 좋은 해변이라고 추천했다.

윙거쉬크 해변은 조수의 차가 심해 조개를 잡으려면 물 때를 잘 맞춰야 한다. 구글에서 ‘북부해변 (North Shore) 조류 (Tide)’ 를 검색하면 썰물 때가 나온다. 또한 썰물 수치가 나오는데 -.8이상일 경우 조개 채취에 가장

좋다.

썰물로 인해 바닷물이 빠졌을 때는 산책하기에도 좋고 약간 젖은 모래사장 속에 왕조개들이 숨어있다. 조금만 모래바닥을 파면 조개들이 나오기 때문에 채취가 어렵지 않다. 잡은 조개들을 집으로 가져가 온 가족이 함께 굽거나 삶아 먹으면 맛이 일품이다.

사실 이 왕조개들은 ‘베스’라는 물고기를 낚을 때 미끼로 쓰이는데 낚시용 미끼로는 비싸게 팔린다.

적은 양의 조개를 채취하는 것은 크게 문제되지 않지만, 가급적 조개 채취 라이선스를 구입할 것을 권장한다. 라이선스는 글러스터 시청 (9 Dale Ave.

Gloucester, MA 01930, 1-978-281-9720)을 방문해 구입할 수 있다. 글루스터 시 비거주자가 비상업적으로 조개를 채취하고자 하면 \$25불이다. 한번 구입하면 1년간 유효하며 매년 6월 30일에 만기된다.

해변을 찾는 경우 주의할 것은 샌드플라이라고 불리는 파리의 공격에 대비해야 한다. 해가지면 더욱 왕성히 활동하는 이 파리에 물리면 따갑고 아프고 부어오른다. 얇은 긴 팔을 입거나 벌레 퇴치약을 뿌리는 것을 권장한다. 햇볕을 피할 데가 없으니 파라솔 등을 준비해 가는 것도 좋다.

또한 6월 초 적조현상으로 인해 윙거

쉬크 해변을 포함한 몇몇 장소에서 잠시동안 조개 채취가 금지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잡은 조개를 완전히 익혀 먹는 것이 안전하다. 씨를 말리지 않도록 조개를 적당량만 잡는 것도 에티켓이다.

주중에는 한 차량당 \$20, 주말이나 휴일에는 \$25불의 주차비가 부과된다. 5시 이후에는 무료다. 윙거쉬크 해변 주소는 232 Atlantic St, Gloucester, MA 01930이다.

epark@bostonkorea.com

나쁜 치아를 만났다면 좋은 의사를 만나야 합니다.



진료과목
일반치과
신경치료
잇몸질환치료
보철전문
보톡스&필러

주요 보험
Delta, BC/BS,
Aetna, Cigna,
Metlife, etc...

한국인
진료 상담 가능
응급치료 가능

617.871.1482
캠브리지 덴탈 어넥스
Cambridge Dental Annex

Tel 617.871.1482
Fax 617.871.1483

www.yasuboston.com



야수 레스토랑

자녀를 위해 요리하는 어머니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야수는 작은 나물에서부터 요리 하나하나까지 자녀들을 기르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만듭니다. 직접 만들어 손맛이 들어있는 야수의 음식 - 맛과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야수를 찾아주세요.

YASU RESTAURANT
Telephone 617.738.2244
1366 Beacon Street, Brookline, M A02446



단체예약
주문음식



새로운 여름 이벤트 풍성한 '보스톤 하버 아일랜드 국립휴양지'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박에바다 기자 = 덩다고 카페에 앉아 아이스크림만 들이키기엔 보스톤 날씨가 아깝다. 해변에서 물놀이하는 것으로 만족하기에도 너무 화창한 보스톤의 여름이다.

조지스, 스펙타클, 러벨스, 페독스, 범프킨 등 12개의 섬이 자리하고 있는 보스톤 하버 아일랜드 국립 휴양지 (Boston Harbor Islands National Recreation Area)에는 다채로운 여름 스포츠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다. 페리를 타고 섬에 가서 아름다운 섬 경치도 만끽하고 여름 스포츠도 즐길 수 있으며 대부분 프로그램의 참여비가 무료거나 저렴해 일석삼조다.

* 초보자들을 위한 카약 레슨

스펙타클 아일랜드 (Spectacle Island)에서 섬에 대한 설명을 곁들인 바다용 카약 레슨을 진행한다. 1인용 카약이고, 만 12세 이상이어야 하며 수영을 할 줄 알아야 한다. 8월 말까지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오전 10시 1시간 가량 진행된다. 먼저 도착하는 순서대로 참가자를 받으며, 레슨은 무료다.

참고: <http://www.bostonharborislands.org/event-details?rid=1496>

문의: Park Ranger
boha_information@nps.gov
(617) 223-8666

* 카약타고 섬 투어

7월과 8월 스펙타클 아일랜드에서 진행된다. 카약 공인 자격증을 가진 리더의 인솔로 선착순 10명을 받으며 투어는 30분 가량 진행된다. 날씨와 상황에 따라 투어 시간이 자주 변경 혹은 취소될 수 있다. 만 12세 이상이어야 참여 가능하며 만 18세 이하는 부모 동의서가 있어야 한다. 바다 위로 섬을 투어하며 카약 레슨이 진행되고 더불어 국립공원의 역사와 갖가지 정보에 대해서도 투어 중 설명해준다. 투어 시간은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오전 10시, 낮 12시, 오후 2시다. 역시 무료.

참고: <http://www.bostonharborislands.org/sea-kayak-tours>

* 섬에서 요가하기

스펙타클 아일랜드에서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 무료

요가 레슨을 실시한다. 참여희망자는 개인 매트나 타올을 가져와야 하며 스펙타클 아일랜드 비저터 센터 (Spectacle Island visitor center)에서 정시간에 만난다. 오전 10시 요가에 참여하려면 스펙타클 아일랜드로 가는 페리를 오전 9:30분이나 그 이전에 타야 한다. 보트 티켓 구입과 탑승 시간 등을 고려해 30분 전에 매표소에 가야 한다.

참고:

www.bostonharborislands.org/event-details?x=1&rid=1961
문의: Park Ranger
bora_information@nps.gov
(617) 223-8666

* 패밀리 피트니스 & 필드 데이

페독스 아일랜드 (Peddocks Island)에서는 8월 1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South Shore Shape Up Free Fitness Day' 가 열린다. 어린이와 그 가족을 위해 하이킹, 크로스핏, 태극권, 줌바, 릴레이 달리기, 요가 그 외 다수의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고 모두 무료다. Rita에서 케이터링해 음식을 판매하지만 양이 한정되어 있

어 피트니스처럼 개인 음료나 간식, 점심 등을 가져가는 것을 추천한다. 다운타운 보스톤의 Long Wharf North이나 Hingham에서 페리를 탈 수 있으며 페독스 아일랜드로 가는 페리는 이날 하루종일 무료다. 먼저 도착하는 순서대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참고: <http://www.bostonharborislands.org/event-details?rid=2038>

문의: Park Ranger

boha_information@nps.gov
(617) 223-8666

주소: Mass Bay Lines, 60 Rowes Wharf, Boston, MA 02110-3329

* 포크 뮤직과 보치 컴페티션

조지스 아일랜드 (Georges Island)에 위치한 포트 워런 (Fort Warren)항구에서 7월 26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약 3시간 가량 월드 포크 뮤직 콘서트와 Bocce(잔디에서 하는 이탈리아의 론 볼링의 일종) 컴페티션이 열린다. 포크 뮤지션으로는 모로코, 캘리포니아, 그리스에서 영향을 받은 미리암 엘 할리 (Miriam Elhajli), 니콜라스 메타싸스 (Nikolas Metaxas), 조 야

(Zoya)가 공연하며 공연 시작 전에 Bocce 토너먼트가 펼쳐진다. 모두 무료.

참고: <http://bostonharborislands.org/event-details?x=1&rid=1973>

문의: Park Ranger

boha_information@nps.gov
(617) 223-8666

스펙타클 아일랜드와 조지스 아일랜드 방문 시에는 페리 티켓을 구입해야 한다. 어른은 왕복 \$15, 3세-11세는 \$9, 그 이하는 무료다. 학생, 노인, 군인은 할인이 적용돼 \$11이다.

보스톤 하버 아일랜드 국립 휴양지의 각 섬마다 낚시, 등산, 블록쌓기, 아웃도어 사진촬영, 연날리기, 조개류·갑각류 체험, 빈티지 야구 등 셀 수 없이 많은 이벤트들이 9월초까지 가득하다. 웹 사이트 (<http://bostonharborislands.org>)를 방문해 개인, 가족, 연인에게 맞는 흥미로운 이벤트도 살펴보고, 자세한 페리 시간 및 그 외 필요정보를 숙지할 것을 권장한다.

epark@bostonkorea.com



Frank Y. Shin, D.M.D
현 Tufts 치과대학 부교수



신영목치과

- 치아 이식 수술 (Implants)
- 미용치과 (Veneers/Bleaching)
- 아말감 대신 치아색으로 [Composite Fillings]
- 응급환자 당일치료
- 토요일도 진료함
- 각종보험 지정병원

www.drfrankshin.com

617.265.5606

1428 Dorchester Ave. Boston, MA 02122



가주 순두부 & 샤부샤부

한식&일식

"2013년 보스톤 잡지 선정 한식1위인 가주순두부 이제 얼스톤과 캠브리지 두곳에서 모시겠습니다."

영업시간은
오전11시~ 밤11시까지입니다.

얼스톤 주소: 56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617) 208-8540
캠브리지 주소: 57 JFK St., Cambridge, MA 02138 (617) 864-6868



단체예약과 문의 가능



지난 14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보스톤협의회가 7.27 한국전 정전 기념식을 마친 후 찍은 단체사진

민평통 보스톤협의회, 7.27 한국전 정전 기념식 성료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보스톤협의회에서는 지난 14일 하버드 법과대학원에서 7.27 한국전 정전 기념식을 거행했다.

김성혁 회장은 환영사에서 "독일의 월드컵 우승은 통일 덕분에 이룬 성과"라며 남북 평화통일을 염원하고 UN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공적을 감사했다.

보훈 감사의 순서로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공헌한 강경신, 최덕중, 김태혁 6.25 참전용사들에게 한국재향군인회의 정의의 사도 메달이 수여됐다. 메달 수여자들로 부터 한국전쟁으로 인한 비참한 살육

참상과 북한 도발 등 생생한 경험담 등을 들을 수가 있었고, 젊은 세대들은 미처 알지 못했던 한반도의 비극을 간접 체험하는 시간이 되었다.

김은한 박사와 이경해 회장을 비롯한 기성세대는 뼈아픈 과거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에 솔선수범할 것을 다짐했고, 북한이 세계에 떳떳하게 나설 수 있는 문화와 자세를 가진 나라가 되기를 촉구했다.

이날 엄성준 총영사가 '한반도 정세와 남북관계'라는 제목으로 특강했다. 교포 2세인 MIT 재학생 세라킴은 이 특강을 통해 "한반도 현 상황에 대한 남한의 관점을 이해할 수 있었고

, 북한과 일본,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에 대해서도 궁금하다. 동아시아 영토 갈등에 있어서 신뢰 외교(Trust Politik)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도 더 알고 싶다"고 소감을 전달했다.

기념식 참가자들은 이 특강을 통해 대한민국이 '대화와 강경', 이 두가지 정책을 가지고 북한과의 관계를 풀어가자 하며, 이러한 면에서 북한의 아시안 게임에 참가를 환영하는 동시에 핵 무기 개발의 무모함을 대내외적으로 인식시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나올 것을 촉구하는 현 대한민국 정부의 노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bostonkorean@hotmail.com

뉴욕보스톤민주연합, 세월호 참사 100일 추모집회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박에바다 기자 = 세월호 참사 100일을 앞두고 뉴욕과 보스톤의 어머니들이 오는 20일 뉴욕 타임즈 빌딩 앞에서 '세월호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회복을 염원하는 집회'를 가진다.

이번 집회는 "진실을 은폐하고 언론통제와 거짓보도를 일삼으며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무고한 시민들을 연행하는 현 정권"을 비판하고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특별법을 제정, 언론의 자유를 보장을 정부에 요구" 하는 취지로 개최된다.

뉴욕보스톤민주연합에서 제공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의 무능력과 무책임으로 희생된 어린 생명들을 추모하고 참사 방지 대책과 진상규명을 위해 시위를 시작했는데, 이제는 정홍원 총리를 유임시키고 유병언의 행방을 묘연하며, 해경을 해체한다 하고, 김기춘은 '청와대는 컨트롤 타워가 아니다'라고 국회에서 의원들을 상대로 강요하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이것은 민주주의의 문제다"라는 것을 깨닫고 "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해 엄마들이 나서야겠다"며 이번 집회를 연 계기와 의도를 설명했다.

"세월호를 잊지 않는 엄마들과 함께 움직이면서 많이 깨닫고 새로운 다짐을 하고 있다"는 뉴욕보스톤민주연합 강준화 대표는 집회 준



비위원들에게 "불의에 대해서 '행동하는 양심'으로 나아가지 못했다"며 "화려한 입담보다 문제의식을 가지고 비평하는 글을 더 올리고 그래도 바뀌지 않으면 시위를 하든, 단식을 하든, 살신성인을 감수해야 한다"고 SNS를 통해 전달하며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이번 추모집회는 뉴욕 어머니들이 주최하고 보스톤 어머니들, 강준화 상임대표, 민주연합 회원들도 활발히 참여하고 있다. 현재 뉴욕, 뉴저지, 커네티컷 등 업소에 홍보 포스터를 붙였고 SNS를 이용한 홍보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이들은 8월 16일 전미 50개주 동시 추모집회도 예정하고 있다.

집회 참여를 희망하는 자들은 가급적 검정색 복장으로 와야 하며 어린이들도 참여할 수 있다. 집회 시간은 오후 5시부터 7시까지이고 뉴욕 맨하탄 41-42 Street, 8th Ave 뉴욕 타임즈 빌딩 앞에서 시위가 진행된다.

epark@bostonkorea.com

무료전화 1-888-666-1708

- 한국, 아시아, 미국내, 유럽, 남미 등
- KE, UA, DL, AA 등 모든 항공사 취급
- 항공권 특별 할인 제공
- 통역, 번역 서비스

유니버스 여행사
대표 최만립
Tel 617.739.2888
www.utsboston.net

Universe travel services
100 Hano Street #23A, Allston, MA 02134

공인회계사

정진수
CPA/MBA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 IRS문제 상담 및 해결
-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 회계처리 및 감사
-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 용자 상담 및 재무재표 작성
- ▶ 급여(Payroll)서비스

TEL 781-849-0800, 508-580-3946 (한인전용)
FAX 781-849-0848
220 Forbes Rd., suite 206, Braintree, MA. 02184

공인세무사 김창근

-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회계정리

미 연방정부로부터 공인된 세무전문가
Licensed to Practice Before the IRS

TEL: (781)935-4620 FAX: (781)935-4187
165-M New Boston St. Suite 278, Woburn, MA 01801

보스톤중앙교회 창립 30주년 감사예배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보스톤중앙교회(송평구 목사)는 지난 13일 창립 30주년을 맞아 본교 교인들과 이웃교회 목회자 등 120여 명이 모인 자리에서 감사예배와 임직식을 가졌다.

감사예배는 송평구 목사의 사회, 중앙교회 송기백 장로의 기도와 소망교회 김민철 장로의 성경봉독으로 진행됐고, 미주성결교회 동부지방회 장인 최형락 목사가 '주님이 택하신 주님의 그릇'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최형락 목사는 "영원한 생명과 진리의 보배를 지닌 자다운 하나님의 사람, 영적인 사람이 되자"라고 말하며 보배를 간직한 귀중한 그릇으로의 정체성을 가지고 신앙생활 할 것을 당부했다.

뒤이어 선교관 봉헌식과 김경선 권사의 취임식, 허성용 훈수서 집사의 안수식, 초대회 장로의 장립식 등이 진행됐다. 임직식을 위해 염혜숙 집사가 특별연주를, 허성 집사가 특송을 했고 벨몬트 워터타운 감리교회의 마이크 목사와 보스톤 한인교회 이영길 목사의 축사, 한인교회 협의회장인 장영규 목사의 권면, 그리

고 초대회 신임장로의 답사가 이어졌다.

이 날 보스톤중앙교회에서는 역사회고와 사명선언문 낭독을 통해 지난 역사를 돌아보고 미래를 꿈꾸는 시간을 가졌다. 30년 동안 한결같이 교회를 섬겨온 공병선, 원동선, 공정돈 성도에게 공로패를, 공정환, 원동진, 정병순 성도에게 근속패를 수여하며 격려했다. 이들은 저녁만찬에서 지역교회의 공동발전을 위한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이날 최형락 목사(사랑의교회), 장영규 목사(제일교회), 이규연 목사(보스톤성결교회), 전석훈 목사(소망교회), 박도술 목사(필그림교회), 임운순 목사(한우리교회), 김갑동 목사(중앙교회), 송평구 목사(중앙교회), 송기백 장로(중앙교회), 공병선 장로(중앙교회), 윤철호 장로(보스톤성결교회) 등이 안수위원으로 함께했다.

중앙교회 성도들과 참가자들은 '보스톤중앙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스톤중앙교회 창립 30주년 감사예배 후 환한 미소를 보이는 성도들과 목회자들

체험하여 행복한 간증으로 이어지도록 교육과 선교에 전념하는 공동체입니다'라는 교회사명선언문을 다 함께 낭독했다. 선언문을 읽으면서 30주년을 축하하며 과거의 기쁨과 아픔을 기반으로 삼아 영광스런 열매 맺기를 다짐했다.

보스톤중앙교회는 421 Common St. Belmont 에 소재하고 있고 주일 예배는 오후 1시 30분이며 연락처는 617-230-5004이다.

bostonkorean@hotmail.com

보스톤 새생활 센터 무료 진료 실시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보스톤 새생활센터(대표 송연호)에서는 오는 19일 토요일에 무료 진료를 실시한다. 진료분야는 내과 진료와 치과 검진 및 건강 상담이다. 내과는 처방전을 무료로 발행하며 치과는 검사 및 예방 상담을 한다. 당뇨병 검사 및 콜레스테롤 수치를 측정하고자 하면 아침을 굶고 공복 상태여야 정확한 혈액 검사가 가능하다. BMI(Body Mass Index)나 체지방검사도 함께 실시된다. 환자들이 도착하는 순서대로 진찰

을 시작하며 매사추세츠 거주자는 물론 방문자들도 진료받을 수 있다.

진료 시간 : 7월 19일 오후 2시 ~ 4시
장소 문의 : 가족 물리치료 병원 /GB Family Physical Therapy
83 Cambridge St, Suite 2B
Burlington, MA 01803
전화: 781-365-1867
문의: 보스톤 새생활 센터 대표 송연호 317-374-4786
bostonkorean@hotmail.com

뉴잉글랜드 고려대 교우회 आयु회 가져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뉴잉글랜드 고려대학교 교우회(회장 이태호)에서 지난 12일 뉴햄프셔 흑셋에 위치한 KAYP 청소년 캠프장에서 आयु회를 가졌다.

진태원 교우가 준비한 장소에서 열린 이날 आयु회에는 30여 명의 교우와 가족들이 모였다. 어린아이들은 나무와 나무 사이를 연결해서 만든 집라인을 타고 어른들과 같이 활쏘기를 즐겼으며 이후 Massabesic 호수로 장소를 옮겨 카약을 배우기도 했다. 저녁에는 바베큐와 캠프파이어를 곁들여 교

우 간의 정과 친목을 도모하는 자리를 가졌다.

뉴잉글랜드 고려대학교 교우회는 40년 전에 발족하여 교우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각종 지역 한인 행사에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있다. 다음 모임은 9월 중순 한선우 교우 자택에서 모인다. 자세한 문의는 이태호 (tle0813@hotmail.com; 617-780-2999) 혹은 김재철 (jaeck79@gmail.com; 617-455-7649) 교우에게 하면 된다.

bostonkorean@hotmail.com

RI한인회, 미 독립기념일 축하 퍼레이드 참여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로드아일랜드 한인회에서는 미국 독립 기념일을 맞아 브리스톨 퍼레이드(Bristol Parade)에 참가하였다. 브리스톨 퍼레이드는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전통있는 행사로 미국 전역에서 이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많은 관광객들이 모이기로 유명하다.

태풍을 동반한 일기예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행된 퍼레이드에서, 로드아일랜드 한인회는 미국 성조기와 대한민국 국기를 가지고 2차 세계대전 유공자들과 한국전 참전용사들과 함께 퍼레이드에 선두로 나섰다. 뺑뺑이 늘어난 많은 참관인들은 유일하게 미국 독립일을 축하하기 위해 참가한 로드

아일랜드 한인회에게 연신 'Thank you'를 연발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다.

ABC 6 채널에서는 대형 성조기를 들고 퍼레이드를 펼친



이동문 로드아일랜드 한인회장이 성조기를 들고 퍼레이드에 참여하고 있다

로드아일랜드 한인회를 집중 조명하며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연례 가장 큰 행사인 독립기념일 브리스톨 퍼레이드에는 링컨 채피(Lincoln Chafee)주지사와 잭 리드(Jack Reed) 상원의원을 비롯한 정관계 인사들도 자리해 뜻깊은 축제의 장이 되었다고 로드아일랜드 한인회는 전했다.

bostonkorean@hotmail.com

Kim Law Offices, L.L.C.

성심을 다해 변호하겠습니다

김연진 변호사
Yeon J. Kim, Esq.

주요 경력
 ■ 前미연방 이민국 심사관
 Boston지사 에서 만여건의 영주권 시민권 심사
 ■ 前 미연방 세관 특별수사관
 NY지부 연방 범죄 관련 직접 수사
 ■ 前 미국 육군 심문관

업무분야
 이민법 / 상법
 형사법 / 가정법

Tel: (781)932-0400 Fax: (781)932-0403
 3 Baldwin Green Common, Suite 210 Woburn, MA 01801

Attorney at Law

장우석 변호사

개인상해-교통사고, 미끌어짐, 낙상사고, 동물 물림
 채무(개인, 세금)-신용카드, IRS, 사업 거래처 조정, 합의
 파산법, 이민법, 추방소송 디펜스, 비즈니스 회계, 세무, 중개, 매매
 민사소송, 형사소송 디펜스

상담문의: (781)712-1706 CHANG & ASSOCIATES, P.C.
 @ One Burlington Business Center
 67 South Bedford Street, Suite 400 West,
 Burlington, MA 01803

한미선 공인회계사
Master of Science in Taxation

IRS, MA DOR 와의 세금 문제 해결
 사업체 세무보고 및 회계/경영 자문

- 회사의 설립 및 해체/ 회계처리/회계 감사
- QuickBooks Set-up - 비즈니스의 성격 및 구조에 맞는 기본설치 및 운영상담
- Payroll 서비스 및 고용주의 세금납세 대행

개인 세무 보고

- 해외 소득, 임대소득, 주식 등 투자, Self-employed 사업자, 자산 처분, Clergy, Military, Ft. Ji Visa holders - 한국과의 Tax Treaty 하에 있는 분 등

각종 세금 공제 및 절세를 위한 세무 상담

Tel: 617-792-2355 Fax: 617-849-5852
 E-mail: michellehan.cpa@gmail.com
 www.mhancpa.com
 Cambridge Office (Alewife Station)
 125 Cambridge Park Dr. Suite 301
 Cambridge MA 02140



한 때 사라진 질병으로 여겼던 백일해 환자가 증가하면서 매사추세츠 보건부는 방학동안 학생들에게 백일해 보강백신을 필수적으로 접종할 것을 권장했다

기침환자 급증, 보건부 백일해 보강백신 권장

유아에서부터 어른까지 전 연령층 접종해야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최근 들어 백일해 환자가 다시 증가하자 매사추세츠 보건부는 어릴 때 접종한 백일해 백신의 효력을 강화하는 보강백신(pertussis booster shot) 접종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따라서 올 가을 개학을 앞두고 의사들이 권장하는 아주 중요한 일 중의 하나는 여름방학 중 백일해 보강백신 주사를 접종하는 것이 됐다.

백일해는 기침이 주요 증상이며 숨을 들이쉴 때 “우프” 하는 소리가 난다. 발열 구토도 동반되며 1세 이하의 영유아에서 사망확률이 높지만 백신접종으로 인해 사망확률이 거의 줄었다. 보강백신은 추가로 일정 양의 백신을 투여함으로써 점차적으로 면역력이 감소하는 백신의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보건부 관계자들은 예방차원에서 어린이는 물론, 청소년, 임산부 그리고 성인까지, 특히 신생아와 접촉하는 조부모 및 의료관계자, 돌보미 등도 반드시 보강백신을 추가로 접

종할 것을 권장했다.

매사추세츠 보건 관계자는 많은 사람들이 권장하는 보강백신을 바로 접종하고 있지는 않지만 올해 들어 전 연령대에서 보강백신 접종이 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90%의 청소년들은 보강접종을 마친 상태다. 그러나 특히 성인들의 경우 단 36%만 보강백신을

“현재 사용하는 백신은 안전하지만 효과가 적은 DtaP. 시간이 지날수록 효력 떨어져 보강백신 맞아야”

투여했으며 전문가들은 성인들이 보강백신의 필요성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하버드 의대 및 MGH 전염질환과 제프리 겔랜드 교수는 “상당수의 사람들과 심지어 의사들까지도 백신이 확실하며 백일해는 과거의 질환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다” 고 말

하고 “하지만 여전히 백일해에 대해 잘 알아야 하며 어쩌면 10년 전보다 더 이 백일해에 취약할 수도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내 백일해 발생건수는 1940년 DTP(diphtheria, tetanus, and pertussis vaccine)가 만들어진 후 희귀해졌다. 당시의 백신은 비활성화된 백일해 균을 투여해 면역체계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으로 백신이 만들어졌다. 그러나 이 백신으로 인해 발열, 부종 등의 부작용이 보고되면서 1990년대 들어서면서 백일해 박테리아의 일부만 이용해 백신을 제조해왔다. 안전하지만 효과가 적은 이 백신은 DtaP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2년 들어 매사추세츠에서는 653건의 발병사례가 보고됐고, 미국 전역에서는 5만건이 발병했다. 매사추세츠 주의 경우 2013년에는 346건, 비록 올해 들어 50건으로 줄어들었지만 보건부는 보강예방접종을 강조하고 있다. 발병자의 85%가 과거 DtaP을 접종한 환자들이었기 때문이다.

캘리포니아 주는 지난달 백일해 발병건수가 급증하고 있다며 전염경보를 내리기도 했

MGH 지난해 이어 미국 최고 병원 2위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보스톤 소재 매사추세츠 제너럴 병원(MGH)이 2014년 미국내 최고 병원 2위에 선정됐다.

유에스 뉴스가 선정한 올해 최고 병원 리스트에서 미네소타주 로체스터에 위치한 메이요 클리닉이 사상 최초로 1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매사추세츠 제너럴 병원은 지난해에 이어 2위를 유지했으며 브리감앤위민스 병원(Brigham and Women's Hospital)은 지난해와 같은 9위를 차지했다.

이번해 최고 병원 순위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지난해 1위였던 볼티모어의 존스 홉킨스 병원이 3위로 내려앉았다는 점이다.

유에스 뉴스는 미국내 5천여 개 종합병원의 16개 전문분야별 순위와 환자 생존율, 간호사 등 특정 범주별 성과를 종합해서 순위를 선정한다. 또한 의료계에서 병원의 평가도 주요 요인이 된다.

매스 제너럴은 정신과에서 1위를 당뇨, 내분비계, 위장병학 그리고 GI 수술 분야에서 3위를 차지했다. 브리감앤위민스는 산부인과에서 2위를 기록했다.

보스톤은 최고 17위까지의 명예리스트에 꼽힌 병원이 2개로 3개(NY Presbyterian University Hospital(6) NYU Langone Medical Center(15) and Mount Sinai Hospital(16) 인 뉴욕에 비해 1개가 적었다. LA도 2개(Cedars-Sinai Medical Center (12), UCLA Medical Center(5))가 꼽혔다.

다. 특히 최근 들어 부모 중에 일부는 백신접종을 거부하고 또 DtaP의 효력이 시간이 갈수록 낮아지면서 이 같은 전염병이 활개를 치고 있는 것으로 진단된다고 전문가들은 밝히고 있다.

특히 미국은 백신이 발달되면서 전염병이 거의 사라지는 것으로 생각하고 백신에 대한 투자를 게을리 하면서 전염병의 재발병에 대한 신규백신의 개발도 뒤쳐지고 있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hsb@bostonkorea.com





부동산 중개인

김 현 구

Chris H. Kim, GRI
Realtor

정직하고 성실하게
도와 드립니다

주택 무료 감정

Brookline Office
622 Hammond Street
Chestnut Hill, MA 02467
(B) 617-566-2447

Newton Office
1261 Centre Street
Newton, MA 02459
(B) 617-969-2447

Covering Boston, Brookline, Newton,
and Greater Boston

Chris.Kim@NEMoves.com

Birchtree Properties, R.E.

이정선 부동산



*부동산
비즈니스 세일

Cell 781.883.5984


Fax 781.874.9587

Work 781.874.2087

Email Chunglee7@gmail.com


33 third street medford, Ma 02155

www.btpusa.net



Park Acupuncture

and herbal medicine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최상의 선택

혜민한의원

617-787-0789 www.acupark.com

60 Loo M. Birmingham Parkway, Suite 101, Brighton, MA 02135



주차위반으로 차에 족쇄가 채워지자 주차 공간을 나눈다는 개념에서 아이디어를 낸 주차 앱 헤이스택의 대표 에릭 마이어

‘주차공간 사고판다’ 앱 헤이스택 등장

보스톤시 헤이스택 허용 안해 vs 허용 상관없이 앱 서비스 시작. 정면 대결 양상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자동차 소유주들끼리 거리 공공 주차 공간을 경매에 부쳐 사고파는 앱의 등장을 두고 보스톤 시가 강하게 반발하며 강력 단속 의지를 천명했다.

주차 앱 헤이스택(Haystack)은 거리 공공 주차공간에 정차한 운전자가 자신의 장소를 경매에 부치고 이 주차 공간을 다른 운전자가 구입해 주차하는 경우 기존의 운전자는 돈을 받고 이중의 일부를 헤이스택이 챙긴다. 헤이스택 측은 이 서비스는 운전자들끼리 주차 정보를 주고 받는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공공 장소를 사고 판다는 문제점이 있다.

보스톤 시는 당초 이 주차 앱 헤이스택이 보스톤에 입성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이 서비스는 파킹비용을 증가시키고 이 앱을 사용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파킹장소를 찾기 더욱 어렵게 만드는 불편을 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주 보스톤 시는 이 회사와 대화를 나누면서 보스톤 시와 협력해서 함께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는 등 좀더 친화적인 제스처를 취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아무 것도 도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보스톤 시는 헤이스택의 보스톤 출범을 하루 앞둔 15일 갑자기 이 앱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공고히 했다. 마틴 월시 시장은 성명서를 통해 “보스톤 교통부는 공공재에 대한 공정한 접근을 보장할 것이다”라고 밝히고 “교통부는 공공의 균등한 접근 권리를 침해하는 어떤 시스템도 세밀히 평가할 것이며 어떤 앱도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 경우 금지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헤이스택은 7월 15일 리버티 호텔에서 보스톤 출신 기념 이벤트를 열고 오는 17일부터 정식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헤이스택은 지난 5월 볼티모어에서 최초로 시작됐다. 이를 시작한 에릭 마이어는 매사추세츠 캔톤 출신으로 볼티모어에서 불법주차로 차에 족쇄가 채워지자 주차를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 이런 아이디어를 내게 됐다.

테크 아이디어에 관대함의 대명사였던 샌프란시스코 시는 헤이스택의 진출을 법으로 막았다. 샌프란시스코는 공공주차장소를 렌트하거나 리스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hsb@bostonkorea.com

매사추세츠 주 상원 차터 스쿨 증가 “안돼”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매사추세츠 상원은 차터 스쿨 증원을 통과시켰으나 상원은 26대 13으로 부결시켰다. 이로 인해 정치적으로 민감한 차터스쿨 증원은 당장은 일단락 된 것으로 보인다.

차터스쿨은 노조를 조직하지 않아도 되며 학교의 커리큘럼을 자체적으로 선택가능하며 예산과 교원 충원에도 비교적 자유롭다. 문제는 차터스쿨로 인해 지역 공립학교의 예산이 미치는 영향이다. 차터스쿨을 주 및 지방정부 교육 예산을 떼어가기 때문이다.

매사추세츠 교사 미연맹 토마스 고스넬 회장은 상원의 결정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의사를 밝혔다. 고스넬 회장은 “차터스쿨 증

원안이 부결됨으로 인해 가장 예산이 절실한 공립학교에 필요한 재원을 간직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차터스쿨 증원 찬성하는 측은 차터 스쿨이 공립고등학교에 비해 좀더 좋은 결과를 보여준 것을 언급하며 현재 보스톤의 차터 스쿨에만도 수천명이 대기자 명단에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매사추세츠 차터스쿨협회의 마크 케넨 디렉터는 “잘하는 공립고에 접근할 기회를 넓히는데 실패했다”고 말하고 “상원의 부결은 성적이 나쁜 공립고에 자녀들이 갇혀있는 학부모들의 바람을 꺾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 hsb@bostonkorea.com

차터스쿨 증원 반대측 의견

“차터 스쿨을 늘리게 되면 공립교육에 가야할 자금을 앗아가 결국 성과가 낮은 학교를 더욱 궁지로 몰아가게 된다”

차터스쿨 증원 찬성측 의견

“학생들에게 좀더 나은 교육환경의 차터스쿨에 접근할 기회를 앗아갔다. 수천명이 차터스쿨 대기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매사추세츠 차터 스쿨 현황

년도	전체 입학자수	대기자수	학교수
02-03	15,805	12,959	46
11-12	30,595	35,942	72
12-13	31,830	45,176	77
13-14	35,353	53,492	81



“휴식과 회복이 있는 곳”

문혜한의원

Grace Acupuncture & Oriental Medicine

원장: 백승희 (경희한의대 42기)
각종 상해, 의료보험 취급 / 편리한 주차

전화 781.862.1842

442 Marrett Rd. Suite 6, Lexington, MA 02421
www.graceaom.com

“당신의 환한 미소가 아름답습니다.”

거의 모든 보험 받습니다
매스헬쓰도 받습니다

978.689.9363
(한국어문의)

DongWon Kim DMD
김동원치과

465 South Broadway Lawrence MA 01843

GB Family Physical Therapy

가족 물리치료 병원

매사추세츠 최초 REDCORD식 치료법 도입

진료분야
목, 허리 통증, 디스크
어깨, 팔, 무릎, 다리 및 각종 운동 후 통증
척추 측만증 및 자세교정

교통사고/직장상해 보험, 유학생/여행자 보험,
메디케어 외 정부보험 및 미국보험

대표: 781-365-1876 한국어 781-365-1867
83 Cambridge St. Suite 2B Burlington, MA 01803

www.gbfamilypt.com



조기유학 및 학업지도 대표 기관

BOSEC 보스톤 유학원

www.bosec.com

보스톤유학원은 가장 오래 전통을 가진 유학원으로 많은 학생들을 명문 중/고등 사립 학교와 명문 대학에 입학 시켜온 교육 컨설팅 대표기관입니다. 보스톤 유학원은 학생들이 미국에서의 학업에서 성공하도록 최상의 컨설팅과 수준높은 학업지도를 제공합니다

Educational Consulting Department

1. 조기유학, 초/중/고 /대학 입학, 전학, 인터뷰 가이드 전문
2. 한국에서 갓 전학 온 학생 교육컨설팅
3. 대학 입학 상담, 지원서 작성 (College Consulting) : 하버드 입학담당관 출신이 전문위원으로 활약
4. 가디언, 홈 스테이, 여름/겨울 캠프
5. 주말 봉사활동, 특활 지원
6. 상세 사항: 웹사이트 참조 www.bosec.com

- 컨설팅 서비스의 특징: 다년 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성공적 상급 학교 진학을 보장하는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 서울 사무소: 부모님 들의 편의를 위해서 도곡동 타워팰리스 단지 내에 서울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주소 참조)
- 합격한 중, 고등 학교: Fay, Choate Rosemary, St. Paul, Milton, Groton, Kent, NMH, Loomis Chaffee, Hotchkiss, Lawrenceville, St. George, Middlesex, Concord, Governor Dummer, Eaglebrook, Cardigan Mountain, Fessenden, Cushing, Brooks, Westover, Dana Hall, Holderness, Kent, Worcester Academy, Eaglebrook, Philips Academy, Pomfret 등. 상세 사항 웹사이트 참조.
- 합격한 대학: Harvard, Yale, Stanford, Cornell, Columbia, NYU, Bowdoin, Dartmouth, Trinity, Emory, U. Mich., U. Penn. Brandeis, Boston College, Bowdoin 등 다수

튜터의 자질과 경력을 보고 프로그램을 선택하세요!

Academic Tutoring Department

SAT, SSAT, TOEFL, Writing 전문 학원

대표 강사 부원장: James Kim, Harvard, Yale 철학 전공

책임 강사: Robin Burns,
Stanford Univ. English Major, MS, BA, 수석 졸업,
SAT Verbal 800

- 대상 학생: Native Speaker, 유학생, 보딩스쿨/데이스쿨 학생
- 한국식 엄격한 지도. 숙제 관리. 공부를 하지 않을 수 없게 지도 함.
- 시험 요령 습득이 아닌 실력 향상 위주.
- SAT, TOEFL, SSAT수강생 전원에게 정선된 필수 단어 목록 제공

Private Tutoring

Math, Essay Writing, Physics, Chemistry, Biology, History, Spanish, French, Latin, TOEFL, SSAT, ISEE SAT, ACT

\$70-100/hr

여름 방학 특강 (보스톤)				
SAT 집중반	7월6일-8월 20일, 월, 수,	10 AM-1PM	\$1250	실전 테스트 5회
개인 지도	학생이 지정		\$60-\$80 여름 특별가	전 과목

단 주 1회 실전 테스트 일은 10 AM-1:30 PM, 최소 인원 3명

여름 방학 특강 (서울)

개인지도 혹은 4인 이하 소 그룹: 문의 02-579-9731

지도과목: SAT, ACT, AP US History, AP English, SSAT, TOEFL, Reading/Writing

기숙학교 연중 프로그램(안전한 홈스테이, 항공, 교통편 제공)

Program	기 간	그 룹 지 도	개 인 지 도	제공서비스
추수 감사절	11월 중순-말	SAT, SSAT, TOEFL, ESSAY	전과목	교통편/항공편, 숙식
성탄 휴가	12월 중순-말	SAT, SSAT, ESSAY	전과목	교통편/항공편, 숙식
봄방학	3월중 3주간	SAT, SSAT, TOEFL, ESSAY	전과목	교통편/항공편, 숙식

이 프로그램 들은 2001년 부터 6년 째 제공되고 있는 정평있는 프로그램입니다. 학부모가 이 기간 중 한국에서 오시는 경우 편안한 장기 투숙 안내 제공.

- 주말 교통편, 홈 스테이, 학업 지도, 봉사 활동 제공 - 학생이 필요한 과목별 개인 지도, 유학생을 위한 집중 영어 쓰기 지도 제공
- 한 학교에서 3명 이상이 같은 프로그램으로 오는 경우 할인 혜택
- SAT는 CR과 Writing점수목표가 650-750사이인 학생을 목표로 함. SSAT는 80-99%를 목표로 하는 학생을 위한 클래스임.

보스톤 유학원

미국: 545 Concord Avenue, Suite 214,
Cambridge, MA 02138

한국: 서울 강남구 도곡동 대림 아크로텔 2402호
(삼성 타워팰리스 단지 내 02-579-9731)

대표: 원장 공학박사 송영두

Tel 617-491-0041
617-491-0043

- * 교사 수시 모집: info@bosec.com 으로 resume를 보내 주십시오.
 - * 홈스테이 가정 수시 모집: 뉴잉글랜드 전역. info@bosec.com 으로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사절.
 - * 사무 직원 모집: 미국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닌 분. humanresource@bosec.com 로resume를 보내 주십시오.
- "주차는 보스톤유학원 옆의 Fresh Pond Mall 의 Whole Foods Market에 하시면됩니다."

회사나 학교로부터 SNS 사생활 보호 법안 통과

취업이나 입학의 조건으로 SNS 열람할 수 없어
예외적으로 금융 회사는 직원 SNS 감시 가능

(보스톤=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회사나 학교에서 직원이나 학생의 소셜 네트워크 계정 이름과 비밀번호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매사추세츠 상원 의회에서 통과되었다.

직장이나 학교에서 온라인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 법안은 지난 15일, 상원 의원 39명이 전원 동의하며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기존 법안과 달리 새로 개정된 법안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이용자의 사생활을 광범위하게 보호하고 있다.

새로 바뀐 법안에 따라 회사의 고용주, 혹은 잠재적인 고용주는 직원이나 입사 지원자의 소셜 미디어 계정과 비밀번호를 요구할 수 없다. 회사의 고용주가 소셜 미디어 회사에 연락하여 직원의 계정이나 비밀번호를 물어볼 수 없으며, 취업을 조건으로 소셜 미디어 정보를 물어보는 것도 불법이 된다.

기업에 적용되는 기준은 학교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학년에 상관 없이 모든 학교의 교사와 교직원들은 학생들의 소셜 네트워크 계정과 비밀번호를 요구할 수 없고, '친구 맺기' 나 '팔로우' 등을 강요할 수 없다. 회사와



직원이나 학생의 소셜 네트워크 계정 비밀번호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MA주 상원에서 통과되었다

마찬가지로 학교에 입학 지원하는 학생들에게도 소셜 네트워크와 관련한 정보를 요청할 수 없다.

직원이나 학생이 전체 공개로 해놓은 정보를 회사나 학교에서 보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새로 개정된 법의 취지는 취업이나 입학의 조건으로 개인의 온라인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을 막는 것이다.

이 법안을 적극적으로 지지한 신디 아 크립 의원은 비슷한 법안이 미국 내 14개 주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크립 의원은 "회사에서 입사

지원자의 온라인 사진을 보겠다고 하는 것은, 고용주가 취업을 이유로 개인 사진을 요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라고 말했다.

상원에서 통과된 소셜 미디어 보호 관련 법안은 예외적으로 금융 회사에서 직원의 소셜 미디어 계정을 살펴보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금융 회사 직원이 고객과 주고 받는 메시지를 감시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었기 때문이다.

jsi@bostonkorea.com

주류 판매점 일요일 오전부터 오픈

(보스톤=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매사추세츠 주에 있는 주류 판매점들이 일요일에 가게 문을 2시간 일찍 열 수 있게 되었다.

지난 15일 매사추세츠 상원 의회는 일요일에 주류를 오전 10시부터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현재 매사추세츠 주에서 알코올이 포함된 음료는 일요일에 오후 12시부터 판매할 수 있다.

매사추세츠 하원 의회는 이미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양원 의회는 드벌 패트릭 주지사의 서명 전에 소위원회에서 최종 법안을 다듬는 과정만

을 남겨놓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법안은 매사추세츠 주에서 이른바 "블루로 (blue laws)" 라고 불리는 법안을 바꾸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블루로는 미국 초기 이민 시절 청교도 지도자들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여 만든 법으로 현재 사정에는 맞지 않는 조항들도 있다.

블루로에 따라 매사추세츠 주에서는 일요일에 주류 판매점이 약 200년 동안 문을 열 수 없었다. 주류 판매점이 일요일에도 영업을 할 수 있게 된 건 2003년 법 개정 이후부터이다.

jsi@bostonkorea.com



정관장 정품은 정관장만 취급하는 "브랜드스토어"에서 구입해야 안전합니다.

홍삼정 이 필요한 순간?

**홍삼으로 활력있게!!
건강한 여름나세요!**

Easy Cut

아이스케줄이 많은 당신을 위해
홍삼정을 바깥에서도 간편하게!

\$72 상당 선물 30 박스 한정선물이며 조기 소진시 마감됩니다.

홍삼정 에브리타임 1세트(30포) 구입 시 정관장 고급 골프 장갑과 \$50 상당의 휴대용 홍삼 농축액 분말 세트(3종) 무료 증정

FREE GIFT

최고급 양가족 사용

NEW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마신다!
홍삼정 에브리타임

2013년 정관장 최고의 히트 제품!

10ml x 30포 (한달분) \$100 이상 주문시 무료배송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보스톤 정관장 브랜드스토어 Burlington점 안에 위치해 있습니다

781-238-0303

'캘리포니아 6개로 쪼개자' 분할안 주민투표

청원에 130만명 서명해 투표요건 획득...실현 가능성은 낮아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미국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캘리포니아주를 6개의 작은 주로 분할하자는 안이 오는 2016년 말 투표에 부쳐질 전망이다.

캘리포니아 분할안을 주장하는 민간단체 '6 캘리포니아'는 130만 명의 주민 서명을 모아 분할에 대한 주민투표 요건을 충족했다고 15일(현지시간) 밝혔다. 주민투표에 필요한 최소 서명 인원은 80만8천명이다.

이 단체는 지난 2월부터 서명을 모았으며 일부를 이날 주도 새크라멘토가 속한 새크라멘토 카운티에 제출했다.

이 서명들의 진위가 확인될 경우 캘리포니아주 분할 주민투표는 2016년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지게 된다고 AP통신은 전했다.

이 단체가 캘리포니아 분할을 주장하는 것은 캘리포니아 인구가 3천830만 명까지 이르면서 주 정부가 각 지역의 행정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단체를 이끄는 벤처투자가 팀 드레이퍼는 "캘리포니아를 6개로 쪼개면 교육과 도로 및 수도가 개선되고, 더 많은 일자리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들이 제시한 6개의 분할된 주는 ▲ 실리콘 벨리(샌프란시스코와 새너제이 주변) ▲ 웨스트 캘리포니아(로스앤젤레스 주변) ▲ 사우스 캘리포니아(샌디에이고 주변) ▲ 센트럴 캘리포니아(캘리포니아 중부 농업지역) ▲ 노스 캘리포니아(새크라멘토 주변) ▲ 제퍼슨(캘리포니아 최북단)

등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실제로 이 분할안이 주민투표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평가하고 있다.

지난 2월 실시된 여론 조사에서도 59%의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분할안에 반대했다. 또 분할된 주들의 빈부 격차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설령 분할안이 통과돼도 연방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현재 주당 2명인 연방 상원의원이 캘리포니아만 12명으로 늘기에 다른 주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다만 드레이퍼의 제안을 추진하는 주민들은 "캘리포니아가 상원 12석을 갖더라도 인구당 의석으로 따지면 미국 평균밖에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분할안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1850년대부터 주를 2~4개로 쪼개자는 제안이 여러 차례 나왔으나 모두 실현되지 못



캘리포니아 6개주 분할안을 제안한 팀 드레이퍼

했다. banghd@yna.co.kr

오바마 대통령은 올해 여름휴가를 어디서 보낼까

(서울=뉴스1) 정이나 기자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매사추세츠주에 위치한 휴양지 '마서스 비니어드(Martha's Vineyard)' 섬으로 여름휴가를 떠난다.

백악관은 오바마 대통령이 가족과 함께 다음달 9~24일 마서스 비니어드 섬에서 여름휴가를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내부적으로는 불법 이민자 문제를 둘러싼 공화당과의 갈등이, 대외적으로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유혈충돌, 첩보활동과 관련한 독일과의 갈등이 산적해 있는 가운데 지난해 여름 휴가를 보냈던 마서스비니어드섬을 다시 찾는 것이다.

마서스비니어드섬은 매사추세츠주 남동부 케이프코드 연안에 위치한 곳으로 미국의 갑부들이 즐겨찾는 호화 휴양지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과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의 부인 재클린 여사가 휴가를 즐기던 곳으로도 유명하다.

취임 이후 오바마 대통령은 재선에 성공한 2012년을 제외하고는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매 휴가철마다 마서스비니어드섬을 찾았다.

lchung@news1.kr

버핏, 2조 9000억원 "통큰 기부"

(로이터=뉴스1) 이혜림 기자 = '가치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 버크셔해서웨이 회장이 28억달러(약2조9000억원)에 달하는 주식

을 기부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버핏 회장은 지난 14일(현지시간) 버크셔해서웨이의 B클래스 주식 2173만주를 5개 자선재단에 기부했다. 그동안 자선단체에 기부한 금액 중 최대 규모이다.

약21억달러(약2조1600억원)에 이르는 1660만주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 빌 게이츠가 설립한 '빌 앤 멜린다 게이츠 재단'에

세계 억만장자를 대상으로 재산의 절반을 기부하는 '기빙 플레지'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나머지 주식은 버핏 회장의 첫 번째 부인과 자녀들의 이름을 따 만든 가족 재단 4곳에 전해졌다.

지난 2006년 재산 대부분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약속한 버핏 회장은 매년 통큰 기부를 실천해 관심을 모았다. 지난해 7월에도 그는 원화로 2조2000억원에 달하는 주식을 기부한 바 있다.

거액의 기부에도 불구하고 버핏 회장은 여전히 버크셔해서웨이 지분의 약20%를 소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Gina Choi

Realtor, MBA
978-866-3248
ginachoi@newstarrealty.com
http://blog.naver.com/newstargina

안녕하세요. New Star Realty의 지니 최입니다. 1997년에 보스턴 지역으로 유학을 와서 학부와 대학원(MBA)을 마치고 다년간 BOSTON과 CAMBRIDGE 지역에서 직장 생활로 각 지역마다의 장점, 단점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성업중이며 불경기에도 10년 이상의 가족 비즈니스를 운영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적의 자리에 집과 사업체 매매를 도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exington Office
40 Waltham St., Lexington, MA 02420
Tel: (781) 259-4989

Newton Office
1111 Washington St., Newton, MA 02465
Tel: (617) 969-4989



EXCLUSIVE

\$ 239,000 , 3 BEDS, 2.5 BATHS, 1,594 SQ FT

학군 좋은 ACTON 지역의 타운 하우스입니다.
대부분의 학교가 10만점에 10점 일 정도로 학군이 좋습니다.
보스턴 다운타운에서 서쪽으로 약 19.5 마일입니다.

더 자세한 집 정보와 동영상은 아래 블로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blog.naver.com/newstargina/209766588

엘런, "美경제 아직 부양책 필요"

고용시장 부진, 상당기간 제로금리 유지 시사

(서울=뉴스1) 국제경제팀 = 재닛 엘런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이 경기가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중앙은행의 부양책이 필요하다며 상당기간 제로금리를 유지할 뜻을 재확인했다.

엘런 의장은 15일(현지시간) 상원 은행위원회 출석에 앞서 의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와 의회 증언을 통해 "미국 경제가 지속적으로 기대를 뛰어넘는 회복세를 이어갈 경우 예상보다 앞당겨 기준금리를 올릴 수 있다"면서도 "현재 고용시장은 상당히 부진하다"고 말했다.

물가상승과 고용지표 개선으로 일부 전문가들은 FRB가 기준금리를 예상보다 빨리 올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시장에서는 FRB가 내년 중반까지 기준금리 인상을 올릴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엘런 의장은 금리 인상 계획에 대한 질문을 받아 "어떤 공식이나 기계적인 답변을 줄 수 없다"며 "경기 전망은 매우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엘런은 저조한 노동참여율 등 몇가지 고용지표를 언급하며 장기 실업률이 여전히 "역사적으로 유례없는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물가상승률도 지난 몇 개월간 상승세를 보여왔으나 여전히 FRB 목표치인 2%를 밑돌고 있다고 말했다.

주택시장에 대해서는 "매우 미약한 개선세를 보였다"며 "미국 경제는 전반적으로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지난 1분기 경제가 2.9% 위축된 것에 대해 "주로 흑한탕"이라며 최근 지표는 성장이 2분기 반등할 것을 시사하지만 "이 또한 면밀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GE, 가전부문 매각 재추진 삼성이나 LG가 살 수도

(서울=연합뉴스) 정규득 기자 = 버락 오바제너럴 일렉트릭(GE)이 가전부문을 매각하는 방안을 다시 추진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신문은 이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들을 인용해 GE 경영진이 마지막으로 남은 소비자 사업부인 가전부문의 인수자를 물색하는 노력을 한층 강화했다고 전했다. 회사는 측은 지난 2008년에도 냉장고와 에어컨, 세탁기 등을 생산하는 가전사업부를 처분하려다 포기한 바 있다.

GE가 여전히 돈이 되는 가전 부문에서 굳이 발을 빼려는 것은 발전 등의 산업 부문에 비해 수익이 너무 적고 인건비 부담은 크기 때문이다.

제트 엔진이나 가스 터빈 등 산업부문은 판매 이후에도 애프터 서비스를 통해 상당한 매출을 올린다.

이와 관련, 제프리 이멜트 최고경영자(CEO)는 투자자들에게 산업 부문을 대대적으로 키우는 대신 비(非)핵심사업에서는 손을

떨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는 올해 40억 달러 어치의 비핵심사업을 팔아치우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GE가 지난달 알스톰사의 에너지부문을 자사의 인수대금 사상 최대 규모인 170억 달러에 사들이기로 한 것도 그런 계획의 연장선에서 이뤄진 조치다.

미국 켄터키주 루이빌에 있는 GE 가전사업부(조명 포함)의 지난해 이익은 3억8천100만 달러로 회사 전체 영업이익의 2%를 겨우 넘었고, 매출은 83억 달러로 전체의 6%에도 못 미쳤다.

업계 전문가들은 중국의 하이얼 그룹과 GE의 멕시코 협력사인 콘트롤라도라 마베 등이 GE 가전사업부 인수에 관심을 둔 것으로 보고 있다.

다른 일각에서는 LG생활건강과 삼성전자 등도 잠재적 인수자로 지목했다.

GE 이사회는 다음 주 회의에서 가전사업부의 매각 방안을 공식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wolf85@yna.co.kr

'커피 본고장'에서 커피 팔겠다고 뛰어든 스타벅스

(서울=뉴스1) 국종환 기자 = 미국의 대표적인 커피체인점 스타벅스가 16일(현지시간) 세계 3대 커피 수출국인 콜롬비아에 첫 번째 매장을 열었다.

AFP통신에 따르면 스타벅스는 이날 콜롬비아의 수도 보고타에서도 상류층 지역으로 꼽히는 파르케델라 93(Parque de la 93)에 첫 매장을 열었다.

커피의 본고장에서 차별화된 전략을 통해 상류층 고객을 먼저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현지 유력 식품가공업체인 누트레사(Nutresa)와도 협력을 맺어 연락처를 위한 준비를 마쳤다.

커피 본고장의 자존심을 세우고 현지 주민들과의 위화감을 없애기 위해 판매되는 커피는 100% 콜롬비아 원

두로만 만들기로 했다.

누트레사의 카를로스 갈레고 대표는 "콜롬비아 스타벅스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커피가 100% 콜롬비아 원두로 만들어진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 자부심이다"면서 "스타벅스는 콜롬비아 커피 시장에서 선두를 잡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콜롬비아는 브라질, 베트남과 함께 3대 커피 생산국으로 지난해 60kg짜리 1150만 포대를 생산해 이를 대부분 수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이로 인해 스타벅스의 콜롬비아 진출이 백사장에서 모래를 파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했으나 스타벅스는 아랑곳하지 않고 첫 매장을 열었다.

스타벅스는 높은 경제 성장이 진행 중인 4700만 인구의 콜롬비아에서 향

후 5년 동안 매장을 50개 까지 확대해 남미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하겠다는 전략이다.

jhkuk@news1.kr



교통사고
직장상해
닥터노트
학생보험

물리치료 재활치료 전문병원을 찾으십니까?

전. 닥터스 통증 병원 대표 원장
뉴욕 닥터스 통증 클리닉 대표 원장
노스이턴 대학교 물리치료학 박사
에모리얼 병원 재활의학 과 수석박사
위싱턴 디씨 통증병원 원장
대구대학교 외과 교수
산정대학교 외과 교수
영동대학교 교수 | 희곡강
한양대학병원 재활의학 과

617.731.1001
GOODPT.COM
44 Washington St, Suite 104 Brookline, MA 02445

DOCTOR PHYSICAL THERAPY
닥터스통증병원

Century 21
SHAWMUT PROPERTIES

1274 Washington Street
Newton, MA 02465

송 윤주 Realtor
Yoon Song

Direct: 857-636-0429
Email: Yoonjoo@century21.com
Web: YoonBoston.com

주택 매매, 콘도, 수익성 부동산 투자, 렌트 전문
고객의 입장에서 성실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Newton, Needham, Brookline, Belmont,
Boston, Wellesley, Weston, Cambridge,
Lexington 전문

MAD ACUPRESSURE

전신지압(Acupressure Therapy)
핫스톤
속 눈법 연장, 웨이셀

전화 예약 : 617-970-6038 , 617-558-8870
시간 : 월요일 ~ 토요일 (10am ~ 8pm)
주소 : 634 Commonwealth ave (#204)
Newton center, MA 02459
website : http://www.medacupressure.com

세월호특별법 최대 쟁점 '수사권' 여야 속내는?

여 "전례없어, 현 정권 타깃 우려" 야 "현 정권 책임 가리려면 수사권 있어야"

(서울=뉴스1) 박상희 기자 = 여야가 세월호 특별법 단일안 마련에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6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인 날인 17일에도 여야는 막판 타결을 위해 협상 재개에 들어갔다.

여야는 이날 오후 '세월호 사건 조사 및 보상'에 대한 조속 입법 TF(태스크포스) 전체회의를 열어 다시 한 번 일괄타결에 나서는 가운데 오전에는 양당 원내대표를 비롯 TF 간사간 물밑 협상도 진행되고 있다.

당초 여야는 세월호특별법을 지난 16일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문제를 두고 이견을 보이면서 접점을 찾지 못했다.

다만 여야는 이날까지 6월 국회 회기 기간인 만큼 막판 협상을 통해 가능한 세월호특별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세월호특별법과 관련해 여야의 최대 쟁점은 역시 진상조사위에 수사권을 부여할지 여부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진상조사위에 검사나 특별사법경찰관을 뒤 실질적 조사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새누리당은 조사위에 수사권을 부여할 경우 형사 및 사법 체계를

를 무너뜨릴 우려가 있고 전례도 없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은 대신 상설특검과 특임검사 등을 통해 수사를 하자고 맞서고 있다. 양당이 이 같이 수사권을 부여하는 문제를 두고 첨예하게 맞서는데는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는 관측이다.

새누리당이 표면적으로 사법 체계가 틀어질 수 있다는 이유를 들고 있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실질적으로는 수사권이 주어졌을 경우 현 정부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여당 측 관계자는 "진상조사위에 수사권이 주어진 전례도 없을 뿐 아니라 정치적으로 악용될 우려도 있다"며 "수사에 정치권이 관여하는 것 자체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그동안 여야는 세월호 참사를 두고 청와대의 책임 여부에 대해 공방을 벌여왔다.

앞서 세월호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문제를 두고 진통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비서실에 대한 기 관보고에서도 청와대가 컨트롤타워 여부인지를 두고 날을 세웠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오른쪽 두번째)와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왼쪽 두번째),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오른쪽)와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세월호 특별법 핵심 쟁점에 대한 협의를 위해 만나 악수하고 있다.

새누리당으로서는 진상조사위를 통해 정부 여당에 대한 '세월호 책임론'이 다시 부각되는 게 굉장한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새누리당이 수사권 부여를 반대하는 데는 검찰의 강한 반대로 한 몫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검찰은 고유 권한인 수사권을 사정기관이 아닌 곳에서 행사한다는 것에 굉장한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다.

재경지검 부장검사를 거친 한 법무부 관계자는 "조사위에서 수사권을 가질 경우 피의자가 이중 수사를 받게되는 부작용이 생긴다"며 "국회가 청문회를 개최할 권한을 가지고 있듯이 수사는 검찰에서 하는게 맞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 같은 입장을 TF 전체

회의에서도 강하게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대로 야당에서는 반드시 수사권이 부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진상을 규명하고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는 자체 수사권이 반드시 필요하고 보고 있다. 또 현 정권의 책임 여부에 대한 시비비를 가리기 위해서는 독립된 수사권이 필요하다는 것이 야당의 속내다.

야당의 한 관계자는 "검찰 역시 정부 부처 중 하나 아니냐"고 반문하며 "새누리당이 상설특검을 주장하지만 검찰이 이번 사건을 성역없이 조사할 것이라고는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 동안 수없이 많은 특별위원회가 있었지만 성과를 낸 경

우가 얼마나 되냐"며 "이번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는 수사권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밖에 진상조사위 구성 문제에 있어서도 여야의 입장이 크게 엇갈린다. 새누리당은 3부 요인과 유가족 추천 인사로 진상조사위를 구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반면 야당은 여야 및 유가족 추천 인사를 동수로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진상조사위 의결정족수와 관련해 새누리당은 조사위의 3분의 2가 찬성할 때 안건을 의결할 수 있도록 가중 의결정족수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를 적극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sanghwi@news1.kr

박영선 "세월호특별법, 바로 처리하자"

(서울=뉴스1) 김현 기자 =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17일 당초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원내지도부가 합의했던 '16일 세월호특별법 처리'가 무산된 것과 관련해,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이라도 본회의를 열어 특별법을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동작을 보궐선거에 나선 자당 기동민 후보의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현장 의원총회에서 안산단원고 학생들이 전날 도보로 국회까지 걸어왔던 것을 거론, "모두가 가슴이 찡한 순간이었지만 꿈쩍하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새누리당

과 청와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밤새 특별법 협상이 있었지만 진전이 없다"면서 "(진상조사위원회) 수사권과 관련해 새정치연합이 주장하는 특별사법경찰관 임무부여 문제는 법체계를 흔들지 않고 진상조사위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이 제66회 제헌절을 상징시키니 뒤 "헌법 전문에는 우리와 우리 자손의 안전과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국민 안전은 헌법 정신"이라고 밝혔다.

gayunlove@news1.kr

이완구 "세월호 특별법, 원칙 지키며 풀겠다"

(서울=뉴스1) 김우대 기자 =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7일 난항을 겪고 있는 세월호 특별법 협상과 관련, "끝까지 인내심을 갖고 유가족의 입장을 생각하되, 원칙은 지켜가면서 전향적으로 풀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형사사법체계와 헌법정신, 국민적 동의 등 각종 문제를 고려하면서 고민하고 있다. 집권 여당으로서 이런 문제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야당의 요구 사항인 진상조사위원회 수사권 부여에 대해 "우리나라 형사사법 체계가 흔들리면 안된다는 걱정을 갖고 있다"며 "민간 기구인 조사위에 수사권을 줬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지,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고민을 해봐야 한다"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ydkim@news1.kr

세월호가족, 국회에서 경찰과 충돌

가족들 반발에 국회사무총장·영등포서장 등 사과 가족들 "특별법 유가족안으로 통과돼야"

(서울=뉴스1) 박현우 기자 =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시위하던 세월호 피해 가족 등 100여명이 16일 오후 국회 진입을 막는 경찰 등에 항의하며 충돌사태가 빚어졌다.



16일 국회 진입을 시도하는 세월호 피해 유가족과 이를 막고 있는 경찰

앞서 유족 등은 이날 오후 3시20분께 '진실 규명' 등을 요구하며 전남 경기 안산 단원고에서 출발해 국회까지 걸어온 단원고 2학년 학생들에게 국회 정문 앞으로 나가 편지를 전달받았다. 이후 다시 국회 경내로 들어가려다 경찰이 일부 유족 등을 막아서자 이들은 경찰과 한 차례 충돌했다.

가족들은 "책임자 나오라고 해", "누가 시설 보호 요청을 하고 진입을 막았는지 설명하라"고 반발하며 곧바로 국회 본청 앞으로 모여 경찰과 대치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유

가족과 취재진 간 시비가 불기도 했다.

가족들은 임병규 국회 사무총장 권한대행, 김한근 의사국장, 김상철 영등포경찰서장, 유진규 국회 경비대장의 사과를 받은 뒤 오후 6시께 예야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다.

임 사무총장 권한대행은 "세월호 유가족 분들을 막을 생각은 전혀 없었고 얼굴을 몰라 확인한 것"이라며 "앞으로 유가족이 이동하는 데 있어

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김 서장은 "국회는 의원, 유족분들, 기자, 보좌관 외에는 한두분씩 관람이 허용되나 수백명 들어오는 것은 못하게 돼 있다"며 "국회 사무처에서 시설보호요청을 서면으로 받아 보호 차원에서 일반 시민 출입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구분이 안 돼 이렇게 됐다"고 해명했다.

smith@news1.kr

TASTE OF KOREA

코리아나

KOREANA RESTAURANT



BEST OF BOSTON
2006

BEST OF BOSTON
2001

BEST OF BOSTON
2000



Parking Information

1. 주유소주차, Broadway Gas Station (Mon~Sat: After 6pm), (Sun, Holiday: All Day)
2. 건물 뒤 주차장 Drive Way(Behind Building) (Lunch: 4 Cars), (Dinner: 2 Cars)
3. 도로주차, Broadway Play Ground 옆 (2 Hours Free Parking: 8am~6pm), (After 6pm: Free) (Sun: All Day Free)

*이외에도 Free Parking 가능한 곳이 Restaurant 가까이에 여러곳이 있습니다. 전화로 문의해 주세요.

모든 테이블에 최신 바베큐그릴을 설치, 한결같은 맛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617.576.8661
www.koreanaboston.com

영업시간
일요일-목요일(11:30AM~10:30PM)
금요일-토요일(11:30AM~12:00AM)
158 Prospect St. Cambridge, MA 02139



형사법
상법/회사법
유언장/ 상속
민사법
부동산법

스티븐 김 변호사
보스톤 검사 경력
(Steven S. Kim)

617.879.9979
stevenkimlaw.com

The Law Office of Steven S. Kim
2001 Beacon Street, Suite 101,
Boston, MA 02135
Steven@stevenkimlaw.com



MATH
GAME
HOUSE

programs for the talented

Offering stimulating &
fun sessions
for the curious minds since 2000

M.A in Math Education, Stanford University

SUMMER STUDY 6/23 – 8/1

가을학기 시작 9/9

뉴튼 센터 617-527-0275
www.mathgamehouse.com
email: mathgamehouse@mac.com



김무성, 대표 첫날 '폭풍 행보'

현충원 참배·수원 현장 최고위·청오찬 및 독대·세월호 유가족 면담
차대통령과 회동선 "대통령 잘 돕겠다"

(서울=뉴스1) 박상희 기자 =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임기 첫날인 15일 박근혜 대통령과의 오찬 회동에서부터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 면담까지 각종 일정을 숨가쁘게 소화하며 '김무성호 새누리당'의 뜻을 올렸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이완구 원내대표, 김태호·이인제·김을동 최고위원, 주호영 정책위의장, 윤상현 사무총장 등 당 지도부와 함께 서울 동작구 국립 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하며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김 대표는 현화·묵념한 뒤 현충원 방명록에 "새누리당이 보수 대혁신의 아이콘이 되어 우파정권 재창출의 기초를 구축하겠습니다"라고 썼다.

김 대표는 앞서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당인 생활 27년 만에 집권 여당 대표가 돼 저로서는 기쁜 일이지만 웃음이 잘 나오지 않고 어깨가 무겁다"며 "국민 행복을 위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성공해야하고, 안정적 국정 운영을 위해 (7·30 재보궐 선거를 통한) 과반의석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오전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오늘부터 친

박(박근혜)과 비박은 없다"며 당내 갈등 봉합 의지를 강조했다.

김 대표는 현충원 참배 뒤 곧바로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새누리당 경기도당으로 달려가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면서 7·30 재보선 '올인'을 다짐했다.

김 대표는 회의에서 "재보선에 출마한 경기 지역 5명의 우리 당 후보를 모두 다 당선시키겠다는 비장한 각오와 의지를 보이기 위해 첫 최고위원회의를 수원에서 열었다"며 "수원에서 박근혜 정부의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한 물꼬를 터서 보수 혁신의 원천지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당 대표는 당원들의 명령을 수행하는 큰 머슴"이라며 "당과 나라가 어려운 시기에 집권여당 대표라는 무거운 책임감을 준 국민과 당원의 엄숙한 명령에 늘 저와 나라를 돌아보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한껏 몸을 낮췄다.

김 대표는 이완구 원내대표와 최고위원들을 일일이 거명하면서 "든든한 동지 여러분과 함께 가 벌써부터 힘이 솟고 발걸음이 한결 가볍다"고도 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경기지역 새누

리당 후보들을 지원사격한 김 대표는 이어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오찬회동을 했다.

오찬회동에 당에서는 김 대표를 비롯해 이 원내대표, 김태호·이인제·김을동 최고위원, 주호영 정책위의장, 윤상현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박 대통령 당선 직후인 지난해 1월 중국 특사로 파견될 때 이후로 처음으로 박 대통령과 마주한 김 대표는 정치권에서 거론되는 자신과 박 대통령 간 '불화설'을 의식하듯 "대통령이 잘 되게 모시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대표는 오찬회동에서 전날 전당대회 수락연설에서도 인용했던 고사성어 '풍우동주(風雨同舟)'를 다시 꺼내 "우리 모두는 어떤 비바람 속에서도 한 배를 탄 공동체"라며 "누가 어떻게 만든 정권인데 대통령을 잘못되게 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김 대표는 오찬 후에는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 참석해 인사를 나누고 "토론 문화가 활발하게 전개되는 활기찬 민주정당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김 대표는 국회 본청 앞에서 단식농성 중인 세월호 유가족에게도 찾아



당대표로 확정된 후 손을 들어 환호에 답하고 있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가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김 대표는 "아직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얘기를 못 들었다. 제가 (원내대표 등과) 상의해보고 다시 찾아오겠다"고 했다.

김 대표는 이어 여의도에 차렸던 전당대회 캠프에서 지지자들과 캠프 해

단식을 가졌다. 해단식에서 김 대표는 자신의 정치인생을 회고하면서 "남은 정치 인생을 어떻게 잘 마무리해 정말 폼나고 멋지게 잘 은퇴하느냐가 목표"라고 말했다.

sanghwi@news1.kr

김무성 "정성근 사퇴, 청 언질 있었다" 하루만에 말 바뀌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황우여 전 대표의 교육부장관 지명과 정성근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 이전에 청와대로부터 언질을 받았다는 사실을 17일 뒤늦게 인정했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청와대 회동에서 황우여 전 대표에 대한 말씀 있었다. 전당대회 시기와 맞

지 않았기 때문에 상의는 못했지만 미리 말씀해주셨다"고 말했다. 정성근 사퇴에 대해서는 "전화가 왔었는데 받지 못했다. 차후 전화했더니 그런 내용 전달 있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언급했다.

앞서 김 대표는 청와대가 사전에 이런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말해 당청(黨靑) 간 소통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었다.

16일 김 대표는 정성근 후보자가 사

퇴한 직후 "정 후보자 사퇴를 언제 알았느냐" 기자들의 질문에 "당 최고 중진연석회의 중에 (사퇴 발표 사실에 대해) 메모지를 넣어줘서 알았다"고 말했다. "(15일) 청와대 오찬에서 정 후보자 관련 이야기가 없었냐"는 질문에도 "그런 얘기는 없었다"고 답했다. 또 김 대표는 황 전 대표가 교육부장관에 지명된 직후 "그 얘기는 못 들었다"고 말했다.

hsb@bostonkorea.com

김무성...대표 취임 이틀 만에 체면 구겨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수평적인 당·청 관계를 강조해온 김무성 새누리당 신임 대표가 정치적 첫 시험대였던 '박근혜 대통령의 정성근 인사'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체면을 구겼다고 한겨레가 보도했다.

김 대표는 16일 아침까지도 당내 반발을 무릅쓰고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를 두둔했는데, 정 후보자가 불과 몇시간 뒤에 돌연 자진사퇴하면서 김 대표가 '소신 부족'과 '정보 부족'을 동시에 드러냈다는 비판이 당내에서 나오고 있다.

김 대표는 이날 아침 SBS 라디오에 출연해 청와대가 정 후보자를 임명하

기로 한 데 대해 "다소 문제가 있지만 사실과 달리 과장되게 알려져 있다"며 "모든 걸 감안해서 최종 결정된 만큼 (야당이) 협조해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며 청와대와 공동보조를 취했다. 오히려 그는 여당 내부의 비판적인 목소리에 대해 "잘 설득하겠다"며 '집안 단속'을 강조했다. 그는 불과 이틀 전 열린 전당대회까지만 해도 '청와대 2중대' 노릇을 한 직전 친박 지도부를 비판하면서 "청와대에 당심과 민심을 제대로 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작 대표에 취임하고서는 '청와대 지킴이'를 자처한 것이다.

그런데 최고중진연석회의 도중 정

후보자는 자진사퇴를 발표했다. 김 대표는 회의 직후 "아까(회의중) 누가 메모지를 넣어서 알았다"며 "나는 청와대가 요청했기 때문에 '협조하자'고 했는데, 본인이 사퇴해서 할 말이 없다"고 머쓱해했다.

김 대표의 '굴욕'은 처음이 아니다. 전날 김 대표는 새누리당 최고위원 3명과 청와대에서 박 대통령과 오찬회동을 한 뒤 따로 5분간 독대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도 그는 1시간 뒤로 예정돼 있던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에 대한 이야기를 박 대통령으로부터 듣지 못했다.

hsb@bostonkorea.com

김무성 "박대통령, 정성근 논란 사실과 다르다고 생각"

"대통령 결정에 협조해야"

(서울=뉴스1) 김유대 기자 =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15일 야당으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 "정 후보자에 대해선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과 다르게 알려졌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 "대통령의 결정에 대해 협조해 주길 부탁드립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전날 청와대 오찬 직후 박 대통령과 5분여간 독대했다. 이 자리에서 김 대표는 박 대통령과 정 후보자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 했을 것이라 관측이 지배적이다.

김 대표는 박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한 김명수 전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박 대통령이 국민 여론을 수렴해 결정을 한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여야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 해선 "아직 보고 받을 겨를이 없었다"며 "여야 합의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맡겨야 한다"고 답했다.

김 대표는 전당대회 막판 공세를 받았던 차기 대권 도전설에 대해선 "대권 자격이 많이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생각이 없다"며 "현 대통령 임기가 1년 반도 안됐는데 대권과 레임덕 운운하는 것은 금기해야 할 말"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서청원 최고위원이 첫 지도부 일정에 불참하면서 제기된 갈등설에 대해선 "서 최고위원이 수천명 대의원 앞에서 깨끗이 승복하고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며 "몸이 쾌차하는대로 나오셔서 경험과 경륜을 통해 저희들을 잘 후원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ydkim@news1.kr

H MART

Yes, We are **OPEN 365** days a year!
SALE WEEK JULY 18, 2014 - JULY 24, 2014
ONLY FOR HMART BURLINGTON STORE
 STORE HOURS: SUN.-THU. 8:00 AM - 9:00 PM | FRI.-SAT. 8:00 AM - 10:00 PM
 All prices are based on availability. Typographical errors may be present in the prices and descriptions.
 수량에 따라 세일이 일찍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 광고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인쇄에 오류가 있을 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

CUSTOMER SERVICE
 For coupons, Events & Exclusive Deals.
 Subscribe at www.hmart.com
 Toll Free No. 877.427.7386
 Customer_care@hmart.com



GET FIT. GET HEALTHY!

Get to Hmart

It's The Ultimate In Healthy Eating!
 Enjoy delicious all-natural chicken along with other fresh meats, seafood & fruits on sale at Hmart.

금토일만 세일 가격 적용
 Fri./Sat./Sun Limited Time Offer

샴페인망고
CHAMPAGNE MANGO
 \$11.99 / box

스노우 크랩 10up
COOKED SNOW CRAB
 \$7.99 / lb.

등심 스테이크 FRESH
BONELESS BEEF RIB EYE STEAK 8up
 \$8.99 / lb.

니시키 쌀
NISHIKI RICE 15 lbs.
 \$14.99

하마트에서 준비한 다양한 보양식재료로 건강하고 활기찬 여름을 보내세요!

하마트와 함께하는

NEW!

CUCKOO

New Rice Cooker Launch Event
 쿠키 밥솥 신제품 출시 기념 이벤트
 (JUNE 20TH, 2014 - JULY 31ST, 2014)

구매액 1009FN/ \$4,999.00 for 10 people

거대 쌀 아나라 내솥의 안라 밥 모두 스테이프로 진화한 쿠키 친화형 물 스테이프로 2.0 에코! 이제 더 건강한 에코 라이프를 경험하세요.

PURCHASE ECO-FRIENDLY CUCKOO FULL STAINLESS STEEL 2.0 ECO RICE COOKER WITH \$20 DISCOUNTED PRICE AND TAKE HOME A CUCKOO ELEC. MIXER!

<p>금토일만 세일 가격 적용 Fri./Sat./Sun Limited Time Offer</p> <p>위와 같은 잘 통하게 하여 소화에 좋은 Napa Cabbage 배추 box \$9.99</p>	<p>안락성 식품으로 무늬와 잘 어울리는 Red Leaf Lettuce 적상추 lb. \$0.99</p>	<p>항암작용에 탁월하며 면역력을 키워주는 Crown Broccoli 크라운 브로콜리 lb. \$0.99</p>	<p>신맛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번비에 효과가 있는 Gobo 우영 lb. \$1.99</p>	<p>Marinated Sliced Beef Rib Eye for Bulgoggi 양념 소불고기 lb. \$5.99</p>
<p>FROZEN Sliced Pork Single Belly for BBQ 바베큐용 냉동 삼겹살 lb. \$4.99</p>	<p>FROZEN 고소한 맛이 일품! Thinly Sliced Beef Brisket 냉동 차돌박이 lb. \$8.99</p>	<p>금토일만 세일 가격 적용 Fri./Sat./Sun Limited Time Offer</p> <p>캐나다산 쿡 랍스터 Canadian Cooked Lobster 캐나다산 쿡 랍스터 lb. \$8.99</p>	<p>금토일만 세일 가격 적용 Fri./Sat./Sun Limited Time Offer</p> <p>칠리안 씨베스 스테이크 Chilean Seabass Steak 칠리안 씨베스 스테이크 lb. \$13.99</p>	<p>FROZEN Salted Mackerel 자반 고등어 400-600's/lb. \$3.99</p>
<p>FROZEN SUHYUP Sliced Pollock 수협 절단 동태 1.4 lbs./pkg. \$4.99</p>	<p>SAMYANG Spicy Chicken Fried Noodle 삼양 불닭볶음면 4.93oz. x 5ea./pkg. \$4.99</p>	<p>GWANGCHUN Roasted Seaweed Laver w/ Green Tea 광천농협 녹차김 0.7oz. x 10ea./box \$9.99</p>	<p>DANYA Japanese Style Buckwheat Noodles 단야 메밀소바 3 lbs. \$3.99</p>	<p>DANYA Soba Tsuyu 단야 소바소스 16.7fl.oz. \$2.99</p>
<p>ALCHAN SOONDAE Fully Cooked Korean Brand Link 알찬순대 1.5 lbs. \$7.95</p>	<p>CHORIPDONG Assorted Fried Fish Ball 초립동이 순생선살 종합어묵 1.1 lbs./for 2\$5</p>	<p>HAIOREUM Korean Style Noodles Somen 해오름 막국수 5 lbs. \$4.99</p>	<p>HAIOREUM Pancake/Frying Mix 해오름 부침/튀김 가루 2 lbs. \$1.99</p>	<p>ESBENSHADE FARMS Grade A Large Eggs 에스벤셰이드팜 라지 달걀 18cnt./pkg. \$1.99</p>
<p>SANDT'S Premium Golden Honey 샌츠 골드 꿀 80oz. \$16.99</p>	<p>BINGGRAE Banana Flavored Milk Drink 빙그레 바나나맛 우유 6.8fl.oz. x 6ea./pkg. \$4.99</p>	<p>BINGGRAE Melona Ice Bar 빙그레 멜로나 아이스바 All Flavors 2.7fl.oz. x 8bars/pkg. \$3.99</p>	<p>PUREUNSAENGHWAL Plastic Roll Bags 푸른생활 위생 롤백 30cm x 40cm 500cnt./pkg. \$5.49</p>	<p>HELLO HOME Fry Pan 헬로홈 후라이팬 28cm/ea. \$5.99</p>

해오름 롤전병과 함께 즐기는 한국 전통의 맛!

Korean Crispy Waffle Roll!

Let the good times roll with all of our yummy flavors!

HAIOREUM Crispy Waffle Roll
 All Varieties/7.23oz. All Varieties/14.8oz.
\$2.99 \$4.99

롤전병

세이브 더 베스트 김치
 The Best Brand Kimchi Chongga

종가집

사은품 증정 이벤트

EVERY CHONGGA PURCHASE MEANS A FREE GIFT!
 (WHO DOESN'T LOVE FREE?)

JULY 17 - JULY 20, 2014 at ALL HMART MA STORES

ENJOY IT WITH OUR FREE GIFT FROM CHONGGA WITH PURCHASE.
 PURCHASE CHONGGA'S 5.5 LBS. MAT OR POGGI KIMCHI & TAKE HOME A FREE 4L KIMCHI CONTAINER.
 종가집 맛김치 또는 포기김치 5.5 LBS. 구매시, 4L 용량 김치통 무료증정!

WE'RE NEVER CLOSED
 Store hours vary between locations. Please call the one nearest you for exact times.
하마트는 1년 365일 항상 오픈합니다.



I-93 NORTH: Exit 37B (into I-95 S/MA-128 S) toward Waltham, Exit 32B-32A toward Burlington, follow signs for Middlesex Turnpike/Arlington, turn left (at the light) and turn left when you see the Hmart sign (near Market Basket).

I-3 SOUTH: Exit 25A (into I-95 S/MA-128 S) and follow signs for Middlesex Turnpike (South), turn left (at the light) and turn left when you see the Hmart sign (near Market Basket).
 43 Middlesex Turnpike, Burlington, MA 01803

AND THAT'S WHAT YOU GET WITH THE BUYING POWER OF 45 STORES.

하마트는 최고의 신선함과 뛰어난 품질, 합리적인 가격으로 고객님의 만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전역 45개 매장을 통합관리하는 구매력으로 온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최상의 식품을 공급하겠습니다.

Our mission is to offer the freshest products. If that means we have to get our fish from the Fulton Fish Market, we do it. If it means we have to negotiate directly with farmers, it's done. If it means we have to go out of our way, and bend over backwards for the best price, it's not a problem. So when the time comes to make that "magical" meal... Hmart think your ingredients had better be, better than the best.

Find us on: **facebook**

하마트 페이스북에 놀러오세요!
www.facebook.com/hmartofficial
 Scan our QR-code with your smart phone for more information.

여 한손엔 '지역일꾼론', 한손엔 '권은희 저격'

(서울=뉴스1) 김영신 기자 = 새누리당은 7·30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17일 '지역일꾼 필승'을 다짐하며 수도권·충청지역 공략에 몰두했다.

새누리당은 그러면서 새정치민주연합 광주광역시 광산구를 후보인 권은희 전 수사경찰서 수사과장의 '보은 공천' 논란과 논문표절 의혹을 표방이 승부수로 띄웠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누리당은 이번 재보선에 아주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섬기고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책임자인 '지역맞춤형' 후보를 내세웠다"며 "집권여당의 힘으로 후보들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에 매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회의 후 곧바로 충남 서산으로 달려가 서산·태안 김제식 후보 출정식에 참석하고 서산동부전통시장을 돌며 김 후보를 지원사격했다.

김 대표는 서산 유세에서 "지난 6·4 지방선거 때 새누리당이 충청권에서 모두 패했다. 대한민국의 중원을 잃으면서 전국 정당으로서의 체면이 말아 아니다"고 자성하면서 "충청을 되찾지 않으면 향후 총선과 대선까지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충청도에서 이겨야 보수정권 재창출이 가능하다. 서산·태안이

충청권 탈환 교두보로써 김 후보에게 집권여당의 힘을 실어 지역발전을 견인하게 해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김 대표는 서산 토박이인 김 후보가 '지역일꾼'이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시켰고, "김 후보가 국회의원이 되면 제가 매일 업고 다니겠다"며 실제로 김 후보를 등에 업어 눈길을 끌었다.

김 대표는 김 후보와 지역시장 곳곳을 돌며 분식점에서 음식을 직접 사먹는가 하면, 1만8000원짜리 육쪽 마늘 한단을 2만원에 구입하는 등 표심연기에 총력을 기울였다.

김 대표는 서산 유세 후 곧장 경기도로 건너가 '경기벨트 사수'에 나섰다.

수원시 팔달구 지동시장 앞에서 열린 새누리당 김용남 후보 개소식에는 김 대표, 경기지사 출신인 이인제 최고위원, 김문수 전 경기지사 등이 참석했다.

김 대표는 "남경필 지사에게 5선을 시켜주면서 젊고 유망한 미래 국가 최고 지도자를 탄생시킨 팔달구민들께서 남 지사와 제대로 협력해 지역발전을 이룰 김 후보를 반드시 당선시켜달라"면서 "새누리당이 재보선에서 안정적 과반의석을 얻어야만 사랑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남은 임기 국정 운영이 안정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 지역에 출마한 새정치연합 손학규 후보를 향해서는 "상향

식 공천을 한 새누리당에 반대 새정치연합은 손 후보를 내리쬐는 '하향식 공천'을 했다"며 "대한민국 정치에서 만약의 근원인 하향식 공천을 받은 후보가 이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을 해서 되겠느냐"고 날을 세웠다. 김 대표는 서산에서처럼 김 후보를 등에 번쩍 업고 필승을 외쳤다.

오랜만에 공개석상에 나온 김문수 전 지사도 "남경필 지사가 지원 유세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전임지사로서 남 지사를 대신해서 온 것"이라며 "수원이 낳은 수원 의 아들 김 후보를 압도적으로 당선시켜달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수원에 이어 경기 평택시 평택역 앞에서 열린 유의동 평택을 후보 출정식에도 달려갔다. 평택 유세에는 김태호·이인제·김을동 최고위원까지 지도부가 총출동했다.

김 대표는 평택에서도 유 후보가 '지역토박이'라고 강조하면서 "유 후보가 당선되면 평택개발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집권당의 힘을 보태겠다"고 유권자들의 표심을 자극했다.

새누리당은 새정치연합 권은희 광주 광산을 후보를 둘러싼 정치권 안팎의 논란을 전국 차원의 선거관 최대 이슈로 부각시키겠다는 전략도 분명히 했다.

윤상현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회의에서 "새정치연합에서 '새정치'를 기치로 내걸었으나 광주에 권은희씨를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새누리당 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7·30 재보궐선거에 출정할 선거운동부를 공개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완구 원내대표, 김무성 대표, 윤상현 사무총장, 김세연 의원, 박대출·민현주 대변인, 이인제 최고위원.

공천한 것은 '새정치'로 볼 수 없는 대표적 사례"라며 '권은희 저격수'를 자처했다.

윤 사무총장은 "권씨는 경찰관 시절 모해 위증 혐의로 고발된 상태고, 변호사 시절에는 위증을 교사했다는 의혹을 받으면서 논란의 핵으로 떠올랐다"며 "연세대 법학과 석사과정 논문도 대량 표절"이라고 주장했다.

윤 사무총장은 권 후보가 논문을 표절했다고 판단하는 새누리당의 근거를 조목조목 열거하면서 "본인 스스로 직접 소명하라"고 요구했다.

이인제 최고위원은 수원 유세에서 새정치연합의 기동민 후보(동작을)와 권 후보 전략공천에 대해 "당내 상의도 없이 느닷없이 내리 꽂아놓고 찍어달라고 말하는 야당은 도대체 국민을 어떻게 아는 것이냐"고 맹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특히 "권 후보는 경찰을 능멸하고 우리 국민을 안중에 없

이 행동했다. 야당의 공천은 엉터리 공천"이라며 "자기들이 공천하면 국민은 무조건 따라오라고 행동하는 야당의 잘못된 행태를 심판해달라"고 호소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선거운동 첫날을 맞아 '깜짝' 이벤트도 벌였다.

윤 사무총장과 김세연 사무제1부총장, 박대출·민현주 대변인은 이날 아침회의에 '혁신작렬'이라 쓰인 흰 티셔츠와 반바지, 빨간 모자 차림으로 등장했다.

재보선 '혁신작렬 1324'(13일동안 24시간 운영) 상황본부 발족을 알리는 이벤트다.

이벤트를 기획한 조동원 홍보본부장은 "메시지 티셔츠로 유권자들이 유쾌하게 느끼는 선거유세를 하겠다"고 설명하며 "다음 계획은 지도부까지 몸을 던지는 '메가톤급'이라고 예고했다. eriwhat@news1.kr

야, '박원순 마케팅'으로 기동민 기세유기

(서울=뉴스1) 이현아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가 7·30재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17일 여야간 승패의 분수령이 될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지원을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선거를 앞두고 발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경기 수원병(팔달)에 출마한 손학규 상임고문마저 박빙의 결과가 나오는 등 선거승리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것에 따른 행보다.

지도부는 이날 최대 격전지 중 한 곳인 서울 동작을에 출마한 기동민 후보 사무실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열고 기 후보 띄우기에 팔을 걷어붙였다.

공식 선거 운동 첫날 '동작을'을 가장 먼저 찾은 것은 이 지역이 당내 공천갈등의 도화선으로 작용한 만큼 선거 승리를 위해 단합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주기 위한 의도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기 후보가 지난 6·4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박원순 서울시장의 최측근인 점을 한껏 부각하며 '박원순 마케팅'에 힘을 실었다.

김한길 대표는 "기 후보는 김근태, 김대중과 함께 서민과 중산층을 지켜

왔고 박원순과 함께 새로운 서울을 가꿔왔다"며 "젊음, 패기와 정의로움을 지녔으면서도 동시에 경륜과 역량을 겸증받은 사람"이라고 치켜세웠다.

안철수 대표는 "기 후보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함께 서울시장에 참여해 시민참여형 시정을 가장 잘 이해하고, 서울 어느 곳에서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라며 "기동민을 살려야 박원순이 산다"고 가세했다.

박영선 원내대표도 "기 후보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정무부시장 경험을 바탕으로 동작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 지역에 출마한 새누리당 나경원 후보에 대해선 'MB아바타'로 규정하며 심판론을 내세웠다.

김 대표는 "민간인사찰, 원전비리, 4대강실책, 언론장악 등 실패한 국정 운영의 책임을 함께한 사람이 반성과 사과없이 다시 후보로 나서는 것은 유권자와 국민을 깔보고 박근혜정부의 오만과 독선, 불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각을 세웠다.

pjy1@news1.kr

동작을 수원 영통 빅딜설...야 후보단일화 고심 깊어져

(서울=뉴스1) 김현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이 정의당과의 야권연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그간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던 새정치연합은 최근 일부 여론조사 결과 수도권 재보선 지역 중 대다수 지역에서 새누리당에 뒤지는 것으로 나오자, 야권연대를 논의해야 한다는 당내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야권연대의 대상 지역으로는 정의당 천호선 대표와 노회찬 전 의원이 각각 출마한 경기 수원영통(영통)과 서울 동작을 선거구가 핵심 지역으로 꼽히고 있다.

새정치연합 소속인 이석현 국회부의장은 17일 뉴스1과 통화에서 "당내에선 야권연대에 대해 '매 선거 때마다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부정적인 기류도 있지만, 현실은 현실"이라며 "수도권에선 조그만 차이로 당락이 뒤바뀌기도 하기 때문에 야권이 연대를 논의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고 필요한 일로, 지금이 (야권연대를) 논의할 타이밍"이

라고 주장했다.

야권연대에 긍정적인 측에선 다소 이른 측면이 있지만 서울 동작을과 경기 수원영통에 대한 빅딜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거론되고 있다. 당의 한 관계자는 "여론조사 추이를 살펴보면 해를 봐야겠지만, 여론조사상 나타나는 경쟁력과 지역 여론을 통해 일정부분 희생이 불가피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하지만 당내에선 야권연대에 부정적인 기류도 만만치 않다.

수원병(팔달)에 출마해 '수원벨트'를 이끌고 있는 손학규 후보는 이날 YTN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연대는 민주주의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기 때문에 (가능성은) 항상 열려있는 것이지만, 연대는 이념이나 정책을 공유하면서 그것을 실현하겠다고 하는 공통의 목표나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단지 눈앞에 있는 선거에 이기기 위한 공학적이고 산술적인 연대는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고 말했다.

수도권의 한 재선 의원은 통화에서 "야권연대는 비정상적 정치체제이자 정치구조"라면서 "재보선에서 야권연대가 빈번하게 이뤄지면 아주 중대한 전국선거인 총선과 대선에서 국민들에게 감동을 줄 수가 없다. 희소가치가 떨어진다"고 밝혔다.

또 다른 당직자는 "이번에 지역을 양보하게 되면 통합진보당에게 전남 순천을 내줬던 상황을 되풀이할 수 있다"면서 "또 연대를 하게 되면 반드시 이긴다는 확신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면 의미있게 지는 게 나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당내 여론이 엇갈리면서 당 지도부측에선 '함수관계가 복잡해 풀기가 쉽지 않다'고 토로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 지도부측 인사는 "다른 돌발적인 변수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는 한 현 상태에선 풀 수 있는 답이 없다"고 밝혔다.

gayunlove@news1.kr

잊을수 없는 한국의 맛을 압구정에서 느껴보세요

압구정

압구정이 **갈비**와 **냉면** 전문점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1114 Beacon St, Newton, MA
예약문의 / 617-527-7888

단체석 노래방 시설 완비/뉴튼 센터에서 차로 3분 거리

<보스톤 처음으로 **즉석**에서 직접 뽑는 냉면을 맛보세요>

헤어 앤드 그레이스 살롱

처음 고객님의 20% 할인

헤어컷
컬러, 하이라이트, 코팅
트리트먼트
Up-Do
메이컵
매니-페디큐어
왁싱
각종 펌

웨딩헤어+메이컵
일요일도
예약받습니다

예약문의 **508-879-7777**
Natic Mall에서 **3분 거리**
914 Concord St.
Framingham, MA 01701

“교육 컨설팅의 처음과 끝을 함께합니다”

교육관련 consulting

- 명문 중,고,대학 진학 상담및 수속
- 방학 특별 활동 프로그램
- 가디언 업무

주소: 47 3rd St, Suite 201
Cambridge, MA 02141
전화: (617) 225-2200
Fax: (617) 225-2877
이메일: juliet2647@gmail.com

서울시 "제2롯데타워 교통·안전 구멍"

롯데 "소송 검토는 아직, 서울시에 최대한 협조"

(서울=뉴스1) 임해중 기자 = 서울시가 제2롯데타워의 임시개장을 요청한 롯데그룹에 강도 높은 교통·안전 대책을 주문했다. 롯데가 요청한 제2롯데월드 저층부의 임시사용승인 신청에 대해 불허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이다.

롯데 측은 서울시가 지적한 사안들을 보완하고 빠른 시간 안에 임시사용승인을 재신청한다는 방침이지만 상업시설의 조기개장 여부가 결정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가 상업동 임시개장에 따른 교통량 증가를 반영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는데 잠실역 주변의 교통 혼잡을 해소할만한 뾰족한 방법이 없어서다. 업계에서는 제2롯데워드의 연내 임시개장이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관측도 나온다.

서울시는 17일 '제2롯데월드 저층부 임시사용신청'에 대한 검토결과를 발표하고 롯데에 교통과 공사장 안전, 피난방재 대책 등을 보완하라고 통보했다. 안전사고와 석션호수 수위 저하로

시민 불안이 커진데다 관계부서 및 시민자문단이 여러 문제들을 지적해 내부 검토 끝에 승인을 거부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서울시가 이같은 판단을 내린 이유는 교통과 안전 문제 때문이다. 타워동의 양중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건축자재 낙하사고가 발생하면 대형 사고로 번질 수 있다는 게 서울시의 우려다. 서울시는 롯데 측에 초고층 타워동에서 낙하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종류와 무게, 높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시뮬레이션하고 구체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상업시설 임시개장에 따른 교통량 증가와 이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됐다. 특히 서울시는 건축승인 당시 마련된 8개의 교통개선대책이 2012년 이뤄진 교통영향평가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 현재의 교통 상황과 맞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제2롯데월드 상업동 조기개장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련된 교통개선대책으로는 잠실역 사거리의 교통 혼잡을 해

소하기에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백호 서울시 교통정책관은 "교통개선대책 가운데 올림픽대로 연결도로 개설과 단천변 동측도로 확장 등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저층부 상업시설이 먼저 문을 열 경우 잠실역 사거리 주변의 교통 혼잡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단천변 동측도로 확장과 올림픽대로 연결도로 개설이 잠실역 인근 교통 혼잡의 각각 4%, 6% 정도를 해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상업동이 조기 개장할 경우 잠실역 사거리의 교통수요가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주요 대책들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아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업계에서는 상업시설 3개동이 오픈할 경우 제2롯데월드 완공 시점에 예상되는 교통수요의 70% 수준까지 교통량이 증가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롯데 측은 서울시의 이같은 통보에 대해 우선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안전과 관련된 지적사안들은 상당부분 조치가 완료됐기 때문에 서울시의 통



제2롯데월드 - 서울시 제공

보 내용을 검토한 뒤 조만간 임시사용승인을 재신청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서울시가 주문한 종합적인 교통대책에 대해서는 불만을 드러냈다.

롯데 관계자는 "단천변 도로 확장의 경우 교통유발분담금으로 450억원을 이미 납부했고 올림픽대로 연결도로 개설 역시 서울시가 발주하는 사업이어서 롯데가 관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며 "조기개장 이후의 교통 문제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협의 후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롯데 측은 서울시가 제2롯데월드 임시사용을 계속 불허할 경

우 소송에 나설 수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일단은 부인했다. 소송이 최소 1년 이상 이어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득보다 실이 크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상업동 조기개장과 관련된 소송이 2016년 예정된 준공 시점까지 진행되면 소송 자체가 무의미해지기 때문이다.

이 관계자는 "아직 소송을 언급할 단계가 아니다"면서 "서울시의 지적사안들을 철저히 보완하고 오픈을 준비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haezung2212@news1.kr

환율 올림증, 15개국중 8번째로 높아

(서울=뉴스1) 이현아 기자 = 2분기 원달러 환율 변동성이 G20국가 15개 통화중 8번째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이는 지난 1분기와 비교해 두 계단 상승한 것으로, 변동폭이 전분기 대비로는 축소됐으나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올림증이 심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이 18일 발표한 '2014년 2분기중 외환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 2분기중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은 0.24%로 전분기 보다 0.12%포인트 하락했다.

변동성은 축소됐으나 G20국가의 환율 변동성 순위는 더 올라갔다.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은 G20국가 15개 통화중 8번째로 높은 수준으로, 지난 1분기보다 두계단 뛰었다. 이는 G20국가 통화의 평균 변동성이 더 크게 축소됐기 때문이다. G20국가 통화의 평균 변동성은 1분기 0.41%에서 2분기중 0.28%로 줄었다.

한은은 "지난 1분기중 아르헨티나, 터키 등 일부 신흥국 통화의 변동성이 높아지며 변동이 높았던 반면, 2분기중 G20국가 통화의 평균 변동성은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2분기중 원달러 환율의 하루 변동폭은 3.7원, 전일대비 평균 변동폭은 2.5원으로 전분기(각각 4.9원, 3.8원)에 비해 축소됐다. 한은 관계자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 축소 및 최근 원화 환율의 큰 폭 하락에 따른 경제

감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분기 말 원달러 환율은 1011.8원으로 전분기말에 비해 52.9원 떨어졌다. 전기말 대비 환율 하락폭은 지난해 3분기(67.3원) 이후 9개월래 최대치로, 지난 6월말 원화 가치는 3월말과 비교해서는 0.52% 절상됐다.

분기중 평균 원달러 환율은 1029.2원으로 전분기 대비 40.0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분기와 비교해 원화 가치가 3.9% 절상됐다는 의미다.

한은은 원화 절하에 대해 "미 연준의 조기 금리인상 및 중국의 경기둔화 우려가 완화된 가운데 외국인인의 대규모 달러매수 포지션 청산 등으로 원달러 환율이 급락했으며 경상수지의 큰 폭 확대 및 외국인 증권투자자금 유입으로 추가 하락세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G20국가 통화는 유로 및 일부 신흥국(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 남아공 및 인도)을 제외한 대부분이 미달러화 대비 강세를 시현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2분기중 평균 원엔 환율(100엔당)은 1007.8원으로 전분기(1040.0원) 대비 32.2원 하락했으며 분기말 환율은 998.8원으로 전분기말 1034.9원 대비 36.1원 떨어졌다. 1분기 평균으로 봤을때 100엔당 원화 가치는 전기대비 3.2% 절상됐다.

hyuna@news1.kr

간단찮은 '최경환노믹스'..한은, 금리인하로 박자 맞추까

(서울=뉴스1) 이현아 기자 =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빠르고 강한 '경제살리기'정책을 예고했다. 이에 대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로 화답할지 여부에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6일 오전 취임식을 가진 최 부총리는 "경기가 살아나고 심리가 살아날 때까지 거시정책을 과감하게 확장적으로 운용하겠다"며 한은의 동참을 기대했다. 그러나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경기 하방리스크가 우세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금리인하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드러냈다.

이 총재는 이날 서울 장충동 반얀트리 호텔에서 열린 한 포럼에 참석해 "3분기 이후 성장률은 점차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향후에는 소비 및 투자심리 위축 장기화, 원화 가치 변동성 확대 가능성 등 하방리스크가 다소 우세하다"고 밝혔다.

또 이 총재는 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규제개혁'에 대해 "당연하고도 적절한 선택"이라고 호응했다. 이어 "우리 경제의 구조나 발전 단계에서 볼 때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가 많다"며 "정부에서 경기를 살리기 위해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규제의 획기적 완화 등을 통한 기업의 투자확대를 유

도해야 하는 것을 정책 우선순위에 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총재는 "정부가 경제를 살려야겠다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한은도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관련된 논의를 할 계획"이라며 "함께 경제에 대해 논의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반면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가계부채나 소비부진, 원화절상 등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택적으로 금리정책을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다. 특히 가계부채가 임계치에 도달한 상황에서 금리를 인하할 경우 부채규모가 확대돼 향후 경제성장을 억누를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 총재는 "금리정책의 효과는 상당히 제한적"이라며 "가계부채 측면으로 보면 금리 인하의 효과가 반드시 가계부채에 도움이 된다고 단정짓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금리를 낮춰서 소비를 촉진한다는 것은 가계부채 증가를 용인한다는 것"이라며 "가계부채를 늘리는 것이 이 효과와 비교했을 때 어느것이 효과가 클지 냉정히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단기적으로 소비의 플러스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가계

부채가 늘어나서 소비여력을 제약하는 효과까지 감안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가계부채가 소비를 제약하는 단계에 가까워져 있다"며 "급속한 디레버리징은 또 다른 부작용을 가져오기 때문에 가계부채 증가율을 소득 증가율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총재는 "원화절상 역시 금리정책으로 조정한다면 다른 것을 배제하고 금리 변동폭이 상당히 커져야 한다"며 "금리로 원화절상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환율에 대한 일관 원칙은 시장 수급에 따라 변한다는 것"이라며 "다만 수출현상에 따른 오버슈팅 여지가 있기 때문에 통화안정을 위해 세심히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환율 변화가 가져올 경제 변화에 초점을 맞춰 통화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이 총재는 포럼에서 향후 한은의 역할에 대해 "새로 출범한 경제팀이 경제활성화를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중앙은행으로서 너무 한쪽으로 휘둘리지 않고 적절한 견제기능을 가지고 통화정책을 펼치겠다"고 답했다.

hyuna@news1.kr

 **한의원 선유당**

진료 과목

- 통증치료 알려지
- 불임 갱년기 여성질환
- 여드름 한방피부미용(주름개선 안면침)
- 소아진료 성장침 비염 아토피
- 교통사고 유학생 여행자보험 적용가능



www.sunudang.com

**1208 VFW Parkway #201
Boston MA 02132
617.327.1812**




Dedicated to Your Health **Icon Dental**

아이콘덴탈
Ultimate Smile



Quality Dental Care

렉싱턴과 콩코드에 편리하게 위치한 아이콘 덴탈은 여러분과 가족 모두에게 적합한 맞춤형 치료 계획을 통해 미용치과, 성인 및 소아 치열교정 및 최신 임플란트 시술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신 기자재와 진료기술 그리고 편안하며 현대적인 진료실에서 친절한 스태프와 함께 양질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표원장 치의학박사 안형준

57 Bedford St. Suite 220, Lexington MA 02420
전화 781-861-8978

97 Lowell Rd. Suite A8, Concord MA 01742
전화 978-369-0254

이메일 info@icondentalexington.com
www.icondentalexington.com

Dr. 차 영 주
치과 일반의

Dr. James Kim
치과 일반의

Dr. Larisa Turkenich
치과 일반의

Dr. Charles Braga
임플란트 및 잇몸 수술 전문의

Dr. 오 동 현
교정 전문의

Avoid the Summer Slide by enrolling at JEI!



Summer 2014

Avoid Summer Learning Loss

JEI Programs are aligned with **Common Core State Standards** to give students the advantage they need. Children can customize their summer classes by selecting subjects they need the most help in.

- JEI Math
- JEI English
- JEI Reading & Writing
- JEI Problem Solving Math
- JEI Korean / 재능한글

재능교육 JEI Learning Centers

FREE Enrollment from June 1-30

T. 781-365-0075 11 Adams St, Burlington MA 01803 www.jeikids.com



"따뜻한 봄날의 시작을 헤어스타일 영이 책임지겠습니다"

남자컷 25불 / 여자컷 30불 / 파마 70불 부터
디지털 130불 부터 / 케라틴 매직 220불 부터 시작 합니다.

경혁 압구정 김영남 미용실, 롯데호텔 마리 미용실, 송내 부천 박준 오픈 스타일
뉴욕 Fox 헤어 스튜디오, SALON LOFTS sunny 운명

617.947.6840

25 church st, watertown MA

이영표 돌직구 “방송국들 K리그 중계 지켜볼 것”

(서울=뉴스1스포츠)임성일 기자 = 브라질 월드컵에서 해설위원으로 변신해 적잖은 반향을 일으켰던 이영표 KBS 해설위원이 ‘돌직구’를 던졌다. K리그의 발전을 위해 모두가 행동해야 할 때라고 일침을 놓았다.

오는 25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팀 박지성’과 ‘팀 K리그’의 맞대결로 펼쳐지는 2014년 K리그 올스타전에 참가하는 이영표가 17일 서울신문로 축구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소감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이영표는 “K리그 최고의 스타들과 함께 하는 무대이자 오랜 동반자인 박지성 선수의 고별무대에 선다는 것이 기쁘고 설렌다”면서 “즐거움 마음으로 임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한국 축구의 발전을 위해 박지성이 꼭 1골을 넣었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올스타전에서 자책골을 넣었던 아픈 기억이 있는데 두 번째 자책골이 나오지 않도록 주의하겠다’ 등 너스레를 떨었던 이영표는 회견 중간 의미 있는 발언으로 주목을 받았다. 이영표 해설위원은 “브라질 월드컵



오는 25일(현지시간)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팀박지성’과 ‘팀 K리그’ 대결로 펼쳐지는 2014년 K리그 올스타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차두리, 김승규, 박지성, 이영표

컵을 통해 방송 3사가 열정적으로 중계하는 것을 봤다. 정말 최선을 다하더라도 열정이 K리그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라면서 “타사의 K리그 중계가 부족한 것까지는 내가 뭐라 말하기 어렵다. 하지만 내가 속한 방송국이 K

리그 중계를 늘리지 않으면 무척 실망할 것 같다. 더 적극적으로 K리그를 중계하리라 믿는다”는 말로 방송국의 관심을 당부했다. 이어 “모두들 K리그의 위기를 말하고 있다. 하지만 무엇이 문제인지는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무엇이 우리의 장점이고 단점인지, 이제는 아느냐 모르느냐의 문제는 아니다. 고치기 위해 행동하느냐 행동하지 않느냐의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이영표 해설위원은 “모두

가 알고 있는 문제를 고치기 위해 이제 는 행동해야 할 때다. 행동할 수 있다면 K리그가 바로 설 수 있을 것”이라는 말로 모든 이들의 노력을 촉구했다. lastuncle@news1.kr

박태환 동영상 전국수영대회 금메달과 함께 화제

(서울=뉴스1스포츠)이한솔 기자 = 박태환 동영상이 누리꾼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박태환은 지난 16일 경북 김천실내수영장에서 열린 2014 MBC배 전국수영대회 남자 일반부 자유형 200m 결승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경기 후 온라인 커뮤니티와 포털사이트 등에는 ‘박태환 자유형 동영상’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이 게재됐다.

영상 속에는 박태환의 경기 장면이 담겨 있다. 이날 박태환은 1분45초25를 기록하며 우승을 차지했다. 박태환은 앞서 예선전에서 1분48초9으로 대회 신기록을 세웠지만 결승전에서 예선 기록을 3초71이나 앞당기며 아시안게임 티켓을 확보했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박태환 동영상, 역시 박태환이다”, “박태환 동영상, 아시안게임 무난한 출발”, “박태환 동영상, 멋지다” 등 반응을 보였다.

hslee61@news1.kr

브리티시 오픈

감 잡은 우즈, 메이저 15승 향해 전진

(서울=연합뉴스) 최태용 기자 = 허리 수술을 받고 올 시즌 처음 메이저대회에 출전한 '골프황제' 타이거 우즈(미국)가 빠르게 실전 감각을 찾아갔다.

우즈는 17일(현지시간) 잉글랜드 호이레이크의 로열 리버풀 골프클럽(파72·7천312야드)에서 열린 제143회 브리티시오픈 1라운드에서 버디 6개에 보기 3개를 곁들여 3언더파 6타를 쳤다.

지난 3월 말 허리 수술을 받은 우즈는 3개월 만에 출전한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키킨슨스내셔널에서 킷탈락해 팬들의 걱정을 샀다.

하지만 2주 만에 다시 출전한 브리티시오픈에서 선두 로리 매킬로이(북아일랜드·6언더파 66타)보다 3타 뒤진 공동 10위에 올라 개인 통산 15번째 메이저 우승에 시동을 걸었다.

우즈는 브리티시오픈에서 2000년과 2005년, 2006년에 우승했다. 이 중 2006년 우승은 올해 대회가 열리는 로열 리버풀 골프클럽에서 달성했다.

바람도 심하게 불지 않는 쾌청한 날씨 속에 진행된 1라운드에서 우즈는 불안하게 출발했다. 1번홀(파4)에서는 그린을 놓쳐 보기를, 2번홀(파4)에서는 스리퍼트를 하는 바람에 또 1타를 잃었다.

하지만 5번홀(파5)에서 세 번째 샷을 홀 3m에 붙여 1타를 줄인 우즈는 11번홀(파4)에서 그린을 놓쳤지만 칩인버디를 성공하며 이븐파를 만들었

다.

우즈는 11번홀의 버디를 신호탄으로 13번홀(파3)까지 3개월 연속 버디를 잡았다. 14번홀(파4)에서는 페어웨이우드로 티샷을 했다가 깊은 러프로 보내 보기를 적어냈다.

그러나 15번홀(파3)에서는 2m 거리의 버디 퍼트를 넣었고 16번홀(파5)에서는 러프에서 친 세 번째 샷을 홀 한뼘 거리에 붙인 뒤 버디를 잡아냈다.

구름 관중을 몰고 다닌 우즈는 18번홀(파5)에서 두 번째 샷을 할 때 갤러리의 소음 때문에 두 차례나 샷 동작을 멈췄다.

두 번째 샷은 그린 앞 벙커에 빠졌고 우즈는 왼쪽 다리를 벙커 안에, 오른쪽 다리를 벙커 밖에 걸치고 샷을 해야 했다.

힘든 자세에서 벙커샷을 그린 위에 잘 올린 우즈는 2퍼트로 마무리, 기본 좋게 1라운드를 끝냈다. 16번홀에서 딱 한 번 드라이버를 잡은 우즈의 페어웨이 안착률은 71.43%, 그린 적중률은 77.78%로 그리 나쁘지 않았다.

우즈는 “수술을 받은 뒤 4개월 만에 출전해 쉽지 않았다”며 “1,2번홀에서 보기를 했는데 평정심



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차세대 골프황제’ 1순위로 꼽히는 매킬로이는 보기 없이 버디 6개를 쓸어담는 맹타를 휘둘렀다. 매킬로이는 “내 게임 플랜에 집중하려고 했다”며 “오늘은 날씨가 매우 좋아 스코어가 잘 나온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매킬로이는 최근 경기에서 라운드마다 기록이 심한 스코어를 적어내 불안감을 떨치지 못했다.

매킬로이는 2010년 대회 1라운드에서 단독 선두를 달리다 2라운드에서 80타를 쳐 무너진 뼈아픈 기억이 있다.

브리티시오픈에 15번째 출전하는 한국골프의 간판 최경주(44·SK텔레콤)는 버디 6개를 보기 6개로 맞아줘 이븐파 72타를 쳤다.

‘성령 안에서 하나되는 교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로 인해 막혔던 답을 예수님이 무너뜨리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겸손, 은유, 인내, 사랑, 용납,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금요찬양예배 저녁 8:00
주일예배 오전 10:00

주일 예배 오전 10:00
주일학교, 유스 예배 오전 10:00
금요찬양예배: 금 오후 8:0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토 오전 7:00
청년모임 주일오후 12:30
속회모임 수 - 주일 속회별
중보모임 화, 목 오후 8:00, 주일 오전 9:30
성경공부 주일 오후 12:30, 수 오전 9:30, 금 오후 9:30

비전 교회
The people of The United Methodist Church

80 Mt. Auburn St., Watertown, MA 02472 Tel: 617.744.9557
www.gracevisionumc.org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 삶을 노래하는 교회

나사렛사람의교회


KOREAN CHURCH OF THE NAZARENE

주일예배 오전 11시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십니다.
나사렛사람의교회도
가까이 있습니다.”*

900 Main Street
Reading, MA 01867
보스톤 북쪽
I-95 Exit 38B
(Rt. 28N)로 나와서
2 마일 왼쪽에 있습니다.
Tel. 781.439.1840

www.npeople.org
담당목사 유경렬



미주한인계수교장모회

세빛교회

NEW LIGHT KOREAN CHURCH

주일예배: 오전 11시 30분
주일영어예배 (EM): 오전 11시 30분
주일학교 (유, 초, 중, 고): 오전 11시 30분
수요예배: 오후 8시
금요기도회: 오후 8시
새벽기도회: 오전 6시 (별요일 제외)

담당목사 김대업
730 Main St. Waltham, MA 02451
781-652-0001 / NewLightKC.org



뉴햄프셔한인교회

New Hampshire Korean Christian Church

주일예배 • 오후 1시 30분
담당목사 • 장계은

12 Station Rd. Bedford, NH 03110 (395 루츠: 8 Hawthorne Dr. Bedford)
603-264-6799 • 603-264-6798 • www.newkcc.org



임마누엘 연합교회

주일예배: 오후 1시 30분
새벽기도: 오전 6시 (월~금)
담당목사: 김 덕 기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60 Forest Park Rd, Woburn, MA 01801
617-939-3903




성양뚜안 다블뤼 보스톤 한인성당

하느님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삶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 찾아 나서고자 하는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성 양뚜안 다블뤼 한인 성당에서는
새입교자를 위한 교리반을
9월부터 시작합니다.

45 Ash St. Newton MA 02466
617-558-2711, 617-244-9685
office.kccb@gmail.com /
stdaveluychurch.org
Mass: 11:30am(교중미사), 4:30pm



보스톤 서부 장로교회

Boston-West Korean Presbyterian Church

어머님 마음 같은 교회

주일예배: 오후 2시 | 주일학교: 오후 2시
중고등부: 오후 2시 | 대학부모임: 주일 12시
금요기도회: 오후 8시 | 구역모임: 구역별로

담당목사: 김학수
www.bostonwestchurch.org
657 Boston Post Road, Weston, MA 02493
교회: 781.894.3958 목사관: 617.969.5809



보스톤 남부지역 보스톤 새힘교회

주일예배 11:00 AM

617-622-5225
5 Cabot Pl, Stoughton, MA 02072
www.bostonrenewal.org



“매주 2만여명의 독자를
직접 찾아갑니다”

보스톤코리아 이메일 발송 서비스

- 2만여 회원들에게 인터넷 지면보기 전세계 어디서나 볼 수 있어 보스톤 코리아가 매주 신문 발행과 함께 이메일로 2만여 회원들에게 인터넷 지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매주 새로운 소식을 전세계 어디에서나 웹사이트에서 또는 지면보기로 직접 보실 수 있습니다.
- 새로운 소식 깔끔한 디자인
새로운 소식을 깔끔한 디자인으로 전해드립니다. 컴퓨터는 물론 태블릿, 스마트폰에서도 저희 보스톤코리아를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보스톤이나 2014도 볼 수 있어
보스톤 및 미주 생활 가이드로 교육에서 의료 그리고 각종 생활정보를 eBook 또는 보스톤코리아 웹사이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보스톤코리아 보기가 어려우시나요?
이제 이메일 주소로 신청하세요!
픽업 장소가 마땅치 않아 보스톤코리아를 보지 못하는 분들은
bostonkorean@hotmail.com으로 이메일 보기 서비스를 신청하세요.



성경말씀을 통한 기쁨으로 사는


제실일안식일예수재림교 보스톤한인교회

담당목사: 송연호

안식일 학교: 토요일 오전 9:30
안식일 설교예배: 토요일 오전 11:00
중고등부 학생부: 토요일 오후 2:00
금요일 예배: 저녁 7:30
새벽기도회: 일요일 오전 6:00
계재운전: 화요일 저녁 8:30 (스카이프)
영양교실: 화요일 오전 10:00

부설: 보스톤 세생원 센터 / 17년간 헌신들을
위해 매달 무료 강의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주소: 4 Spring St. Stoneham, MA 02180
전화: 781-279-3270 bkadventists@gmail.com
www.bkadventists.com



휴람으로 떠나는 고국방문

一石二鳥

마음 속 고이 간직해 온 고국 방문의 꿈, 최상급 의료서비스도, 특별한 관광 프로그램도 휴람을 통해서라면 모두 이룰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의료 관광의 중심 HURAM

휴람이란?
HOSPITAL, HEALTH, HURAM(휴람) - 동아시아 국제적인 한성으로 한국의 의료와 관광을 연결해주는 의료관광 전문 회사이다.

• 한 차원 높은 의료관광 서비스 휴람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의료 관광 서비스를 의료관광에 대해 관심이 많을 수 있는 방문객들에게 선보이기 위하여 휴람은 의료관광 전문 의료기관이 아닌 종합적인 관광, 관광, 문화, 쇼핑, 숙박, 식사, 교통 등 최상의 의료 관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비용 | 검증된 의료 서비스 | 수은 높은 서비스 | 최고의 시설장비

1 처음부터 끝까지 휴람이 책임지겠습니다!
상당원 전화 - 병원상선 - 예약 & 숙박 - 치료 - 종료

2 휴람만의 고객 특별 혜택!
고품질 의료 네트워크 서비스 휴람은 의료도 관광도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휴람을 통해 의료를 시행하시면 저렴한 비용의 입부문을 마음껏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HURAM 휴람이 추천하는 명품병원에서 경험해 보세요! 마법같이 예뻐지고, 당당하게 젊어집니다.

눈밑지방제거
쌍꺼풀
코성형
가슴성형
페이스리프팅
안면윤곽수술
지방흡입술
기타 성형...

HURAM의 네트워크병원은 서울 강남과 압구정에 있습니다. 이메일 문의: medical@huramkorea.com
문의: | 한국문의: 82.70.4141.4040

CJ 대한통운 보스톤 지사
<http://www.keboston.com>

대한통운 과 CJ 아시아 최고의 물류시장 오픈 !!
뉴잉글랜드의 모든 이사를 맡겨 주십시오.

귀국이사 • 로컬이사 • 타주이사
한국 및 타주 자동차 운반

고국의 전지역 일주일 도착을 보장하는 항공택배

24시간 이사상담

978-461-2424 / 1-888-239-9377
e-mail 상담 : huny@keusa.com

51 Knox Trail, Acton, MA 01720

Crouser & Suh PLLC

크라우저 & 서 로펌

이민법/국제법 전문 미국 로펌
한인 변호사들의, 한인들을 위한
최상의 법률 서비스!

이소영 이민 변호사

스티브 서 이민 변호사

전문인력 취업비자 (H-1B)
단기연수인 비자 (H-3)
주재원 비자 (L-1)
특기자 비자 (O-1, P-1)
취업이민 (NW, EB-1, EB-2, EB-3)
투자비자 (E-2) / 투자이민 (EB-5)
종교 비자 (R-1) / 비자 변경 및 연장
가족초청 이민 / 시민권 신청
추방 재판 / 각종 이민 관련
비지니스, 민사 등 각종 소송 관련

조규성 민법/상법 변호사

양선영 이민 변호사

Crouser & Suh PLLC
1111 Washington Street, Newton, MA 02465

Tel: 617.969.7979 / 617.877.3435
Fax: 617.969.4959 www.stevesuh.com / www.suhladyer.com

존 레스터 계약 연장, 네버 엔딩 스토리



레드삭스의 에이스 존 레스터가 올해 시즌을 마친 뒤에도 레드삭스 유니폼을 입을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올해 시즌 초부터 시작된 보스톤 레드삭스의 에이스 존 레스터의 계약 연장 논의가 올스타 주간에도 계속되고 있다.

CBS 스포츠가 레스터와 레드삭스의 계약에 관하여 최신 소식을 전했다. CBS 스포츠에 따르면 레드삭스가 레스터에게 계약 연장에 관한 이야기를 다시 시작하자는 뜻을 전했다는 것. 그러나 레스터가 시즌 중에 계약 연

장에 관한 논의를 하면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거절했다고 보도했다.

레스터는 CBS 스포츠와의 인터뷰에서 “레드삭스는 이전까지 시즌 중에는 계약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을 선호했다. 그런데 지금 계약 연장 문제를 꺼내는 것은 귀찮은 문제를 펼쳐버리려는 것 같다”며 “시즌 초에 제시 받은 금액 이후로 다른 제안을 받은 적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올해 시즌이 끝나면 레드삭스와 레스터의 계약은 종료된다. 레스터는 시즌이 시작하기 직전에 레드삭스로부터 4년, 7천만 달러의 계약 연장 제안을 받았다. 레스터의 실력과 성적을 고려할 때 이 금액은 터무니 없이 낮은 금액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레스터가 자유계약 선수 신분이면 시장에서 1억 2천 5백만 달러에서 1억 8천 9백만 달러까지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CBS 스포츠는 예상했다. 1

억 4천 4백만 달러의 계약을 성사시킨 콜 해멀스와 1억 4천 7백만 달러의 계약을 맺은 잭 그레인키와 비슷한 수준의 계약을 레스터가 맺을 수 있다는 것이다.

가장 유력한 계약 조건은 7년 계약에 1억 7천 5백만 달러, 혹은 1억 8천 9백만 달러 정도라고 예상했는데, 각각 연봉으로 따지면 2천 5백만 달러와 2천 7백만 달러가 된다. 레드삭스가 올해 초에 제안한 4년, 7천만 달러와는

차이가 많이 난다.

보스톤 글로브는 최근 보도에서 레드삭스의 프레지던트 래리 루치노가 레스터에게 제안했던 금액이 지나치게 낮은 금액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레스터가 지난 1월에 연봉이 조금 낮더라도 레드삭스에서 계속 선수 생활을 하고 싶다는 뜻을 내비쳤기 때문이다.

레드삭스의 체어맨 톰 위너는 보스톤 글로브와의 인터뷰에서 레스터의 계약 건에 대해 “우리는 레스터가 이번 시즌이 끝난 뒤에도 계속해서 팀에 남아있기를 희망하고 있다. 우리는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나누었고, 지금은 이런 이야기들을 공개할 시기가 아니다”라며 “우리가 원하는 것은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제안을 하는 것이다. 레스터가 다른 팀으로 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알고 있지만, 동시에 우리가 붙잡고 싶은 선수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위너는 “어떤 야구팀도 투수가 부상자 명단에 올라 시즌을 허비할 길 바라지 않을 것”이라며 “레스터는 꾸준한 모습을 보여줬지만 30세가 넘으면 부상에 대한 위험도 인지해야 한다. 우리는 레스터가 앞으로도 레드삭스에서 계속 좋은 모습을 보여줄길 원한다”고 말했다.

최근 3경기에서 뛰어난 투구를 보여줬던 레스터는 올해 9승 7패, 방어율 2.65를 기록 중이다.

jsi@bostonkorea.com



글쓴이: 정철화, Ph.D.
978-726-6979
jungc811@hotmail.com
Stow Acres Country Club
58 Randall Rd, Stow, MA 01775

정철화 프로의 골프 이야기 252

다 큰 아들에게 이길 수 있는 운동이 골프밖에 더있어?

많은 사람들이 골프를 즐기고 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골프를 하면서도 즐기지만 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골프를 하면서 즐기기도는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프를 그만두지 못하고 계속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를 말하라고 하면 아마도 대부분의 골퍼들이 경험했던 혹은 경험하고 있는 슬라이스가 나는 이유를 말하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마도 108가지 정도의 답을 낼수 있을 것이다. 옛그제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김교수님과 두어명의 다른 지인들과 미팅을 가질 기

회가 있었다. 골프와 관련이 있는 모임이었기에 자연스럽게 골프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던 중에 역시나 단골 주제로 나오는 “이렇게 스트레스 많이 받아야 하는 골프를 왜 해야 하지?” 라는 물음에 대한 얘기들이 오고 갔다. 그런 와중에 김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이들어서도 재미있게 할수 있는 운동이 골프밖에 더 있어요? 다 큰 아들과 운동같이 해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길 수 있는 운동이 골프밖에 더 있겠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갔지만 김교수님의 그 말 한마디가 지금도 가장 마음에 남아 있다. 내 나이 80이 되었어도 딸아이와 함께 경쟁하면서 재미있게 할수 있는 운동이 골프라는 생각에 마음이 흐뭇해진다.

혹시 골프를 아직 하고 있지 않거나 흥미를 잃어버려 손을 놓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주위에 자신에게 골프를 권유하는 지인의 말을 다시 한번 더 관심을 가져보기 바란다. 미국에서 사는 교포중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뚜렷한 목표가 있어서 골프를 시작하는 것은 아니다. 그저 주위사람들이 골프를 하니깐 그 환경에 있다가 보니까 함께 골프를 하게 되는 것이다. 특별히 골프를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또렷하다면 할수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권유하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자연스럽게 골프채를 잡아보는 것이 어찌보면 인생길의 각별한 친구가 될수 있다는 생각을 해본다. 일단 배워 놓으면 반드시 다른 아는 사람들과 함께 라운딩을 하지 않는다 해도 골프장에서 다른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고 그것도 아니면 혼자서 라운딩을 하면서도 색다른 환경에서의 색다른 생각의 나래들을 펼쳐볼 수가 있는 것이 골프이다.

딸아이가 대학 준비 하느라 바쁘다. 약 6개월 정도만 고생하면 대학 원서를 낼 것이다. 바쁜 와중이지만 아빠에게 하는 말이 “아빠, 여름 끝나기 전에 골프 한번 치자”. 그 말을 듣는 것이 왜 이리 좋은지, 역시 나는 딸 바보 아빠인가 보다.



HAPPY
해피돌상

고품격 전통상 대어 (백일상, 돌상)
한국보다 더 한국적인 꼼꼼한 전통상차림,
소중한 내 아기에게 한국의 미를 보여주세요!
저렴하고 푸짐하게!

- 품격을 더하는 화접도 현수막
• 다양한 수공예 소품들
- 엄마의 마음으로 만든 기저귀 케이크
• 국내산 용기접시와 찬기, 공기
- 화려하고 우아한 나비촛대
• 풍성한 상차림 세트

문의 Happydolsang@gmail.com

영어를 배우세요!

전 세계 70 여개국 수백명의 학생들이 거쳐간 CSI 의 ESL 아카데미

인텐시브 영어 프로그램 & 아카데믹 영어 프로그램

ESL 아카데미에서 실시하는 인텐시브 영어와 아카데믹 영어 프로그램에서는 문화와 언어에 대해 집중적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프로젝트와 실험, 견학과 다양한 사회적 행사 참여를 통해 언어와 미국문화를 함께 이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들은 학생들이 미국에서 전문적, 학문적, 사회적 기능을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문화적 지식과 언어능력을 제공합니다.

ESL 아카데미에서 제공하는 여러가지

- J-1 비자를 포함한 F-1 비자로 변경
- 다른 학교로 이전 도와줌
- 해외에서 학생비자 취득 안내
- 공식적인 여름방학
- 여러 일정의 수업
- 기초영어부터 어드밴스 아카데미 영어까지 다양한 레벨



**COMPUTER
SYSTEMS
INSTITUTE**

지금 전화주세요!

888-886-5740

esl.csinow.edu

Charlestown, MA • Worcester, MA
Chicago, IL • Skokie, IL • Lombard, IL



1년 학비 \$3,600!!

Computer Systems Institute is approved by the Division of Private Business and Vocational Schools of the Illinois Board of Higher Education and is authorized under federal law to enroll nonimmigrant alien students. Student visa and work authorization are issued to those who qualify. For more information about our graduation rates, the median debt of students who completed the programs, and other important information, visit our web site at; <http://www.csinow.edu/about-csi/consumer-information>. Program offering varies by campus. Tuition prices effective as of 3/17/14.



NEWSTAR BOSTON

Each office independently owned and operated

대부분 최대 한인 부동산 그룹 / 200여년 역사 / 1000명 이상의 에이전트 / 연30억의 매출실적 / 100여 개국 대표지사 / 한국 및 해외 자회사

전 미주 지역의 Network과 Teamwork 그리고 다년간의 경험과 New Star 부동산만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객의 성공과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백영주
617-921-6979



Kwang O Kim
617-792-8615



Joanne Song
617-797-3562



Sue Rong Tsai
617-792-8842



Yukai Sun
860-830-8599



송경빈
978-844-1508



이제봉
781-654-5281



애나 정
617-780-1675



최진민
617-877-0387



Ritika Chopra
617-697-1191



Michael Yun
617-459-5985



OT Kim
617-620-8242

단독주택 Single Family



\$559,900
Sharon, MA
3 Beds, 2.5 Baths, 1972 sf.
Many updates, Close to schools
#1 Best Place to Live in US
이현주 401-935-3397



\$779,000
Westwood, MA
3 Beds, 2 Baths, 2475 sf.
Updated kitchen
Easy access to major routes
이현주 401-935-3397



\$539,000
Reading, MA
3 Beds, 2 Baths, 2366 sf.
새로 업데이트된 roof, kitchen
Easy access to Highway
Jason Jeon 617-642-5670



\$1,089,900
Lexington, MA
4 Beds, 2.5 Baths
좋은 학군, 햇빛 좋은 남향집
Near I-95, H-mart
Anna Jung 617-780-1675

단독주택 Single Family



\$729,900
Methuen, MA
4 Beds, 2.5 Baths, 3907 sf.
잘 관리된 넓고 아름다운 주택
Jay Lee 781-654-5281



\$239,000
Acton, MA
3 Beds, 2.5 Baths, 1594 sf.
Updated kitchen, floors
Gina Choi 978-866-3248



\$399,000
Newton, MA
Living Area: 987 sf.
Approx. Acres: 0.24 (10250 sf.)
Great potential for builders
OT Kim 617-620-8242



\$899,900
Lexington, MA
4 Beds, 3 Baths, 2534 sf.
넓은 공간, 업데이트된 roof,
kitchen, bathrooms
OT Kim 617-620-8242

단독주택 Single Family



\$195,000
Weymouth, MA
3 Beds, 1 Baths, 1180 sf.
Beautiful ocean view
Jin Choi 617-877-0387



\$789,000
Newton, MA
5 Beds, 4.5 Baths, 2450 sf.
Spacious home for big family
Anna Jung 617-780-1675



\$670,000
Newton, MA
3 Beds, 1.5 Baths, 1788 sf.
대중교통, 하이웨이 진입 편리
Jason Jeon 617-642-5670



\$318,000
Hopkinton, MA
2 Beds, 2.5 Baths, 1651 sf.
좋은 가격의 깨끗한 콘도
Michael Yun 617-459-5985

Investment

E-2 & EB-5 투자
문의: 781-259-4989

Condo

Cambridge/ \$460,000
2 beds, 2 full baths
Greenline extension
Jason Jeon 617-642-5670

Condo

Cambridge/ \$349,000
Charming 1 bedroom condo
Close to Harvard Sq.
Joanne Song 206-734-1407

프랜차이즈

300개 점포 소유 회사
S.J Park 617-304-7001

아파트 건물 투자

아파트 건물
학생 렌트 건물
Cambridge, Boston
S. J Park 617-304-7001

Cleaner

\$220,000
Milford, 건물 가능
주차공간, 사무실
S.J Park 617-304-7001

Drop off Store

찾기 힘든 Drop off store
좋은 위치, 고정적인 손님
일년 매출 \$300K 이상
제이슨 전 617-642-5670

Full Plant Cleaner

저렴한 렌트,
안정적인 수입
넓은 파킹
제이슨 전 617-642-5670

Lexington Office
40 Waltham Street, Lexington, MA 02421
Tel. 781.259.4989 Fax. 781.259.4959
www.BostonNewStarRealty.com

Newton Office
1111 Washington St. Newton, MA 02465
Tel. 617.969.4989 Fax. 617.969.4959
www.NewStarRealty.com

Agent 모집합니다. 781.259.사구팔구 617.969.사구팔구



1111 Washington St, Newton, MA 02465
40 Waltham Street, Lexington, MA 02421

www.BostonNewStarRealty.com
www.NewStarRealty.com

Each office independently owned and operated
100% 한국인 부동산 그룹 / 2014년 10월 / 1000만 달러 이상 매출 /
한국인 부동산 전문가 / 2014년 10월 / 1000만 달러 이상 매출



김형진
781-956-0409



박성종
617-304-7001



제이슨 전
617-642-5670



헤이줄 송
617-895-7676



Shell Yu
781-526-2416



Janice Lee
978-806-6023

Drop off Store



\$45,000
Lincoln, MA
Drop shop and alteration
Great location by Lincoln place
Anna Jung 617-780-1675

Restaurant



\$250,000
Boston, MA
Boston downtown 중심에 위치
Great potential to grow
Jason Jeon 617-642-5670

Business Consulting



**레스토랑
셋업 컨설팅**
SJ Park 617-304-7001

Nail Salon



\$280,000
Burlington, MA
Near Burlington Mall
운영 잘 되는 네일 살롱
Anna Jung 617-780-1675

Drop off Store



\$50,000
Wakefield, MA
Wakefield center에 위치한
drop off store
Jin Choi 617-877-0387

Full Plant 세탁소



\$300,000
West Boylston, MA
고정 손님 많고 잘 운영되는
풀 플랜트 세탁소
낮은 운영비, 좋은 수입
Jason Jeon 617-642-5670

Drop off Store



\$60,000
Concord, MA
Located in a busy shopping-
mall close to Concord center
Jin Choi 617-877-0387

Clothing Store



\$100,000
Mattapan, MA
안정적인 수입
모든 inventory 포함
Jason Jeon 617-642-5670

Cafe



\$250,000
Boston, MA
Cafe w/ 프로즌 요거트,
버블 티, 아이스크림
Anna Jung 617-780-1675

Deli



\$99,900
Chelsea, MA
Amazing Deli with
lottery, cigarette, ATM for sale
Anna Jung 617-780-1675

Grocery



Ask agent for price info.
Allston, MA
1100 sf.
Hot Business Spot
Anna Jung 617-780-1675

Jewelry Business



\$99,999
Natick, MA
좋은 위치, 잘 운영되는 비즈니스
New owner를 위한 training 제공
Michael Yun 617-459-5985

Investment

E-2 & EB-5 투자
문의 781-259-4989

Full Plant Cleaner

\$100,000
Weymouth, MA
잘 운영되는 비즈니스
Jason Jeon 617-642-5670

Convenience Store

\$120,000
Worcester downtown
Great business potential
Won T. Ra 617-642-3156

E-2 투자 이민

E-2 투자 이민
확실한 비즈니스
SJ Park 617-304-7001

Full Plant Cleaner

\$200,000
Middleton, MA
Middleton mall 내 위치
Jason Jeon 617-642-5670

커머셜

커머셜 건물 투자
SJ Park 617-304-7001

비즈니스 빈자리

센트랄 sq., 하버드 sq.
올스톤, 뉴튼 센터
비즈니스 빈자리
SJ Park 617-304-7001

APT Rental

보스톤 아파트 전문가!
가격, 지역, 방 갯수 등 원하시는
조건에 맞추어 찾아 드립니다.
David Kim 781-956-0409



나원태
617-642-3156



Steve Yoo
617-386-3451



신보경
508-361-6064



Claudia Lee
617-817-사구팔구



이현주
401-935-3397



Gina Choi
978-866-3248

최고의 실력과 탄탄한 경력을 갖춘 에이전트들이
여러분을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곧 전화하세요 !!!

보스톤 한국콜택시
Boston Hankuk Jonghap Service, LLC

- 공항 픽업/관광 ● 소형 이삿짐/카지노
- 미니밴/승용차 ● 쇼핑물(아울렛 물)

617.461.9270

한인업소록

Korean Business Directory

이민법 전문 변호사



스티브 서

비자 / 영주권
투자이민/취업이민
Lawcity7@gmail.com

617-877-3435

www.Stevesuh.com

Vol 10, No.28 July 18 2014

한인들과 함께하는 좋은 신문 Bostonkorean@hotmail.com

발행처 : The Boston Korea

161 Harvard Avenue, Suite 13, Allston, MA 02134 전화: 617-254-4654, 광고문의 전화: 617-775-8474

한진택배
HANJIN EXPRESS
보스톤 대리점

Tel 617.782.2424
175 Harvard Ave St14A, Allston, MA

업소탐방 246

보스톤 정관장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781) 238-0303

선가든 힐링센터

지압
침
기치료

617.953.4988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박에바다 기자 = 남녀노소 최고의 건강식품으로 꼽히는 정관장 홍삼액, 따뜻한 물에 녹여마셔야 했던 번거러움을 탈피해 간편한 휴대용 홍삼농축액이 출시됐다.

기존 농축액은 따뜻한 물에 타서 마셔야 했기 때문에 야외활동이나 여행, 바쁜 업무 중에 복용이 불편했다. 더군다나 무더운 여름에 따뜻한 물을 마시려 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한국에서 매출 100억을 돌파할 정도로 인기몰이 중인 '홍삼정 에브리타임'은 끈적이지 않아 그냥 복용할 수 있고 찬물에 희석도 가능해 여름철 고객을 위한 휴대성을 높였다.

정관장 보스톤점 정재호 대표는 "많은 분들이 '홍삼이기가 세 몸에 열을 낸다' 라고 착각해 여름철 홍삼 복용을 기피하신다. 그러나 이것은 중국과 미국 인삼 시장에서 뛰어난 한국 인삼 시장을 견제하기 위한 상술로 허위정보를 흘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이에 관한 과학적인 증거가 많은 연구자료를 통해 증명되어있다.

홍삼을 섭취하고 발열을 느끼는 것은 혈액순환이 촉진되어 손발이 따뜻해지는 등의 일시적인 현

상이고, 홍삼은 오히려 정상체능을 유지시키는 기능이 있다. 정재호 대표는 "예부터 여름 보양식 삼계탕에 인삼을 넣어 먹는 것처럼 홍삼은 기력 보충에 탁월" 하라며 "원기회복을 위한 여름철 건강관리에 큰 효험이 있다" 고 전했다.

한의학 같은 경우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일정 기간만 복용해야 하지만, 동의보감에서 홍삼은 '무해한 상약', 즉 아무리 많이 섭취해도 해가 없는 약으로 구분되어 있는 건강식품이다.

정관장 홍삼이 편리성을 입은 후 기력보충을 목적으로 하는 노인뿐 아니라 다이어트하는 젊은 여성, 체력관리 하는 성인 등 구매연령대도 다양해졌다. 사계절 정관장 홍삼을 챙겨먹는 보스톤 무한무도회 오진욱 사범은 체육인의 건강을 보강해 줄만한 식품을 찾다 보니 "홍삼만큼 한국인의 몸에 잘 맞는 건강식품은 없다" 며 "다른 사범들과 미국인 제자들도 홍삼을 먹을 정도로 좋은 효과를 보고 있다. 미국인들에게 우리나라 홍삼을 알리고 싶다" 고 말했다.

최근 한국을 방문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박근혜 대통령이 정관장 '천삼'을 선물한 것은

고려인삼의 위상과 정관장 제품의 가치를 보여주는 좋은 예다.



정 대표는 "한국 E-마트에서 정관장 홍삼의 절반 가격의 '반값홍삼'을 출시했었는데 제품 질에 문제가 많았었다. 고객들이 허위광고 상술을 주의하시길 바란다" 고 덧붙이며 부탁했다.

'홍삼정 에브리타임'은 한 박스에 30포씩 들어있고 \$102이다. 7월 말까지 프로모션을 진행해 한 박스 구입 시 \$72 상당의 인삼차 3박스과 고급 양가죽 골프장갑을 무료로 증정한다.

epark@bostonkorea.com

“주님의 사랑으로 모든 이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살아 숨쉬는 한 가족 같은 사랑공동체에서 참 기쁨과 평화, 영원한 생명을 함께 누리시겠습니까?

주일예배: 오후 12:30 담임목사: 최형락

보스톤 사랑의교회
www.bostonvechurch.com
1 Church St., Wakefield, MA 01880 (978)869-2596

장 음식 주문

- 김밥 및 떡 전문
- 생일잔치, 교회모임
- 돌, 회갑, 계모임 음식
- 대학교 파티, 결혼식
- 저렴한 가격
- 맛있고 풍부한 음식

Tel:781-648-0584

보스톤 봉사회

의료보험안내
무료세금보고

508-740-9188

코리아 여행사

617.267.7777
1.800.473.1922

보스톤코리아 업소탐방

신청 방법:
전화번호 617-254-4654
bostonkorean@hotmail.com

오리엔트 여행사
Orient Travel

781.665.0004

145 Main st Melrose, Ma 02176
theorienTtravel@yahoo.com

CHOISIGNS & DESIGN

LED Sign, Channel Letter, Truck Lettering, Banner, Poster, Window Letter, Car Sign, Lighted Box, All Types of Signs.

간판 및 사인

617.470.1083
e-mail choisigns@yahoo.com

한인 업소록

Korean Business Directory

한인들과 함께 하는 좋은 신문

보스톤 코리아

BOSTONKOREA.com

현재 한인업소록의 각종 전화번호를 업데이트 하고 있습니다. 혹 누락된 번호가 있으면 617-254-4654나 bostonkorean@hotmail.com으로 바로 연락 주십시오. 즉각 반영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접 주요 전화

가정폭력상담소(Ex. 33)	617-338-2352
건인	800-632-8075
고등교육위원회	617-727-7785
고등교육정보센터	800-442-1171
공중위생국	617-624-6000
구세군	617-536-7469
국세청	800-829-1040
남새의	617-976-6200
로간국제공항	800-235-6426
미아찾기	888-477-6721
백배지역	617-345-7958
보스턴공립학교	617-635-9000
보스턴수도	617-989-7000
보스턴시청	617-635-4500
보스턴총영사관	617-641-2830
사우스역	617-345-7958
사회보장국	800-772-1213
성폭행	781-237-9110
성폭행	617-492-8300
시간문의	617-637-123
아동보호	617-748-2000
아동학대	800-792-5200
알코올/마약	617-445-1500
여성학대	617-248-0922
온전연허	617-351-4500
텔레버	617-348-8500
자원봉사	800-522-8086
적십자	800-564-1234
전화신청 (Verizon)	800-941-9900
전화교정신청 (Verizon)	617-555-1515
텍스	617-343-4475
AAA	800-222-4357
FBI	617-741-5533
MBTA	800-392-6100
NSTAR가스	800-572-9300
NSTAR 전기	800-592-2000
RCN케이블TV/전화	800-746-4726

한인회

뉴잉글랜드 한인회	781-933-8822
뉴햄프셔 한인회	603-767-1356
로드아일랜드 한인회	401-368-0467
메인 한인회	207-756-0092
버몬트 한인회	802-734-2521

주요 단체

국제철학자협회	978-407-7554
국제결혼가정선교연합회	603-889-8201
뉴잉글랜드골프협회	617-438-9763
뉴잉글랜드공군주회	978-902-8305
NE교육자협회	978-394-3060
뉴잉글랜드문인협회	978-688-3137
뉴잉글랜드선악회	774-270-1948
뉴잉글랜드시인협회	508-962-2689
뉴잉글랜드교회협의회	978-394-3060
뉴잉글랜드해변대전우회	617-833-1360
대사추진위원회	603-894-5425
민주평통보통협의회	413-535-0916
보스톤 대한체육회	617-326-9009
보스톤선악회	978-569-3256
보스톤한미노인회	978-994-5490
재미과학기술자협회	857-998-7043
재향군인회	339-298-7187
세무인협회	508-826-5270
이복도도인연합회	978-514-3399
한인학교연합회	781-424-5269
FA한인경제인협회	401-481-4900
한국언어이동회(메인)	207-878-5652
6.25참전유공자회	978-725-9597
보스톤 한미예술협회	781-367-5993

동창향우동호회

건국대학교동창회	401-738-8735
경기고등학교동창회	508-995-7242
경기여고동창회	781-861-0437
경복고등학교	617-921-8799
고려대학교 교우회	617-795-1779
뉴잉글랜드 선악회	774-270-1948
백산고등학교동창회	978-474-4780
보스톤 선악회	978-569-3256
보스톤한인사회관	617-789-4964
산사람	774-270-1948
서강대동문회	978-314-9620
서울고 동문회	617-792-2635
서울대학교동창회	978-821-9434
서울신학교동창회	
성균관대동창회	
영성중고등학교동창회	802-734-2521
이화여고동창회	508-541-6969
이화여고동창회	617-277-0730
이화여고동창회	978-390-1552
중앙대학교동창회	603-622-8883
강원대민회	617-875-1801
충청향우회	678-717-8800
한양대동문회	781-708-3160

언론

보스톤코리아	617-254-4654
한인회보	781-933-8822
중앙일보(뉴욕)	718-361-7700
한국일보(뉴욕)	718-482-1111
Grapevine Times	781-548-9945

종교

가톨릭	
구세군 물든교회	617-792-8780
그린랜드 연합감리교회	603-430-2929
글로벌 미션 보스톤교회	617-913-3074
나사렛사립교회	781-439-1840
뉴잉글랜드감리교회	617-969-0507

뉴튼 아름다운 교회	617-869-8159
갈보리교회	413-789-9888
구세군물든교회	617-792-8780
그레시언연합감리교회	203-459-8517
그리니치한인교회	203-861-1134
그린랜드연합감리교회	603-430-2929
나사렛사립교회	781-439-1840
내수아한인교회	603-888-8040
뉴잉글랜드감리교회	617-969-0507
뉴잉글랜드한미교회	413-567-9142
뉴튼 아름다운 교회	617-869-8159
뉴햄프셔감리교회	617-990-7619
뉴햄프셔장로교회	603-437-5134
뉴햄프셔한인교회	603-264-6799
라이코스교회	978-387-1115
라이스한인침례교회	508-926-8236
로드아일랜드장로교회	401-353-0983
로드아일랜드제일교회	401-944-0520
대생명의길장로교회	401-821-2311
메리 맥 교회	978-806-1363
목양교회	617-223-1690
무지개교회	207-774-1617
밀알한인교회	978-244-0691
렉싱턴 풍성한교회	617-953-0856
버클랜드 침례교회	617-864-5948
보스턴 국제교회	617-459-6479
보스턴 감리교회	781-393-0004
보스턴 사랑교회	978-869-2596
보스턴 사랑제일교회	978-844-2404
보스턴 산성교회	617-997-6165
보스턴 새생명교회	617-947-6765
보스턴 새생명교회	978-777-1800
보스턴 생명의 교회	978-578-6987
보스턴서부장로교회	781-894-3958
보스턴 성결교회	781-275-8233
보스턴 성령교회	781-396-1004
보스턴 소망교회	
보스톤시온성교회	978-758-4541
보스톤안식일교회	781-279-3270
보스톤 온누리교회	781-933-7044
보스톤웨슬리장로교회	781-393-0004
보스톤 장로교회	508-435-4579
보스톤 제일교회	617-458-2733
보스톤 주의교회	617-966-9608
보스톤 중앙교회	617-230-5004
보스톤필그림교회	857-636-9985
보스톤 한인교회	617-739-2663
보스톤 한우리교회	978-454-0454
보스톤한인연합교회	617-923-9581
북부보스톤감리교회	978-470-0621
비전교회	617-308-2391
새빛교회	781-652-0001
새우살교회	774-249-0022
선한목자장로교회	904-400-9386
성요한 교회	781-861-7799
순복음 보스톤교회	617-413-5372
스프링필드한인장로교회	413-789-4522
스프링필드제일교회	413-781-2477
시온감리교회	401-739-8439
아름다운교회	617-869-8159
안디옥 교회	978-534-3394
열방교회	617-620-3352
에이여 베델교회	978-274-2369
엘리스 한인장로교회	413-549-6495
엘리스 시온교회	413-549-9200
우시 교교회	508-799-4488
웨스트프린티어 교회	918-876-2815
임마누엘 연합교회	978-394-3060
자연교회	603-437-6151
존영교회	978-930-6613
지구촌방주교회	434-382-9450
케임브리지한인교회	617-491-1474
케임브리지연합장로교회	781-861-3877
하바드 한인교회	617-770-2755
617-441-5211	

꽃

미스티화원	617-666-3116
데코플라워	617-875-0648
앤드슨꽃집	781-894-1843

금융/투자

인덱펀드(투영목)	617-777-2929
에이지 리	781-591-2722
이중스파이낸스	617-799-6158

방송/에어컨/히팅

JK 플러밍	978-303-7000
Nirvana Air	508-473-3429

노래방

도레미노래방	617-783-8900
진 노래방	617-782-9282

도서관

뉴햄프셔한인도서관	603-644-1991
보스톤공립도서관	617-539-5400

당구장

울스트링당구장	617-782-0969
---------	--------------

동물병원

김문소 동물병원	978-851-3626
윤상재 동물병원	978-343-3049
제임스길 동물병원	978-658-5282

떡/진차/반찬

형제떡집	978-975-3303
장음식주문	781-648-0584
한아름	617-547-8723

미용실

가위소리	617-782-8111
그레이스킨케어	978-468-0039
그레이스키닝클럽	617-331-1011
던요 헤어살롱	617-206-4560
뷰티룩 헤어살롱	857-284-3879
세리 미용실	781-676-7374
압구정동얼굴방	617-437-0378
웨스트민헤어	508-734-0446
안디옥 교회	978-534-3394
티케이헤어디자인	781-788-7675
프로페셔널헤어디자인	978-772-7886
헤어 스크린	617-777-1735
헤어 센스	617-183-1220
헤어 Collage	617-354-4660
미용실 코리아LEE	617-913-3559
AYER BEAUTY SALON	978-772-6555
최지혜헤어스타일	617-818-5596

돌상 대여

해피돌상	617-583-2339
------	--------------

방송국

엔티비보스톤사영국	617-650-6656
한국디지털위성	617-567-1346

변호사

김공식특허변호사/변리사	617-239-0839
김성국 변호사	781-438-6170
김성희 변호사	617-884-0002
김연진변호사	617-742-7707
김공식특허변호사/변리사	617-239-0839
김성국 변호사	781-438-6170
김성희 변호사	617-884-0002
김연진변호사	617-742-7707
박현중변호사	978-474-8880
성기주변호사	617-504-0609
스티브서 변호사(미인법)	203-852-9800
워드랜드/엑커맨변호사	203-324-6155
장우석 변호사	781-712-1706
정선진변호사	617-230-0005
피터변호사	647-960-0171
JOHN DOWNEY 법률사무소	647-960-5809
STEVEN S. KIM 변호사	617-879-9979
Joy Lee 변호사	617-624-0292
Young Lee Danesh	617-367-4949

병원

가정의	
그레이스 길 가정의	978-475-5656
내과	
송민근	617-696-7600
허버드광학(0재용)	617-421-2282
한서동내과	401-722-0305
신부인과	
최의웅신부인과	401-726-0600
이윤노신부인과	508-427-3000
소아과	
장경이 소아과	978-687-2119
심리상담	

남궁연골프교실	978-474-4780
ABC골프	603-401-7990
최현주 골프 레슨	339-223-4700

공인 회계사

김양일 회계사	617-901-0707
김창근 세무사	781-935-4620
노성일공인회계사	781-863-2232
이현주 회계사	781-944-2442
이명원 회계사	617-455-8073
정진수회계사	508-584-5860
한미회계사	617-792-2355
한성애회계사	617-283-7151

꽃

미스티화원	617-666-3116
데코플라워	617-875-0648
앤드슨꽃집	781-894-1843

금융/투자

인덱펀드(투영목)	617-777-2929
에이지 리	781-591-2722
이중스파이낸스	617-799-6158

방송/에어컨/히팅

JK 플러밍	978-303-7000
Nirvana Air	508-473-3429

노래방

도레미노래방	617-783-8900
진 노래방	617-782-9282

도서관

뉴햄프셔한인도서관	603-644-1991
보스톤공립도서관	617-539-5400

당구장

울스트링당구장	617-782-0969
---------	--------------

동물병원

김문소 동물병원	978-851-3626
윤상재 동물병원	978-343-3049

▶광고 마감: 매주 화요일 오후 5시(신문)▶수표 보내주소: Payable to: The Boston Korea 161 Harvard Ave, Suite 13 Allston, MA 02134

사업의 시작은 이경해 부동산

Tel 800.867.9000
Cell 508.962.2689
email: kayleebrokers@aol.com
www.leebrokers.biz

알뜰 나눔터 안내

보스톤코리아는 2013년 5월 1일부터 새로운 알림광고 요금정책을 적용합니다. 보스톤 코리아 네이션 와이드 광고를 선택하시면 LA, 애틀란타, 뉴욕, 시카고, 애틀란타, 달라스, 시애틀 및 보스톤까지 총 미주 8개 지역의 오프라인 신문을 통해 광고를 동시에 내보내도록 합니다. 네이션 와이드의 광고는 총 5줄까지 가능하며 한 달 광고료는 \$50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N**은 보스톤 지역 외 네이션 와이드 광고임을 알려 드립니다. 만약 보스톤 지역 광고만을 원하실 경우 한 달에 \$30입니다. 결제는 그레딧카드로 하실 수 있으며 개인수표 또는 머니 오더 등을 보내주셔도 됩니다. 신문 광고 마감은 매주 화요일 오후 5시입니다. 보스톤코리아닷컴 광고는 신청 당일 업데이트 가능합니다.

구인

광고 문의 617-254-4654

MANAGER/SUPERVISOR AT DRY CLEANING FACILITY

Direct day-to-day assembly, delivery, and shipping department at a dry cleaning facility. Coordinate with Cleaning Department. LOCATION Brockton Mass. EXPERIENCE in Dry Cleaning business, good English, and references required. SALARY: Start \$13/hour for first 90 days, Negotiable, afterward based on demonstrated abilities. TO APPLY Fax application and resume to (888) 790-4171.

4989 부동산매매는 —————
뉴스나부동산
617-969-사구팔구
www.newstarrealty.com

벨몬트지역 세탁소, 풀타임으로 카운터에서 일하실 분 구합니다.
T. 617-309-6140

레드망고에서 매니저 구합니다.
(영어가능자)
T. 617-997-5698

Burlington mall, South Shore mall 헤어 약세사리카트, 함께 일하실 분.
T. 312-350-0159

Granby 지역에 있는 보딩스쿨 관리형 유학 담당 직원 모집
Email: cis_ryan@chungdahm.com

Looking Korean interpreter

Looking for an experienced certified Korean interpreter. Certification should be from a qualified program, would prefer experience but will consider new certificate holder. Must be able to interpret in a variety of community settings. As an independent contractor you can set your own hours and earn an above average hourly wage. Please send your resume to susan_kelliher@ccab.org or call 617-464-8122. Immediate openings.

사고 팔고

광고 문의 617-254-4654

Boston HTPC

데스크탑, 랩탑PC 수리
맥북, 아이맥 수리 및 윈도우설치
각종 데이터 복구 및 백업
인터넷 연결 및 공유기 설치
TEL 617-645-8885

드라이클리닝 셔츠 홀세일합니다.
픽업 & 딜리버리 (딜리버리만 구함)
T. 978-766-6831

룸렌트 및 매매

광고 문의 617-254-4654

식당 또는 카페 비즈니스 구매합니다.
보스톤지역, 오너분 직접 연락 환영.
T. 617-653-2366

534 Commonwealth Ave-럭셔리 2베드 2베스 \$3000 8/1일 입주 또는 \$3250 9/1일 입주
T. 781-733-9294

636 Beacon Street - 럭셔리 2베드 1베스 \$3055 8/1일 입주
T. 781-733-9294

N[매매] 가게 - 1
그린빌 사우스 케롤라이나에 위치한 2개의 핸드폰 가게를 매매 합니다.
가게 1 \$49,000(인벤토리 포함)
Multi carrier (pageplus,tmobile,gosmart,h2o)에 boost 딜러쉽 있습니다.
트레이닝 가능.
매상 월 \$14000, 순수익 월 \$3000
렌트 월 \$1000
T. 864-505-5784 (Kim)

N[매매] 가게 - 2
가게 2, \$49,000(인벤토리 포함)
Multi carrier (pageplus,tmobile,gosmart,h2o) 에 Boost 딜러쉽 있습니다.
매상 월 \$13000, 순수익 월 \$3000
렌트 월 \$500
새주인에게 verizon,Sprint,metro,cricket의 LTE 전화기를 pageplus 로 플래싱 하는 기술도 같이 전수해 드립니다.
T. 864-505-5784 (Kim)

N[매매]
뷰티서플라이 매매.
한곳에서 10년 넘게 영업 하였고 리타이어 하기 위하여 급매 하고자 합니다
면적 3,000sf, 연매상 \$500,000, 매매가 \$250,000
위치:테네시 멤피스 Neighbor Food 월마트,뷰티살롱및 이발소가 많은곳에 위치함.
T. 901-267-2991

N[구인]
도라빌 지역 보험회사 여직원 구함
자격요건 : 영어, 한국어 가능하신 분.
시간 : 9am-5pm Mon-Fri
T. 770-458-9001

N[구인]
우리들척추신경원에서 여직원을 구합니다. 오랫동안 일을 같이 하실분을 찾고 있습니다.
이메일로 resume를 보내주세요.
Accidentrecoverycenter5460@gmail.com

N[구인]
돌루스에 위치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오래 함께 일하실 여직원을 찾습니다. 한국어와 영어에 능통하고 취업에 결격사유가 없으신 분은 이력서를 eun@eparklaw.com 로 보내주시면 연락 드리겠습니다.

서울설령탕 SEOUL SOULONGTANG

SUMMER SPECIAL 냉면개시!

서울 SEOUL KOREAN - SUSHI - WINES

한식 세계화의 종가집이 되겠습니다.

서울설령탕 in Allston
1245 Commonwealth Ave, Allston
617.505.6771
SeoulBeefSoup.com

서울 on Beacon Hill
156 Cambridge St, Boston
617.973.6680
SeoulFoodBoston.com

백현, 태연과 열애설 후 첫 심경글 '결국 삭제'

(서울=뉴스1스포츠) 장아름 인턴기자 = 백현이 심경 고백글을 남겼다가 돌연 삭제했다

그림 엑소 백현은 17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안녕하세요. 백현입니다"라는 말로 시작하는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

백현은 이어 "많이 늦었지만 팬 여러분들께

였다.

또 그는 "항상 소중한 팬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파게 해서 정말 죄송하다. 더 이상 저희 팬 분들이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정말 많이 부족하지만 팬 여러분께 천천히, 열심히 다가갈 것이다"면서 "엑소는 저에게도 너무나 소중한 이름이다. 결코 엑소를 가볍게 표현한 적이 없었

다는 말씀만은 꼭 드리고 싶다. 앞으로 무대 위에서나 밖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엑소 백현이 되겠다"고 마무리 지었다.

백현 사과 글에 누리꾼들은 "백현, 그런데 글 왜 다시 지웠지", "백현 사과문에 진심이 느껴지는데 올리고 후회한건가?", "백현 글에 진심이 물어난다", "백현 그간 마음 고생 심했나보다", "백현 팬들을 더욱 소중하게 생각하는 계기가 되시길", "백현 이번 기회를 발판으로 더욱

성장하는 가수가 되시길", "백현, 연애도 너무 눈치보며 하는 것 아닌가" 등 반응을 보였다.

한편 지난 달 백현과 태연의 소속사 SM 엔터테인먼트는 친한 선후배 사이로 지내다 최근 들어 호감을 갖기 시작한 단계라며 두 사람의 열애를 인정했다.

aluem_chang@news1.kr



실망과 상처를 드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 글을 남긴다. 변명만 늘어 놓는 것 같아 여러번 글을 쓰고 지우기를 반복했다"며 "마음을 전하고 오해를 풀 용기가 안나기도 했다. 이제 와서 그런 말들이 무의미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 이 글로 인해 또 마음 상하시진 않을까 걱정된다. 하지만 진심은 꼭 전하고 싶다"고 덧붙



박명수 '명수네 떡볶이' 음원 차트 1위 휩쓸어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개그맨 겸 가수 박명수의 신곡 '명수네 떡볶이'가 음원 차트 1위를 휩쓸며 음원 시장에서 높은 인기를 끌고 있다.

17일 발표된 박명수의 '명수네 떡볶이'는 이날 오전 멜론, 엠넷닷컴, 소리바다, 올레뮤직, 몽키 3등 여러 음원 사이트의 실시간 차트에서 1위를 기록했다. 다른 차트에서도 최상위권에 올라 1위를 놓고 경쟁하고 있다.

박명수가 직접 작사·작곡한 '일렉트로 스윙'

장르의 이 노래는 가수 김예림과 신예 프로듀서 유엘(UL)이 피쳐링에 참여했다. 분식집을 소재로 삼은 재미있는 가사와 신나는 리듬이 특징이다.

특히 '맵고 달콤한 여기 명수네 떡볶이', '속이 짝한 김말이 바삭바삭 오징어 튀김', '떡볶이 떡볶이 어묵 어묵' 등 유쾌하고 식욕을 자극하는 가사가 눈길을 끌었다.

hapyry@yna.co.kr

미스코리아 진 김서연, 역대급 미모에 황금비율...

"장래희망은 앵커"

(서울=뉴스1) 온라인팀 = 2014 미스코리아 진에 서울 진 김서연이 당선됐다.

15일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홀에서 열린 2014 미스코리아 대회에서 김서연(서울 진)이 진으로 뽑혔다.

김서연은 키 172.8cm, 몸무게 52.4kg에 33-24-35의 신체사이즈를 가졌다. 1992년생인 그는 현재 이화여자대학교에서 경영학을 전공 중이며 장래 희망은 뉴스 앵커로 알려졌다.

이날 김서연은 "머리 위 왕관의 무게가 느껴진다. 어제 너무 피곤해서 꿈을 꾸지 못하고 2~3시간 정도 잔 것 같다"며 "이 자리는 내 노력만으로 이룬 자리가 아니다. 응원해 준 가족과 친구들에게 고맙다.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날 2014 미스코리아 선에는 신수민(경북 진.20)과 이서빈(경기 미.21) 2명이 뽑혔다. 미에는 류소라(경남 선.20), 백지현(대구 미.21), 이사라(USA 미.23), 김명선(전북 미.21)이 선정됐다.

미스코리아 진 김서연 당선 소식에 누리꾼들은 "미스코리아 진 김서연, 진짜 역대급 미모인듯", "미스코리아 진 김서연, 축하드려요", "미스코리아 진 김서연, 정말 예뻐 부럽다", "미스코리아 진 김서연, 비주얼 최고인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신정환 '사기' 피소 "방송 출연시켜 준다"며 1억 청구

(서울=뉴스1) 온라인팀 = 방송인 신정환(39)이 연예계 진출을 돕겠다며 연예인 지망생의 부모로부터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고소당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16일 "연예인 지망생 김모 씨(27)의 부모가 지난달 19일 신정환 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신정환 씨는 김 씨의 어머니에게 "아들이 방송에 나올 수 있도록 해주겠다"면서 두 차례에 걸쳐 총 1억 원을 받았다.

그러나 신정환 씨가 2011년 해외에서 역대 상습도박을 한 혐의로 구속되면서 김 씨의 연예계 진출도 힘들어졌다. 신정환 씨는 2011년 12월 성

탄절 사면으로 가석방됐지만 이후에도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김 씨의 부모는 아들의 연예계 진출이 좌절되고 돈까지 돌려받지 못하자 결국



신정환 씨를 고소했다. 신정환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신정환이 이렇게 혹 잘이야", "신정환 사람들이 좋아해 주면 왜 나쁜 길로 빠지냐", "신정환이 언제 사람되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주간



시청률 순위

2014년 7월 7일 ~ 7월 13일

한주간 흥행 차트 순위 10

- 01 눈, 코, 입 태양
- 02 한 여름밤의 꿈 San E
- 03 이제 그만 싸우자 허각, 정인지
- 04 하늘색 약속 god
- 05 우산 윤하
- 06 오늘부터 1일 케이윌
- 07 Red Light f(x)
- 08 단발머리 AOA
- 09 사람냄새 정인, 개리
- 10 우리가 사는 이야기 god



1위
KBS2 주말연속극
참 좋은 시절
24.8%



2위 MBC 주말드라마 왔다! 장보리 19.4%



3위 KBS1 일일연속극 고양이는 있다 19.0%

- 4 KBS1 KBS9시뉴스 16.7%
- 5 SBS 아침연속극(나만의당신) 15.8%
- 6 KBS2 개그콘서트 15.2%
- 7 KBS2 일일드라마(빠꾸기동지) 13.5%
- 8 KBS1 정글의법칙(인도양) 13.2%
- 9 KBS1 전국노래자랑 12.8%
- 10 KBS2 TV소설(순금의땅) 12.7%

* 한국 TV KBS, MBC, SBS를 월 \$24.99에 볼 수 있는 안TV (617-955-9112) 지금 신청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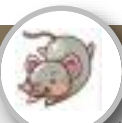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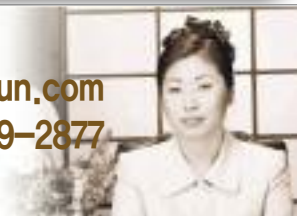
숫자 퍼즐 (Sudoku)

		3	1						
		1	9					7	
5				3	7			1	
4	2	7		6					
		1		4	2	3		6	
				7			4	2	8
	4			2	9				3
7						5	8		
						4	2		

7월 20일 - 7월 26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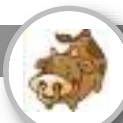
재미로 보는 주간 운세 지문 철학원

www.askjiyun.com
213-739-28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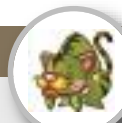
쥐띠 | 보다 깊은 배려를

● 운수: 좋은 말을 마음에 간직하지 못하고 흘려버리기 쉬운 시기입니다. 주위의 조언을 새겨들어서 하고자 하는 일에 밀거름을 만들도록 하세요. ● 금전: 계획한 일은 늦게 이루어지겠습니다. 여러 사람과 상의하여 일을 처리해야 뒷말이 없을 것입니다. ● 애정: 사랑은 표현함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배우자에게 보다 깊은 배려를 아끼지 않도록 하세요. 84, 72, 60, 48, 36년생은 20, 24일 길일. 22, 25일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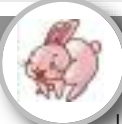
소띠 | 여유롭게 대처해야

● 운수: 조바심을 내지 않도록 하세요. 마음이 성급하면 기회를 놓칠 수 있으니 여유롭게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 금전: 작은 손실에 연연하다가 더 큰 것을 놓칠 수 있습니다. 대범하게 생각하고 과감하게 결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 애정: 너그러움으로 상대의 잘못을 받아줄 때입니다. 서로간의 애정이 더욱 돈독해질 것입니다. 85, 73, 61, 49, 37년생은 21, 25일 길일. 23, 26일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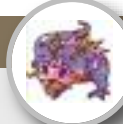
범띠 | 행복한 한 때를 보내게 되는

● 운수: 무모하게 정면대결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때로는 돌아서 가는 것이 결국에 가서는 더 빠른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 금전: 현실을 직시하도록 하세요. 조건이 맞지 않을 때는 좀 더 시기를 기다리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 애정: 아쉬운 마음을 뒤로한 채 헤어진 사람과 또다시 만나 행복한 한 때를 보내게 되는 주입니다. 86, 74, 62, 50, 38년생은 22, 26일 길일. 21, 24일 주의.



토끼띠 | 좋은 성과를 얻을

● 운수: 작은 복은 자신이 만들고 큰 복은 하늘이 준다고 합니다. 열심히 한 가지 일에 몰두하면 좋은 성과를 얻을 것입니다. ● 금전: 경제적으로 호전되는 운입니다. 바쁜 만큼이나 짙은 수입이 따라주는 주입니다. ● 애정: 사랑의 파동이 급상승하는 중입니다. 마음에 두고 있는 상대가 있다면 이 기회를 이용해서 말을 걸어보세요. 87, 75, 63, 51, 39, 27년생은 23, 26일 길일. 22, 25일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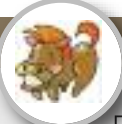
용띠 | 차분하게 때를 기다리며

● 운수: 지나친 욕심으로 무리한 변화나 확장은 시기상조이니 차분하게 때를 기다리며 능력을 키워가야 합니다. ● 금전: 먼저 자금상태를 꼼꼼히 체크해 보세요. 쇼핑이나 여행 계획을 세워두었다라도 미루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 애정: 사소한 문제로 부부가 다툴 수 있습니다. 한발 양보하여 가정의 평화를 깨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88, 76, 64, 52, 40, 28년생은 24, 25일 길일. 22, 26일 주의.



뱀띠 | 기분이 최상인

● 운수: 누군가의 인정을 받으니 기분이 최상입니다. 주어진 환경에서 숨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주입니다. ● 금전: 새도 가지를 가려서 않는다고 합니다. 계획이나 선택을 잘해야 그에 따른 이익도 클 것입니다. ● 애정: 독신자는 남은 삶을 같이할 배필을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시기입니다. 소신껏 밀고 나가면 좋은 결과가 옵니다. 89, 77, 65, 53, 41, 29년생은 22, 25일 길일. 24, 26일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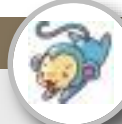
말띠 | 따뜻한 사랑이 넘치는

● 운수: 가까운 사람과 상의하고 많은 사람에게 조언을 구한다면 쉽게 일을 매듭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 금전: 눈높이를 낮춰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세요. 적으면 적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만족해야 하는 주입니다. ● 애정: 따뜻한 사랑이 넘치는 주입니다. 연인에게 사랑 고백은 자신이 먼저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90, 78, 66, 54, 42, 30년생은 23, 26일 길일. 22, 24일 주의.



양띠 | 주머니 단속을 철저히

● 운수: 자영업자나 사업가는 주위 사람들에게 신용을 얻는 일이 중요합니다. 독단을 버리고 협력적인 체제를 취하도록 하세요. ● 금전: 들어오는 수입에 비해서 지출이 많은 때입니다. 주머니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세요. ● 애정: 자기 눈으로 자기 눈 못 보듯이 자신의 결함을 잘 알지도 못하고 스스로 찾아내기도 어렵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91, 79, 67, 55, 43, 31년생은 21, 22일 길일. 20, 26일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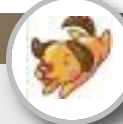
원숭이띠 | 시일을 늦추는 것이

● 운수: 이런저런 사람의 말을 듣다보면 혼선만 생깁니다. 자기 소신껏 밀고 나가는 것이 현명한 때입니다. ● 금전: 지금은 일을 추진하기에 적기는 아닙니다. 매체는 어려움이 따르겠으니 시일을 늦추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애정: 지금까지 무작정 끌려가던 상대에게 무관심한 태도를 보여 보세요. 그러면 도리어 상대의 관심과 애정을 얻게 될 것입니다. 92, 80, 68, 56, 44, 32년생은 20, 25일 길일. 21, 24일 주의.



닭띠 | 서로에 대한 감정이 싹트는

● 운수: 느긋한 자세가 뜻하지 않게 작은 행운을 부를 수 있습니다. 신경을 쓸 일이 많아지겠지만 조금해하지는 마세요. ● 금전: 자기 주관 없이 남의 생각이나 행동을 덩달아 따라가면 손해를 볼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 애정: 어느덧 서로에 대한 감정이 싹트는 주입니다. 헤어질 때 돌아서려는 발걸음이 무겁고 아쉽지만 서로 내색하지는 못하고 있군요. 93, 81, 69, 57, 45, 33년생은 20, 21일 길일. 22, 26일 주의.



개띠 |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게 되는

● 운수: 의욕적으로 일을 추진한 것에 비해서 결과가 좋지 않아서 허탈한 상태에 빠지기 쉽습니다. 특히 건강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 금전: 자신의 분수에 맞지 않는 사업을 진행시키거나 욕심이 너무 지나쳐서 확장을 한다던 금전적인 손실이 클 수 있습니다. ● 애정: 아무런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는 사랑도 이 시기에는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94, 82, 70, 58, 46, 34년생은 22, 26일 길일. 20, 23일 주의.



돼지띠 | 모든 것을 함께 나누는

● 운수: 한가지로 열 가지를 알게 됩니다. 머리가 맑아 판단도 잘되는 시기이니 기대한 만큼 보람이 있겠습니다. ● 금전: 예상외의 수입이 따라줄 것입니다. 나갔던 돈이나 그동안 받지 못해서 고심하던 돈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 애정: 부부의 화목을 다짐하게 되는 시기입니다. 마음을 터놓고 모든 것을 함께 나누는 한 주를 보내주세요. 95, 83, 71, 59, 47, 35년생은 23, 26일 길일. 21, 24일 주의.

이동준 “연예인 싸움꾼 순위 1위가 박남현? 내가 1위”

(서울=뉴스1스포츠)안하나 기자= 태권도 국가대표 출신 배우 이동준이 연예인 싸움꾼 순위 1위가 박남현이 아닌 자신이라고 강조했다.

16일 방송된 MBC ‘황금어장-라디오스타’ (이하 ‘라디오스타’)에는 ‘전설의 주먹’ 특집으로 배우 이동준 이재윤, 요리연구가 레이먼킴, 래퍼 스윙스가 출연해 화려한 입담을 펼쳤다.

이날 이동준은 제작진이 준비한 연예계 싸움 순위 차트를 본 후 “연예인 싸움 순위에 불만이 많다” 고 말했다. 제작진이 준비한 연예계 싸움 순위 1위는 박남현, 2위는 강호동, 3위는 나한일, 4위는 이동준, 5위는 홍기훈 등이었다.

이동준은 박남현이 1위라는 점에 의문점을 품으며 “내가 당연히 1위여야 하는데 4위에 있더라” 고 불만을 제기했다. 이어 이동준은 “2위는 덩치 값은 해야 하니까 강호동으로 올려주고, 3위는 좀 높았던 홍기훈, 4위는 최재성, 5위는 이훈, 6위는 박남현이다” 라며 연예인 싸움 순위를 다시 정리했다.

또한 “예전에 이종격투기로 데뷔하려고 했다” 는 이동준의 말에 MC들이 이종격투기 선수 추성훈을 언급하며 “이길 수 있었을 것 같냐” 고 물었다. 이에 이동준은 “그때 내가 이종격투기를 했더라면 체급이 다르니까, 추성훈에게 밀리지 않을 것” 이라며 자신감을 보였다.

한편 이동준은 80년대 국가대표 태권도 선수로 세계 선수권 대회를 3회나 제패한 바 있다



명량, 최민식 눈부신 투혼 '눈길'

(서울=뉴스1스포츠)김지에 인턴기자 = 배급사 CJ엔터테인먼트는 17일 '명량'의 제작기 영상을 최초로 공개했다.

영상은 '명량'을 연출한 김한민 감독과 배우 최민식의 진솔한 이야기와 함께, 본격적인 촬영이 시작되기 전 고증 단계에서부터 심혈을 기울인 제작진들의 감회가 담겨있다.

김한민 감독은 "어떻게 12척의 배로 330척이라는 대규모의 왜군을 물리칠 수 있었을까, 궁금중에서부터 시작된 작품이다"고 밝혔다. 이어 최민식은 "도대체 무엇이 이순신 장군에게 이러한 신념과 추진력을 갖게 했는가에 대한 호기심이 있었다. 굉장히 부담됐지만 한번쯤 꼭 표현해보고 싶어지는, 이순신 장군의 역할은 왠지 운명처럼 느껴졌다"고 털어놨다.

또 임진왜란 당시의 모습을 스크린에 구현하기 위해 모인 스태프들의 모습도 담겼다. 영화의 리얼리티를 더할 판옥선 제작을 위해 전국을 돌아다니는 모습, 규격화 된 갑옷과 달리 각자의 가문에 맞게 만들어지는 왜군 갑옷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 일본에서 이를 공수하는 노력도 다하지 않아 눈길을 모은다.

명량의 제작기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명량 빨리 보고 싶다", "명량 개봉 언제하지?", "명량 기대된다", "명량 제작기 영상만 봐도 떨린다", "명량 스케일이 대박이다", "명량 제작기 영상만 봐도 기대감 최고조" 등 반응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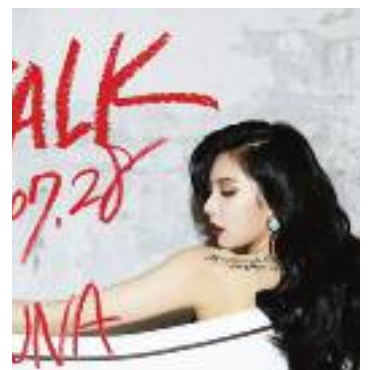


한편 '명량'은 1597년 임진왜란 6년, 단 12척 배로 330척에 달하는 왜군의 공격에 맞서 싸운 명량대첩을 스크린 위에 옮긴 작품이다. 영화 '최종병기 활' 김한민 감독의 차기작이자 배우 최민식, 류승룡 두 배우의 출연 소식만으로도 팬들의 기대감을 한 몸에 받고 있다. 한국에서는 오는 30일 개봉하며 미국에서도 조만간 개봉 예정이다.

솔로 컴백 현아 '감출 수 없는 도발적 섹시미'

(서울=뉴스1스포츠) 박건욱 기자 = 현아가 솔로 앨범 'A TALK'의 티저 이미지를 공개했다. 현아는 16일 오전 큐브엔터테인먼트의 공식 SNS를 통해 새 앨범 'A TALK'의 티저 이미지를 최초로 공개, 컴백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사진 속 현아는 욕조 속에서 얼굴을 가린 채 각선미를 과시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특히 도발적인 이미지를 통해 남성 팬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있다. 한편 현아는 오는 28일 각종 온라인 음원사이트를 통해 솔로 3집 앨범 'A TALK'의 음원을 공개한다.



천지보살

운명
사주
궁합
신점

전화예약 617-947-6799

전화로도 상담해드립니다

“광고는 영화다”
동영상 광고 전문제작 유튜브 / TV / 모바일

Nabis Studio
6177565744
ozic@hotmail.com
175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이벤트사진, 여론사진, 그래픽디자인 서비스

김원태 건축사
Registered Architect (MA & NY) • NCARB • CDT • LEED AP
MA REALTOR® • MA Licensed Real Estate Salesperson

건축 & 시공

15년 이상의 전문적인 경험
매사추세츠와 뉴욕 건축사 전문 라이선스 보유
독일에서 성장하고 교육 받음
기획 · 설계 · 허가 · 시공 · 관리
각종 건물 신축 · 증축 · 개축
We can Design Build Buy Sell your home!
시작부터 마감까지 전문가가 도와드립니다
otk212@gmail.com 617.620.8242

〈김 씨의 뿌리 (4)〉

1) 문무왕 비문 (1)



김은한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역사문제연구소 연구위원



문무왕 비문. 경주 박물관에 소장

신라 제30대 문무왕은 삼국통일의 대업을 이루고 20만 당나라 군사를 한반도에서 축출한 임금이다. 비록 삼국통일의 대업은 완수했지만 우리 민족의 발원지, 광활한 만주별관을 상실한 회한을 후세에 남겨준 임금이기도 하다.

죽음에 즈음하여서는 사후에 왜구의 침입을 막아내겠다고 자신을 화장하여 바다에 무덤을 만들라는 유언을 남겼다. 지금 경상북도 경주 양북면 봉길리 감포 앞바다에 있는 대왕암이 그를 장사 지낸 해중릉이다.

그의 묘비는 사천왕사지에 세워졌는데(AD 682) 비문에 쓰여진 내용이 우리에게는 전혀 뜻밖이고 생소한 역사의 진실을 알려주고 있다. 비문은 부왕 태종무열왕(김춘추)과 자신의 치적, 백제 평정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 삼국을 통일한 임금으로 응당 기록되어야 할 사실들이다.

그 다음에는 우리의 눈을 끄는 의외의 사실이 적혀있다. 신라왕족 경주 김씨(신라 김씨)의 혈통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신라 왕족 경주 김씨의 뿌리는 북방 유목 민족 흉노의 왕자 1) 투후(柁候) 김일제(金日磾)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기로는 AD 65년에 태어난 김알지(金



경주 양북면 봉길리 감포 대왕암 해중릉

關智)가 신라 김씨의 시조로 알고 있었다. 문무왕 묘비는 김알지를 170년이나 뛰어넘어 흉노의 왕자 김일제(BC 134 - BC 86)에게 그 뿌리를 대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신라와 흉노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연결고리가 있지 않겠는가?

필자는 지난 4년동안 문무왕 묘비의 진실을 찾으려는 노력을 계속해오고 있다. 신라는 물론이고 같은 문화권인 가야의 문화, 유물, 유적, 언어에서 흉노의 흔적을 찾아보고 있다. 한국의 역사학자들은 대부분 관심 밖의 일이지만 필자는 4가지 사항이 동기가 되어 금번 역사 여행을 시작하게 되었다.

첫 번째 동기는 물론 흉노왕자 김일제가 신라 김씨(경주 김씨)의 시조라는 문무왕 묘비 기록이었다.

두번째 동기는 근래 한국 의학계에 불고 있는 민족의 뿌리 찾기 유전자 연구 과정에서 북방 유목민족인 몽골 사람들의 DNA염기 서열이 한국인과 비슷하다는 연구사실이었다. 중국인보다도 몽골인들이 한국인과 가깝다는 것이다.

얼마 전에 독일의 의사들이 수천년이 된 이집트 미이라의 40%이상의 결핵에 감염되었다는 사실을 유전자 연구로 알아냈다. 런던 대학은 2600년전에 사망한 미이라의 사망원인을 이처럼 밝혀내고 있다.



감속성 무위사에 있는 김일제 석상

유전자 연구는 종래에는 추정오로만 그치던 역사적 사실을 과학적으로 규명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주고 있는 것이다.

세번째 동기는 진수가 편찬한 삼국지 위지 동이전에 기록된 내용이다. 부끄러운 사실이지만 위지 동이전은 우리나라 고대사의 거의 모든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는 책이다. 마한과 진한, 변한의 언어가 달랐다는 기록이 있다.

우리가 알다시피 마한과 백제는 고조선, 부여, 고구려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언어가 다른 진한과 변한, 후일에 신라와 가야가 되는 그들은 마한과는 조상의 뿌리가 달랐다는 얘기가 된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

네번째로 위지 동이전에 진한 사람들이 농사를 지을 줄 몰라서 마한 사람들이 농사일을 도와주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당시 삼한시대 때는 생업이 딱 두 가지 뿐이었다. 농사와 유목 딱 두 가지다. 진한 사람들이 농사 지을 줄 몰랐다면 그들은 유목민이 틀림없다.

삼한 시대의 유목민족들은 스키타이, 흉노, 선비, 오환 네 종족이 있는데 오환은 저절로 소멸되었고 스키타이는 흑해

연안에 있던 국가라서 지리적으로 한반도에 접근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진한의 뿌리는 흉노나 선비 두 민족 중에 하나가 되거나 두 민족 모두 신라에 이주했을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김씨 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 자체도 처음부터 한반도에 생겨나서 지금까지 자손을 이어왔다고 믿을 사람은 없을 것이다. 언제부터인가 한반도로 들어와 함께 모여 살면서 오랫동안 문화와 풍속을 공유하다가 한민족이 된 것일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민족은 언제 어디에서 온 것일까?

한국에는 한민족의 뿌리를 찾는 바이칼 포럼이라는 연구모임이 있다. 학술원 회원인 이흥규 박사가 회장으로 역사학자, 유전공학자, 언어학자들이 함께 모여 연구 발표를 하고있다. 작년에 이분들의 모임에 참석해서 의견을 나눌 기회가 있었다.

이흥규 박사의 논문은 인류가 20만년 전에 아프리카에서 기원하고, 12만년 전 북쪽으로 이동한 아시아 유럽 원조들이 아시아와 유럽으로 헤어지게 된다. 아시아 원조 들은 4만년 전에 시베리아 바이칼 호에 도달하여 정착하는데 바이칼 호반에 온천이 많고 호수에서 온수가 분출되어 추위를 견뎌내기 적절한 환경을 바이칼 호가 제공했기 때문이었다고 한다. 이들은 추운 기후에 적응하기 위해 눈꺼풀이 두꺼워지고, 코가 납작 해지며 몸통이 뚱뚱한 체형으로 변모하게 되었다.

이들이 우리 선조들로 15,000년전 빙하해빙을 계기로 북중국, 만주 한반도 북아메리카로 이주하였다는 발표를 하였다. 그는 한국인 Y 염색체 염기 배열과 가장 가까운 민족이 바이칼 브리아트 족이라는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고 주장하였다. Y 염색체는 남자에서 남자로만 유전되기 때문에 Y 염색체를 추적하면 뿌리를 찾아낼 수 있다. 우리 민족의 뿌리는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호에 다시 김씨의 뿌리로 돌아갈 것이다.

주석

1) 투후(柁候):흉노왕자 김일제에게 내려진 벼슬 이름으로 제후에 해당하는데 자손들이 벼슬을 계승할 수 있었다. 지금 중국 산둥성 하택시 성무현이 한무제(漢武帝)가 하사한 투후의 영지였다. 이곳 주민들은 매년 김일제를 기리는 제사를 지내고 있다. 중국 정부는 이곳을 투성(柁城)이라고 부르지만 주민들은 금성(金城)이라고 부른다. 김일제 선조 흉노의 본거지는 지금 오르도스, 간쑤성 란저우인데 이곳의 옛이름 역시 금성현(金城縣)이었다. 신라의 수도 경주 역시 금성(金城)이라고 불렸다. 신라 김씨가 흉노왕자 김일제의 후손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아귀가 맞아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흉노인들은 왕이 거처하는 성을 금성이라고 불렀다.



한민족 뿌리찾기 바이칼 학회 모임을 마치고, 오른쪽에서 두번째, 필자 왼쪽이 회장, 이흥규 박사



백린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역사문제 연구소 연구위원)

일본의 침략정책과 조선총독의 고려대장경 간행 (3)

오대산 사고지의 답사에서는 사고지의 폐허로 별로 얻은 것이 없었다. 그러나 상원사에서 미나미총독때 인출한 고려대장경을 직접 보고 그 후 그것의 인출과 전래과정을 조사하면서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해방후 경성대학교 부속도서관의 사서관을 지낸 장지태선생의 말에 의하면 “미나미총독이 해인사의 고려대장경을 재인한 것은 중일전쟁(中日 戰爭)이 일어난 1938년경” 이라고 했다. 일본의 역사학자 중에는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을 일본의 침략전쟁이었다고 하는 학자가 많다. 그래서 이글의 제목을 그들의 말대로 “일본의 침략전쟁과 대장경의 간행” 이라고 한 것이다.

미나미총독이 고려대장경을 인출한 것은 불교신앙에서가 아닌 것 같다. 그런데 8만장의 방대한 대장경을 40여부나 재인하여 38본사에 한 부씩 배부하고 자기의 고향인 도야마현에도 한부 보내고 또 만주국의 부의황제에게도 한부 기증했다고 한다. 본국일본은 중일전쟁에 돌입하

여 국민총동원령을 내린 비상사국하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8만대장경을 재인하여 각 사찰에 배부한 목적이 무엇이나는 질문이 없을 수 없다. 정확히 말해 미나미 조선총독의 정치적 수단이었다. 무엇이었느냐는 것이다.

역사적인 사실은 진실하게 밝혀서술하여야 한다. 식민지 시대의 역사라고 해서 그 사실을 부정하거나 무시하면 오히려 상대방의 역사왜곡을 인정하고 미화하는데 도움을 주는 일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모르고 압박과 설움을 당하는 것은 미개해서이고 알면서 침략과 착취를 당하는 것은 국력이 미약해서이다.

제 7대조선총독 미나미지로는 일본의 침략전쟁인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중에 조선총독을 지낸 일본군의 대장이었다. 그는 일찍이 일본사관학교와 육군대학을 졸업하고 관동군 참모와 조선군 사령관 그리고 육군 대신을 지나 관동군 총사령관으로 있다가 1936년에 조선총독으로 왔다. 그래서 만주의 형편과 조선의 사정

을 잘 아는 자이다. 미나미 조선총독이 일본의 침략전쟁중 식민지 조선 통치를 어떻게 했는가를 밝히려는 것이 이글의 목적이다. 그와 관련해서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만주사변이다.

1931년 7월 2일 만주의 장춘(長春) 교외 만보산(萬寶山) 지역에서 조선 농민을 중국농민들이 집단적으로 습격하는 불상사가 발생했다. 다행히 많은 사상자는 나지 않았으나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이를 만보산 사건이라고 한다.

일본의 각신문들이 이 만보산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하여 조선사람이 중국인에 대한 적개심이 폭발했다. 조선 각처에서 중국상인을 습격하는 폭동이 일어났다. 보통학교 2학년 때인 것으로 기억된다. 상급생이 모두나가자고 하여 멋모르고 동림시장으로 달려나가 중국인 만두가게에서 만두를 꺼내 먹은 생각이 난다. 이 만보산 사건은 일본군부가 중국농부들을 선동하여 그 곳에 이민하여 농사를 짓고 사는 조선농부

를 습격하게 한 사건 이라는 것이다.

또 9월 18일 에는 봉천(심양)의 교외 유조호(柳條湖)에서 남만주 철도를 폭파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사건도 관동군 참모들이 만주를 점령하기 위해서 연출한 것인데 중국군이 한 사건이라고 하면서 전쟁을 도발했다. 그때는 중국사람이 만주에 있는 조선사람을 못 살게 학대하면서 여러 사람을 살해했다는 것만 알았지 만주사변에 대한 일본의 침략계획은 전혀 알지 못했다.

만보산 사건과 유조호 사건 이두 사건이 만주사변의 주요원인이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조선군사령관 하야시엔주로 대장은 관동군을 도와야 한다면서 독단적으로 조선군을 만주로 출동시켰다. 보통학교 때이다. 전교생이 동림역에 나가 화물차의 곡간에 실려가며 “텐니 나와리네 후기위우즈” 라는 군가를 부르면서 만주로 출동하는 일본군인들을 환송한 기억이 있다. 그런데 봉천주재 일본총영사 “하야시 규지로” 가 본국의 “신데하라” 외상에 보고하

기를 “유조호 사건은 관동군의 계획적 행동에 따른것입니다” 라고 통보하여 들통이 났다. 어쨌든 이 두사건은 일본이 만주사변을 일으키게된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것이다. 후에 밝혀진 사실이지만 그 모두가 일본군부에서 만주를 점령하기 위하여 계획한 연출이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관동군은 만주사변을 일으킨 이유를 제만 일본인의 보호와 일본의 이권(남만주철도이겠다)을 수호하기 위해서였다고 변명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정당한 이유가 아니다. 그보다도 일본은 1905년 노일전쟁후 남만주철도를 차지하면서 만주에 대한 야심을 키워 왔던 것이다. 관동군은 1931년 9월 18일의 유조호 사건을 구실로 즉시 봉천군의 군영인 북대영(北大營)을 포격 봉천을 점령하였다. 그리고 그해 12월에 만주군벌인 장학량의 가 정부가 있는 금주(錦州)를 폭격하여 점령했다.

(계속)



조봉섭 (Bongsup Cho)

로드아일랜드 약대 교수
401-874-5024 (Office)
401-874-5766 (FAX)
Email: bcho@uri.edu

앨라스카

앨라스카는 미국의 50주 중 하나이지만 본토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거의 다른 나라에 가는 것과 같다. “최후의 프론티어” 라는 속칭이 잘 어울리는 주이다. 재미나는 것은 앨라스카를 묘사할 때 로드아일랜드와 많이 비교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앨라스카는 미국에서 가장 큰 주인데 그 넓이가 가장 작은 로드아일랜드주의 429배이다. 하지만 인구 밀도로 보면 로드아일랜드가 705배나 더 높다.

앵커리지에 도착하던 날은 하루종일 해가지지 않는, 일년 중 낮이 가장 긴 날이었다. 호텔방 창문에 어둡고 짙은 커튼이 항상 닫혀져 있었는데, 과연 새벽 2-3시에 대낮 같이 밝았다. 하루종일 해를 받으니 당연히 이곳에서 자라는 꽃이나 야채들이 유달리 큰 것도 이해할만 한 일이었다. 한 주 정도 데날리(Denali)와 케나이(Kenai) 국립공원을 다녀왔다. 산악 클럽의 친구들이 80년도 초에 데날리에 있는 맥킨리(McKinley) 산을 등정하였고 또 나 나름대로 이 산에 대한 관심이 많아 대중은 알고는 있었지만, 직접보니 그 크기와 웅장함이 상상을 초월하였다. 데날리 공원 자체만도 매사추세츠 주보다 크고, 맥킨리 산의 바닥부터 정상만을 따지면 에베레스트보다 더 높다고 한다. 맥킨리 산을 제대로 둘러보려면 국립공원 안내소에 주차를 하고 한 시간 정도 90여 마일 거리에있는 Kantishna라는 오지의 옛 탄광 타운에까지 들어가야한다. 버스를 타고

가는 동안의 경치가 일품이었다. 곰을 비롯한 야생동물들도 볼 수 있었다. 개인은 차를 못가지고 들어가는데, 물론 안전을 위한 것도 있지만 환경보존의 목적이 크다. 여행을 많이 다녀 보았지만 이렇게 자연 관리에 신경을 많이 쓰는 국립공원은 또 처음이었던 것 같다. Kantishna 근처에 있는 툰드라 동산에서 본 맥킨리 산의 위용, 하늘을 꿰뚫는 듯한 웅장함은 참으로 인상적이었다. 조용한 이 동네의 무서운 모기들의 극성(?) 또한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다. 이틀에 걸쳐 데날리 공원을 나와 Talkeetna라는 곳에 가서 경비행기를 타고 맥킨리산 정상 근처를 돌았다. 다행히 날씨가 좋아서 정상 주변에 있는 눈으로 덮힌 산들을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볼 수 있었다. 옛날에는 맥킨리 산을 등반하려면 4-5개월 정도가 걸렸다고 하는데 요즘은 경비행기로 베이스 캠프까지 쉽게 가기때문에 2-3주면 가능하다고 한다. 앨라스카에서는 경비행기가 아주 중요한 운송수단으로서 비행기 면허 가진 사람이 로드아일랜드보다 9배나 많다고 한다. 맥킨리산을 뒤로 하고 남쪽으로 슈어드(Seward)에 있는 케나이 공원으로 향했다. 앵커리지에서 슈어드로가는 길은 세계에서 가장 가볼만한 하이웨이로 꼽힐만큼 아름다운 곳이다. 울창한 여름 숲 속에 우뚝 솟은 하얀빙하산, 그리고 빙하를 삼킬 것 같은 검고 거칠은 바다가 조화를 이루는 곳이다. 첫날은 빙하를 자세히 보기 위해

보트에 올랐다. 앨라스카이기에 이런 장관을 쉽게 볼 수 있는것이다. 빙하가 녹는 광경이 거대한 오케스트라를 보는 것과 같이 그 속도가 상상을 초월한다. 다음날 근처에 있는 Exit Glacier 라는 곳에 하이킹을 하러 갔는데, 지난 100여년 동안 급격하게 변한 빙하의 꼬리위치 표식을 보면서 지구 온난화가 얼마나 가속되고 있는지를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온난화의 원인이나 대책은 저마다 의견이 다를지 몰라도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다는 사실만큼은 아마 아무도 부인할 수가 없을 것이다. 도시에 살면서는 상상하기조차 힘든 경험이었다. Exit Glacier 에서 시작하여 빙하를 옆으로 끼고 걷는 8마일 정도 왕복길은 그 경치가 일품이라 하여, 우리는 이번 여행의 하이라이트로 잡았다. 아침 일찍 들른 휴게소에서 유럽에서 온 한 부부를 만났는데 그들은 벌써 다녀왔다면 경치가 기가 막히다고 강력히 추천하였다. 다만 한가지, 흑곰을 만났는데 자기네는 괜찮았지만 아직 그곳에 있는것 같으니 부디 조심하라고 이야기 해줬다. 조금 찜찜한 감이 있기는 했지만 오랜기간동안 기다려온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칠 수 없어 용감하게 감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런 우려는 잠깐이었다. 얼음사에 갓 피어난 봄꽃 길을 시작으로 나중에는 겨울 산행을 방불케하는 꼴이 보이지 않는 흰눈 별판을 걸었다. 날씨도 변화무쌍하여 참으로 흥미진진한 산행이었다. 아마도 내가 지금까지

지 해본 하이킹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기억에 남는 산행이 아니가 싶다.

힘든 하이킹을 자축하기 위해 지친 몸을 이끌고 항구 근처의 해물식당에 갔다. 앨라스카에 왔으니 당연히 킹크랩이 아닌가 싶어 종업원에게 물었다. 얼마나 싱싱하냐고. 대답이 아주 신통치는 않았다. 즉, 이곳에서 직접 잡은 것은 아니고 냉동된 것이라고. 집사람은 좀 회의적이었지만 나는 그래도 뭔가 다르겠지 싶어 좀 비싸기는 했지만 주문했다. 결과는 완전 실패작이었다. 짜고 건조하고, 앨라스카에 와서 다른 것은 다 좋았는데 음식은 비싸지만 하고 영 입맛에 맞지 않았다. 여행에서 돌아온 뒤 집 근처 마켓에서 세일하는 킹크랩을 구입했는데 앨라스카에서 먹었던 것보다 훨씬 싸고 맛도 좋았다. 아직도 알래스카를 떠올리면 ‘킹크랩사건’ 으로 집사람에게 시달리고 있다.

여름 휴가철이다. 미국은 참 가볼 곳이 많은 자연적으로 복 받은 나라이다. 나는 그 중에서도 단연 앨라스카를 권유하고 싶다. 크루즈를 타는 것보다 가능하면 렌트카로 드라이브를 하는 것이 자유롭게 구경할 수가 있을 것 같다. 앨라스카는 미국에서 제일 큰 주이기도 하나 하이웨이가 그리 많지는 않다. 재미있게도 앨라스카의 수도 주노(Juneau)는 로드아일랜드주보다 훨씬 큰데 차로 운전해서 갈 수 있는 도로가 없고 보트나 비행기로만 가능하다!

객담한설客談閑說: 밥에 대한 단상

김화옥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귀에 익지 않는 한국말이 꽤 많아졌다. '간지' 나는 말이라 할테냐. 아니면 재치있는 말이라 할겐가. 하긴 말은 생겨나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한다. 그래서 그런가, 한국어 를 듣는 귀는 점점 알아만 간다. 그렇다고 영어가 귀에 익숙해졌다는 말은 아니다. 여전히 한국어는 나와 내 아내의 모국어이며, 귀와 입에 편하다.

아직 이메일이 생기기 훨씬 전이다. 물론 카톡도 없었다. 인쇄된 종이메모를 받았다. 신입생 환영회를 학과 후 공원에서 연다는 내용이였다. 아내와 나는 혼란스러웠고, 깊은 고민에 빠졌다. 글귀 하나에 괴로워 했던 거다. 'Bring your own dishes.' 아내와 나는 배운대로 해석했다. '접시는 네것을 가져와라.' 아내가 물었다. "왜 접시만 갖고 오라는 거지. 포크와 수저 소리는 없잖아. 물컵도 갖고 가야 돼?" 내가 자신없이 대답

했다. "아마 그럴걸." 아내는 종이 접시 몇 개를 물컵과 같이 챙겼다. 플라스틱 포크도 화장지에 곁게 썼다. 저녁을 손으로 집어서 먹을 수는 없으니 말이다.

록키산맥 산악지대 초가를 저녁은 이르다. 햇살은 쉽게 떨어졌다. 얇은 겉옷을 걸친 나와 아내는 당연히 추웠다. 우리 입술은 말려 들었고, 땀은 떨어졌던 거다. 식탁 위에 음식들이 펼쳐져 있었다. 소주는 없었고, 짜장면이나 전골도 없었으며, 누구도 우리더러 노래를 부르라 시키지도 않았다. 크고 작은 플라스틱 음식용기들 모습만 생경했다. 이미 식은 내용물들은 우리 입맛을 당기지 못했던 터. 식탁 위에는 우리 저녁밥은 없었기에 더 춥고 배고팠다. 우린 우리가 먹을 저녁으로 빈 접시만 달랑 들고 갔기 때문이다. 그러니 우리가 들고간 빈 접시와 포크도 사용하지 않았다. 우린 차가운 콜라를 한잔씩 얻어 마

셨다. 우리 부부의 추운 저녁이었고, 배고픈 모임이었다. 디쉬와 플레이트의 차이를 어렵게 알게 된 날이다. 내 목을 타고 넘어가는 밥만이 내 밥이라는 걸 알았다.

'네가 일용할 양식은 내가 가져와라.' 그날 밤, 아내는 라면을 끓였다. 달걀도 풀었다. 맛은 꿀맛이었고, 안경에 김 서려가면 서 훔훔 마셔댔다. 초가을밤의 총명한 야식이었던 거다. 찬밥은 말아 먹었던가? 아내가 라면발을 입으로 가져가며 말했다. '제 디쉬는 제가 알아서 챙겨야 한다.' 그리고 한마디 더 붙였다. "역시 라면은 김치랑 먹어야 해. 이제야 살것 같군."

이 문장은 내것이 아니다. 소설가 김훈의 것이다. 밥에 대해 이만큼 숙연케 하는 글을 아

직 읽지 못했다. 허락없이 그대로 옮긴다.

'밥은 누구나 다 먹어야 하는 것이지만, 제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밥만이 각자의 고풍 배를 채워줄 수가 있다. 밥은 개별적이면서도 보편적이다. 시위현장의 점심시간은 문득 고요하고 평화롭다. 황사바람 부는 거리에서 시위군중의 밥과 전경의 밥과 기자들의 밥은 다르지 않았다. 그 거리에서, 밥의 개별성과 밥의 보편성은 같은 것이었다. 아마도 세상의 모든 밥이 그러할 것이다.' (김훈, 밥에 대한 단상, 한겨레)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마태 6:11)

신영의 세상 스케치

456회

첫사랑의 기억 그리고 추억

'첫'이라는 단어는 늘 설렘과 떨림 그리고 두려움을 갖게 한다. 그런 이유에서일까 더욱 기다려지고 만남의 시간이 지나고 오랜 세월이 흘러도 기억 속에 아련한 추억으로 남는다. 2011년 6월의 하루 처음 산을 올랐을 때의 그 느낌은 벌써 만 3년이 지나고 4년째를 맞았지만 잊을 수 없는 나의 오롯한 추억이 되었다. 지금도 산을 오르기 전날의 느낌은 첫사랑의 풋풋함과 싱그러움처럼 그렇게 설레는 가슴으로 있다. 처음 산을 오를 때 느꼈던 초록의 숲과 풀 내음에 그리고 바람에 흠뻑 취해 올랐던 첫 마음이 내게는 첫사랑으로 남은 것이다. 엇그제는 처음으로 '첫 홀로 산행'을 다녀왔다.

첫사랑

당신을 만나러 가는 길
안절부절 보채는 마음으로
몇 날 며칠을 보내며
오지 않는 잠을 토막였습니다

콩닥거리는 가슴을 재우길 얼마
설렘과 떨림과 두려움의
임표 없는 가쁜 호흡으로
기다림의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당신과 마주하던 시간만큼
다가오는 알 수 없는 끝
이미 놓쳐버린 끄나풀처럼
당신에게 가 있는 나를 보았습니다

말없이 손을 잡고 걸으며
발자국을 옮길 때마다
속삭이던 당신의 숨결에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르면 오를수록 가파른 숲
등줄기 타고 흐르던 땀방울
거친 호흡에 가슴이 타들던 순간
당신의 품 안에 안기고 말았습니다

당신과 내가 하나 된 순간
멈출 수 없는 그 시간이
차라리 영원하기를 바란 마음
처음입니다. 내게는.

언제부터인가, 산을 오르기 시작하면서 나도 한 번 혼자 산을 올라보고 싶다고 그렇게 마음에 담길 얼마였는지! 꼭, 하고 싶었던 산행이었는데 엇그제(06/28/2014)에서야 거이코 하고 싶었던 '홀로 산행'을 다녀온 것이다. 아침 일찍 산행 준비를 마치고 집에서 이른 아침 6시 30분 출발 1시간 30분을 가서야 Mt. Lafayette(5260ft) 아래 Parking lot에 도착하니 8시가 다 되었다. 조금만 늦어도 Parking lot이 모자라 저 바깥쪽의 하이웨이 양쪽 길가까지 팍킹을 하고 있는 요즘이라서 틀렸었다. 마침 라파엣 산 아래에 도착하니 팍킹 자리가 몇 눈에 띈다.

그렇게 몇 남은 Parking lot에 차를 주차하고 배낭과 스틱을 챙기며 혼자 산행이라 하여 빠진 것이 없는지 준비를 하고 산을 오르기 시

작했다. 홀로 산행을 결정하고 Mt. Lafayette을 선택한 것은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 라파엣 산은 트레일이 단조로워 길을 잃어버릴 염려가 없고 미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캐나다 사람들 그리고 유럽에서 온 사람들이 유난히 많이 찾는 산이다. 그래서 '홀로 산행'의 산행지는 '라파엣 산'으로 일찍부터 마음에 두고 있었다. 여럿이 오르는 산행도 좋지만, 녹음이 짙은 6월의 숲을 지나 깊은 산 속으로의 홀로 산행은 오롯한 또 하나의 행복이었다.

첫사랑의 기억을 잊을 수 없는 것처럼 그리고 그 추억을 떠올리면 떠올릴수록 고운 수채화처럼 남아 있듯이 미국에 와서 26년 만에 처음 산을 오르며 느끼고 경험했던 그 '첫 산행'을 잊을 수가 없다. 보스톤 산악회의 정기 산행이 한 달에 두 번(토) 있는데 만 3년을 산을 오르면서도 단 한 번도 주저한 마음이 없었다. 처음 산을 올랐을 때의 그 설렘처럼 지금도 산을 오르기 전날의 그 설렘과 떨림은 '첫사랑'처럼 가슴을 흔드는 것이다. 같은 산을 여러 번 올라도 단 한 번도 같은 느낌이지 않은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내게는 여전히 신비로움이고 경이로움이다.

유월의 숲은 산을 오르는 내내 내 감성을 터치하며 온몸과 마음을 흔들며 오감(五感)을 일깨워 주었다. 숲에 들자 싱그러운 풀 내

음 그리고 발을 땅에 디딜 때마다 느껴지는 감촉과 흙 내음 차마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자연과 만나 나누는 교감은 신이 우리에게 주신 '아주 특별한 선물'이었다. 고요한 숲 속에서 졸졸거리며 흐르는 냇물 소리는 귀를 열어 마음으로 몸으로 차오르는 것이 아닌가. 산을 오르면 오를수록 깊은 산 속 진초록의 수목들이 즐비하게 서서 우리를 마중하고 파란 하늘이 가슴을 열어 산을 오르는 우리 모두를 반갑게 안아주는 것이다.

산을 오르면 오를수록 작은 나를 만난다. 자연의 웅장함 속에서 신비로움을 체험하며 창조주의 섬세한 손길과 피조물인 인간을 잠시 생각한다. 첫사랑의 그 첫 마음처럼 자연 속에서 그 '섬세한 손길'을 기억하는 것이다. 또한, 산을 오르는 내내 가파른 산길 굽이굽이마다 힘겨워 헉헉거리는 고비고비마다에서 잠시 인생을 생각한다. 내 삶의 발자국들을 돌아보게 하는 시간이다. 삶에서 만나는 그 어떤 어려움일지라도 남의 탓이 아닌 내 탓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책임감을 배우는 것이다. 산을 오르면 오를수록 작은 나를 만난다. 산을 오르면 오를수록 산은 높아지고 나는 더욱 낮아지는 것이다.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으로 등단, 한국(전통문화/전통춤) 알리기 역할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skyboston@hanmail.net

제 4 탄

휴람 1주년 기념 특별가 이벤트

에디끄 에스테틱 특별할인

Professional Skin
Care System



행사기간 2014년 7월 부터~

상담 및 문의 보스톤코리아 617-792-6876

스페셜 힐링 케어

- Facial care + Healing back care
- 120 min

~~19만원~~ → **15**만원

스페셜 힐링 스칼프 케어

- Healing scalp care + Facial care
- 120 min

~~20만원~~ → **16**만원

스페셜 슬리밍 케어

- Facial care + Slimming leg care
- 120 min

~~25만원~~ → **20**만원

전신 홀리스틱 아로마 케어

- 아로마 전신케어 + 강력보습케어

~~32만원~~ → **26**만원

전신 고주파 케어

- 고주파 전신케어 + 강력보습케어

~~38만원~~ → **30**만원

나이가 드는 것은 피할 수 없지만
아름답게 나이 드는 방법은 있다.
에디끄 만의 특별한 관리로

시간의 흐름을 잠시 멈추보세요

에디끄 에스테틱이 특별한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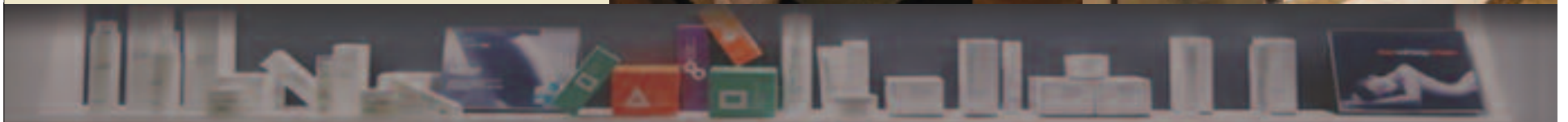
럭셔리 인테리어와 고급관리

1:1 전문관리와 프라이빗 룸

동안 미소 스킨 케어 마사지

이태리 최상의 브랜드 사용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관리사



아론 버 (Aaron Burr)는 왜? (1)

십 년 전 오늘날인 2004년 7월 11일, 뉴저지의 허드슨 강변. 약 1000여명의 구경꾼이 몰려든 가운데, 초대 재무장관 알렉산더 해밀턴의 5대손인 더글라스 해밀턴과 3대 부통령 아론 버 집안의 후손인 안토니오 버가 이들의 친척 100여명과 함께 노 젓는 배를 타고 등장했다. 19세기 초반의 복식까지 챙겨 입은 두 사내는 공포탄이 장착된 권총의 방아쇠를 당겨 서로에게 겨눴다. 잠시 뒤 더글라스 해밀턴이 엉덩이에 총을 맞고 비틀거리며 쓰러지는 모습을 연출했다. 200년 전 1804년 7월 11일에 벌어진 알렉산더 해밀턴 (Alexander Hamilton)과 아론 버 (Aaron Burr) 간의 권총 결투를 재연한 행사였다.

재연행사는 인근 해밀턴 공원에서 두 집안 사람들이 화해의 포옹을 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그러나 두 세기전 실제 결투는 해밀턴에게 치명상을 입혀 해밀턴이 사랑하는 사망의 직접적인 계기였으며, 또한 한때 총명하고 전도 유망했던 법률가이자 정치가로, 일국의 부통령을 지낸 아론 버가 살인자라는, 그리고 다시 몇 년 뒤 반역자라는 꼬리표를 떼지 못한 채 정치적으로 사형선고를 받게 되는 비극의 서막이기도 했다.

그들은 왜 결투에 이르게 된 것일까? 아론 버는 무엇이 부족해서 해밀턴에게 결투를 청하게 된 것이었을까? 그레도 일국의 부통령이라는 사람이? 표면적으로 알려진 사실은 1800년 선거 이후 아론 버의 해밀턴에 대한 정치적 적대감이 극

에 달했다는 것이다. 1800년 대통령 선거에는 현직 대통령인 연방파 (Federalist Party)의 존 아담스 (John Adams), 와 부통령이었던 민주공화파 (Democratic Republican Party)의 토마스 제퍼슨, 그리고 뉴욕 기반의 민주공화파였던 아론 버가 후보로 나섰다. 단 세 표 차이로 대통령-부통령의 운명이 갈린 1796년 선거처럼 제퍼슨과 아담스 간의 빅 매치였다. 그러나 1800년 선거 두 후보의 지지자들 간의 흑색 선전과 논쟁은 4년 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고 한다.

어쨌거나 당시의 연방 헌법에 따르면 선거인단의 각 선거인은 두 표씩을 행사할 수 있었다. 여기에는 한 표는 대통령을 위해, 그리고 다른 한표는 부통령을 위해 행사한다는 암묵적인 전제가 있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뚜껑을 열어보니 제퍼슨과 버가 얻은 표는 정확하게 73표씩으로 같았다. 이 경우 두 후보 중 누가 대통령이 될 것 인지를 결정하는 몫은 아직까지는 ‘연방파가 장악하고 있던’ 하원이었다. 해밀턴을 위시한 연방파 인사들은 결국 아론 버가 아닌 토마스 제퍼슨이 대통령이 되도록 힘을 보탤다.

그런데, 해밀턴과 아론 버가 결투에까지 이르게 된 갈등은 1800년 선거보다 훨씬 뿌리가 깊은 것이다. 결정적으로는 그들의 정치적 기반이 공통적으로 뉴욕에 있었으며, 매우 뛰어난 두뇌의 소유자들이었다는 것 등 그리고 어딘지 다르면서도 닮았던, 그리하여 필연적으로 경쟁적일 수

밖에 없었던 아론 버의 유년이 평탄했던 것 같지는 않다. 장로교 목사이자 프린스턴의 2대 총장을 역임한 아론의 아버지 (Aaron Burr, Sr.)는 아론 버가 태어난 다음 해인 1757년에 세상을 떠났으며, 조너선 에드워드 (Jonathan Edwards- ‘진노한 하나님’ 설교로 종교 대각성운동을 끌어냈던 유명한 목사)의 딸로 알려진 그의 어머니 에스더 역시 같은 해에 세상을 등졌다. 아론이 장로교 명망가의 후손으로 유산 덕에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없었다해도, 겨우 두 살의 나이에 고아가 된 셈이다.

유년의 굴곡으로 치자면 사실 해밀턴도 만만치 않았다. 아론버가 태어난 것과 거의 비슷한 시기, 영국령 서인도제도의 네비스섬이라는 곳에서 태어났다. 프랑스 위그노 교도 출신이었던 어머니 레이첼과 스코트랜드 출신의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어머니가 전남편과 이혼을 할 수 없던 복잡한 법적 문제로 인해 사생아로 태어난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 사탕수수 대농장과 교역이 활발했던 서인도 제도에서의 어린시절 덕에 해밀턴은 노예제의 잔인함과 유럽 열강들 간의 이해관계를 이해할 수 있었다고 한다. 알렉산더가 열 네 살이 되던 해, 아버지가 떠난 후 홀로 형제들을 키우던 어머니가 사망하면서 그 역시 고아로 자랐다. 1772년, 해밀턴은 서인도제도를 떠나 뉴욕으로 이주했다. 가난했지만 총명했던 해밀턴의 가치

를 알아본 이들이 해밀턴에게 날개를 달아주기 시작했다.

한편, 아론 버는 열 세살의 나이에 프린스턴에 입학, 열 여섯에 대학을 졸업할 수 있었던, 총명함을 갖춘 영재였다. 프린스턴대학 총장을 지낸 바 있는 28대 대통령 우드로 윌슨 (Woodrow Wilson)은 18세기에 프린스턴을 (아론 버가 다닐 당시의 대학 명은 뉴저지 대학) 졸업한 학생들 중 가장 똑똑한 인재였을 것이라 말하기도 했다. 미국 휘그당 학회라든가 클리오소픽 소사이어티 (Clisosophic Society of Princeton- 마크 트웨인이라든가 스캇 피츠제럴드 같은 미국의 지식인들을 배출한 프린스턴 학내 클럽)에 참여했다. 대학 졸업후 신학을 공부했던 아론 버는 열 아홉의 나이에 법학 공부를 시작했다. 독립전쟁에도 적극적으로 참가했고, 전쟁이 끝나자 잠시 접어들었던 법률공부를 다시 시작하여 뉴욕에서 법률가로서, 그리고 정치가로서의 커리어를 착착 쌓았다. (계속)



화랑도(花郎徒)와 성(性) 그리고 태권도(跆拳道) 42 무예청과 인조

박선우 (박선우태권도장 관장)

사도세자가 편찬한 ‘무예신보’는 단순히 ‘무예제보’의 6기에 12기를 더했기에 ‘십팔기’가 아니라, 그 당시부터 조금씩 불려지면서 조선 후기에는 순수 우리말로 ‘택견’ 또는 ‘탁견’이 무예의 고유명사가 되었고, 한자로 적을 때는 ‘십팔기’가 무예신보의 특정무술을 칭하는 일반용어에서 점점 무예의 고유명사로 변천되어 왔음이 보여진다. 박급수(서울대학교)의 ‘조선 후기 공식무예의 명칭 十八技에 대한 고찰’이란 논문에도 보면 그 무예명칭의 변천사를 자세히 볼 수 있다. 즉 무예제보의 ‘六技’와 무예도보통지의 ‘二十四技’는 고유명사로 쓰여지지 않고 그냥 그 내용의 技를 셀 때만 사용되고 있음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 그리고 정조의 친필 일기인 ‘일성록’에서는 장용영의 십팔기군에게 매 초哨(당시의 근대 편제의 하나로 약 100명으로 한 초를 이룸)마다 15명씩 돌아가면서 기예를 연마하도록 명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즉 십팔기는 열여덟가지의 기술技術이 아니라 무예의 고유명사를 볼 수 있다. 그외 ‘훈국총요’을 비롯한 많은 사서들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또한 당시의 중국과 일본에도 ‘십팔반무예’와 ‘무예십팔반’ 등의 용어나

특정무예의 고유명사가 있었다. 무예청은 1628년(인조8년)에 설치 되었다. 무예청에는 당시 최고 무예의 기技를 가진 무사들로 구성되어 왕성과 왕을 최근접 거리에서 호위하였다. 이 무예청의 창시 과정은 임금 순조가 지은 ‘순제고純濟稿’ 58)에 자세히 나와 있다. 그 무사들을 ‘무예별감’ 또는 간단히 ‘무감’이라고 하는데 그 명칭은 선조가 임진왜란 당시 의주로 피신했을 때 호위한 열명의 훈련도감 무사들에게 나중에 한양으로 돌아와서 내린 벼슬의 별칭이다. 이 무예별감들은 ‘십팔기’를 수련하였는데 특히 실용성이 뛰어난 ‘본국검’과 위용을 뽐내며 위협할 수 있는 ‘월도’를 많이 수련했다. 정식으로는 인조대에 설치하였지만 선조가 자신을 가장 가까이서 호위한 무사들에게 내린 호칭과 역할의 내용을 볼때 국왕 호위 즉 경호가 그들의 주요 임무였다. 훈련도감에 소속시켜서 왕을 호위케 했는데 설치 당시의 30명이 점점 늘어나서 순조 2년에는 198명으로 증가 되었다. 그들은 홍철리紅天翼을 입고 황초림黃草笠을 썼으며 모자 위에는 호랑이 수염을 꽂았다. 여기서 잠시 반정으로 왕위를 차지한 인조의 거사를 살펴보자.

부왕 선조의 교지를 받지 못하고 인목대비의 언문 교지로 가까스로 왕위에 오른 광해군은 자신의 불안한 왕좌를 보전하기 위해 대책을 강구했다. 이 과정에서 친형 임해군, 선조의 유일한 적자인 이복동생 영창대군, 서조카 능창군 등 왕위를 위협하는 왕자들고 이들의 지지세력인 소북파, 서인, 남인 등을 모두 제거하였다. 심지어 인목대비마저 존호를 박탈하고 서궁에 유폐하자, 그간 광해군의 실정과 패륜행위에 반기를 든 사건이 인조반정이다. 역모로 몰려 죽은 능창군의 형인 능양군이 대북파의 적대세력인 서인의 김류, 이귀, 이괄 등과 손잡고 1623년 3월 광해군의 지지세력인 정인홍과 이이첨 등의 대북파를 제거하고 정권을 잡았다. 당시 29세인 능양군이 왕위에 오르니 조선의 16대 왕 인조이다. 인조는 선조의 손자이다. 선조의 후궁 인빈 김씨의 3남 정원군의 장남이다. 인목대비는 광해군을 폐위하는 이유로 세가지를 내세웠다. 첫째는 선조를 독살하고 형과 아우들을 죽였으며 어머니인 자신을 서궁에 유폐시켰다는 것, 둘째는 과도한 토목공사로 민생을 도탄에 빠지게 하여 정사를 위태롭게 하였다는 것과 마지막으로 두 마음을 품어 오랑캐에게 투항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단지 반정세력들의 거사명분이다. 즉, 자신들의 반정을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선조 독살건은 사실이 분명치 않으며 인목대비가 줄기차게 주장했던 건으로 이로 인하여 서궁에 유폐되었다. 다음은 임진왜란으로 불타 없어진 궁궐의 재건공사를 했지만 민생의 도탄은 그로 인한 것이 아니라 임진왜란이 원인이다. 그리고 명과 청사이의 중립 외교는 후세 사가들의 칭송을 받는 적절한 자세였지만 대명사대를 하는 서인들과 뜻이 다르다는 이유로 결국 반란의 빌미를 주었다. 특히 외교면에서는 현명한 판단으로 명과 청의 사이에서 안정적으로 다져진 상태를, 인조가 왕위에 오르며 정권을 잡은 서인들의 오판으로 결국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의 대 참화를 겪으면서 유사 이래 가장 치욕스러운 삼전도의 항복으로 이어졌다.

58) 순제고, 조선의 23대왕 순조가 지은 시문집이다. 국왕이 직접 편찬한 문집이라는 점에서 그 사료적 가치가 높게 평가되고 있다. 20권2책의 필사본이 장서각에 소장되어 있다. 1,2권의 시 167수로 시작하여 왕정론, 군자와 소인, 인재등용이 국가를 다스리는 요점, 근검절약이 임금으로 부터 술선수범되어야 한다는 생각 등 모든분야를 담은 문집이다. 특히 ‘십팔반무예기실’은 무예신보에 실려있는 십팔반무예에서 사용하는 병기와 그 사용법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해 놓았다.



고국의 품에서 당신의 건강을 생각합니다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 **유방·갑상선센터**
유방암수술, 재건, 성형
- **암통합케어센터**
원스텝 진단에서 치료까지
- **자궁근종센터**
수술없이 자궁근종 치료
- **심혈관·뇌졸중센터**
심근경색, 뇌졸중, 24시간 진료
- **척추·관절센터**
무릎, 어깨, 허리, 비수술 통증치료
- **내시경센터**
위암, 대장암, 내시경 치료



고국방문 건강검진

VIP 입원 종합검진 남: 200만원 / 여: 210만원
입원 종합검진 남: ~~80만원~~ 60만 / 여: ~~85만원~~ 70만원
당일 종합검진 남: ~~55만원~~ 45만 / 여: ~~65만원~~ 55만원

진료과목

소화기병센터, 자궁근종센터, 건강증진센터, 인공신장센터, 인터벤션센터, 영상의학센터
정신건강의학센터, 유방·갑상선센터, 척추·관절센터, 암통합케어센터, 심혈관·뇌졸중센터
이비인후과·비뇨기과, 재활치료센터, 응급의학센터



해외의료사업팀장 김 수남
문의전화: 617-792-6876

이메일: huramceo@huarm.kr
카카오톡: 010.3469.4040 (ID: 의료관광의 중심 HURAM)

양미아의 심리치료 현장에서

‘침묵속에 자라나는 가정폭력 IV’ (Domestic Violence)

양 미아 Licensed Psychotherapist

Private Practice: 1330 Beacon St.
Brookline, MA 02446
37 Fruit St, Worcester, MA 01609,
508-728-0832
yeungmiaj@gmail.com

친족 성폭행의 생존자 은수연씨는 한국성폭력 연구소의 소시지 '나눔터' 를 통해 초등학교 5학년부터 9년간 친부로부터 지속적으로 당했던 '성폭행' 을 낱낱히 드러냈다. 4년간 그녀의 글을 통해 망신장이 되었던 삶을 딛고 일어나 아픈 영혼의 내면을 치유해가는 과정을 연재한 것이다. 그녀의 귀중한 글들이 모여졌고, '눈물도 빛을 만나면 반짝인다' 라는 책으로 발간되었다. 은 씨는 자신의 책을 통해 성폭력을 바라보는 세상의 시선을 바꾸고 자신을 비롯한 생존자들이 '상처 입은 치유자' 로 설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보고 싶다고 말했다.

책 이름을 선택하게 된 원인은 그녀의 경험담에 있다. "엎드린 채 내가 흘린 눈물을 쳐다보고 있는데, 옆에 창문에서 햇빛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떨어지는 눈물과 만나면서 반짝반짝하는 거예요. 그때 내 눈물도 빛을 만나면 반짝일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은씨는 이 믿음을 통해 보석같이 빛나는 사람이 되었다. 2013년 한국여성단체연합이 주최한 제29회 한국여성대회에서 은씨는 '눈물도 빛을 만나면 반짝인다' 를 쓴 공로로 '올해의 여성운동상' 을 받았다.

영화의 이야기보다 더 경악스럽고 마주하기 힘든 그녀의 '친부 성폭행' 을 소개한다. 그녀의 글이 다소 선정적인 내용일 수 있음을 알린다.

초등학교 5학년, 자다가 눈을 뜨니 바지가 벗겨져 있었고 아버지는 위에서 말한다. "가만 있어봐, 힘 빼고 들어갈 수 있어. 처음에는 좀 아파." 그녀는 겁이났고, 삼입은 불가능해졌다. 그러자 얼굴을 패면서 억지로 삼입을 했다. 그녀는 말한다. "땀이 찢어진 거 같았다" 라고. 그 이후, 친부는 찢어진 음부를 약발라 가며 밤낮을 가리지 않고 성폭행을 가했다. 어린 딸에게 친부는 말했다. "수연아 이리 와 봐, 자꾸 해야 길이 들어서 안 아파. 그리고 집에 있을 때는 내가 차마 속에 팬

티 입지 말랬지." 6학년에 임신여부를 확인하러 병원에 가기 전, "한 번 하고 가자. 한참 못할 수도 있으니까"라고 말하며 성폭행을 했다. 의사 앞에서 "수학경시대회 때 강간 당했다" 고 거짓말하며, 딸을 감싸주는 아버지처럼 연기했다. 임신 12주나 되어서 유도 분만으로 유산시켰다.

그 후, 9년간 변태적 성폭행은 셀 수도 없이 계속되었다. 하지만, 고등학교 때도 그녀가 겪는 일이 무엇인지 정확히 몰랐다고 한다. 그저 죽을 만큼 힘든 일이라고 생각했다. 반항하거나 도망칠 때마다 죽음에 가깝게 얻어맞으며 다시 끌려와야 했다. 반항을 할수록 감시는 더 심해졌다. 사람들은 그녀의 모든 활동을 감시하는 친부를 딸을 지극히 소중하게 여기는 아버지라며 칭찬했다.

대학교 1학년 때, 상담 교수에게 처음으로 그동안의 성폭행을 털어놓으며 도움을 청했다. 하지만 교수는 "엄마한테 전화했는데 아빠가 다시 안 그런다고 하니가 돌아가서 잘 살아라" 하며 혹시 "아빠랑 즐긴 거 아니냐" 는 말을 한 후 돌려 보냈다고 한다. 집에 돌아간 후 죽음에 가깝게 얻어맞았다. 사회에 대한 불신은 커졌지만 자신이 살아야 한다는 열망이 더 컸다. 그 뒤로 몇 번 더 가출을 시도했다. 사회는 친부의 편이었다. 목사였던 친부의 직업과 그의 달변은 그녀를 부모를 모욕하는 '막돼먹은 딸' 로 변질시켰고, 사회는 그녀보다 친부의 주장을 옹호했다.

자신을 여관으로 끌고 간 아버지가 잠시 밖으로 나간 사이 여관주인에게 "납치되었다. 도와달라" 고 도움을 청했다. 형사들이 현장을 급습했다. 친부의 거짓말이 아닌 은씨의 호소를 믿은 형사들 덕분에 그녀는 질기고 질겼던 9년의 '성폭행' 이라는 사슬에서 빠져나왔다.

그녀는 한 잡지의 인터뷰를 통해 그 후의 생활

을 말했다. 쉼터에서 지내며 그곳에서 소개받은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상담도 받고, 생활을 꾸러가기 위해 늦은 밤까지 일했다. 몇 년동안 월급의 반 이상을 심리치료를 쓰면서 그녀의 상처를 치료했다. 친부는 7년 형을 받아 교도소에 갔다가 형을 마치고 나왔다. 그녀는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을 공부했고, 현재 30대 중반의 골드미스로 유학준비를 하고 있다.

그녀의 영혼은 수많은 죽음을 당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죽음 속에서 살아나 수치심과 두려움에 몸부림치는 성폭력의 '피해자' 가 아닌, 증오, 원한, 울분의 지옥같은 상처를 극복하고 일어나, 맑고, 밝고, 강하고 살아가는 '생존자' 가 되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요소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하자.

피아제(Piaget) 학설에 따르면, 10살, 11살 이전 아이들은 주위의 어른과 신을 통해 무조건적인 도덕 관념이 고착된다고 말한다. 은씨는 책을 통해 자신의 지옥같은 생이 구제된 것은 '종교의 힘' 이었다 말한다. 이 말로 짐작할 때, 초등학교 5학년이었던 은씨는 이미 생의 도덕관념과 가치 기준이 종교를 통해 형성되었다고 본다. 또한 기도를 통한 그녀의 메타코гни션(Metacognition)이 발달되었다.

스티브 프렐링햄(Steve Fleming)박사의 '메타코гни션의 학설을 살펴보면, 이것은 '분노, 슬픔, 격정' 으로 신호를 보내는 나를 발견하는 것' 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세가지 부정적인 정서로부터 친해진다는 것은 '내 안의 나' 와 익숙해진다는 것이다. '자기성찰능력' 에 중요한 요소이다. 이 부분은 전전두엽에 위치하며, '모르는 것을 알려하는 자세' 다. 메타코гни션을 발달의 방법으로 '명상' 이 있다. 은씨는 그녀의 상처를 기도라는 형태의 명상을 통해 치유했고, 생을 희망을 가졌다고 한다. "저는 주변에

아무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유일하게 거리낌 없이 얘기하고 마음 속에 쌓인 분노를 털어놓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었어요." 그녀의 이러한 신과의 대화, 명상이 '메타코гни션' 의 성숙을 가져오게 했다고 생각한다. 이 성숙은 치유와 회복을 위해 갖을 수 있는 용기와 불굴의 의지를 심어주었다. 수치심에 도망치지 않고 맞서서 싸울 수 있게 했다.

또 하나의 다른 요소는 그녀의 친구들이다. 그들은 그녀가 성폭력을 고백했을 때, 성폭력 '피해자' 라는 '틀' 로 그녀를 본 게 아니라, 오히려 그녀를 통해 '생존자'들의 고통을 이해했다. 많은 사람들은 성폭력 피해자를 '폭력' 의 피해자가 아닌, '성' 의 문제로 본다. 유교사상에서 파생된 '순결 이데올로기' 는 여성폭력 피해자를 이미 더럽혀져 망가졌다고도 본다. 은씨의 상담교수는 그녀를 아버지와 성을 즐긴 '탕녀' 로 취급했고, 한때 사귄던 남자친구는 헤어지면서 '니 아버지한테 당하고 나한테 지랄이나' 고 막말까지 했다. 사회는 이미 성폭력의 피해 여성을 값싼 동정으로 판단하고 응징하는 것이다. 그래서 피해자는 자신의 피해를 감추고, 평생 억울해하며 살아가게 할 수도 있다.

은 씨가 쉼터에서 재생활 때, 상담원들은 계속 몇 번씩 이야기 해주었다. "네 잘못 아니고, 네가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다." 이 말이 그녀 마음 안에 들어오는 데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했다. 그녀의 눈물은 그녀를 보석처럼 빛나게 하고, 우리에게 '생의 희망과 용기'를 가져다 준다. 그래서 그녀는 말한다. 견디지 못할 아픔은 없고 끝까지 앓고 고통은 없다."



행복한 미소가 그리우십니까?
1st 초이스가 고객님의 미소를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모든 진료를 편리하게 한곳에서!

•치아교정	•소아치과
•사랑니발치	•치아미백
•임플란트수술	•악관절(TMJ)
•보철/비니어	•수면진정마취
•신경치료	•3DX-Ray(CT스캔)



Special!

치아교정 무론상담

(2013-11-31까지)

Dr. Jeong Sook Lee (정수옥 선생님)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DDS/Ph.D
Tufts School of Dental Medicine, DMD
Harvard School of Dental Medicine, DMD
Practice limited to prosthodontics

Dr. Michael Kong (강철문 선생님)
University of Pennsylvania, DDS
Harvard Dental Resident
Practice limited to endodontics

Dr. Samuel Lee (이승우 선생님)
UCLA School of Dentistry, DDS
Harvard Dental Resident
Practice limited to perio, implant, & ortho



IMPLANT • BRACES • COSMETIC

DENTAL

1st.CHOICE DENTAL

한국인 직원을 찾아주세요

781.273.2233

www.1cdental.com

H

마트에서
5분 거리



11 Cambridge St.
Burlington, MA 01803



Fried Chicken 오리지날 치킨

Choice of :
Crispy, Mild Sweet Glaze or
Spicy Sweet Glaze
크리스피, 순한 양념, 매운 양념
Combination of half and half is available
with whole chicken only

Chicken Bites 순살 치킨

Choice of :
Crispy, Mild Sweet Glaze or
Spicy Sweet Glaze
크리스피, 순한 양념, 매운 양념
Combination of half and half is available
with large size only

Chicken Tender 치킨텐더

Slow marinated and hand battered
crispy style chicken tender

Crispy Chicken Bites 닭강정

Stir fried crispy chicken bites
with sweet and savory sauce



7days 11:00 AM - 11:00 PM
delivery / take out

전화 : 617-337-3500

주소 : 136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이명원

공인회계사
617-455-8073
mwlee@kicpa.or.kr 또는
tomwlee125@gmail.com

상속세 및 증여세

사전증여 효과 있나요? (2)

지난 주에는 한국에서의 사전증여 효과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주는 지난 주와 동일한 김한국씨의 사례를 가지고 미국에서는 어떤 효과가 있는지 살펴보기로 합니다.

- 미국영주권자인 김한국씨는 한국의 부(父)로부터 증여당시의 시가가 2억원인 부동산 A(당초취득가액 1억원)를 증여받았습니다.
- 부(父)는 부동산A증여 후 5년후에 사망하였는데, 사망 당시 부동산A의 가치는 10억원, 그의 상속 재산의 상속세 과세표준(모든상속공제후)이 30억이었습니다.

2. 미국의 상속세 및 증여세상 효과

미국에서는 증여세를 증여자(doner)가 냅니다. 증여자가 미국의 거주자면 전세계의 모든 증여자산에 대해, 비거주자면 미국에 있는 유형자산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냅니다.

미국에는 증여세 납부의무 없어

따라서 한국거주자인 부(父)가 한국의 부동산을 미국거주자인 김한국씨에게 증여하면, 증여자인 부(父) 뿐만 아니라 수증자인 김한국씨도 미국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미국의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가액이 기준금액(비거주자 개인에게서 증여 받은 경우 \$100,000, 외국회사에서 증여 받은 경우 \$15,102)을 초과하면 수증자가 그 증여내용을 IRS에 신고해야 합니다(Form 3520). 만약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매월마다 증여받은 가액의 5%씩 가산세가 부과됩니

다(최대 25%까지).

상속의 경우도 증여와 동일

미국에서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자)이 냅니다. 피상속인이 미국의 거주자면 전세계 모든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내고, 비거주자면 미국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냅니다.

위 김한국씨의 사례에서 부동산A를 증여가 아닌 상속을 했다면,

피상속인이 한국의 거주자이고 상속재산이 한국에 있으므로 피상속인(김한국씨 부(父))은 미국에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상속인(김한국씨) 또한 미국에 상속세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증여재산과 상속재산의 취득가액이 달라져

이를 정리하면, 미국의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미국 외에 있는 자산을 증여받거나 상속받으면 미국에서는 증여세와 상속세를 과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증여세와 상속세에 미치는 효과는 없습니다

그럼 위 김한국씨는 사전증여를 받든, 아니면 상속을 받든 미국세법상 아무런 차이가 없을까요?

여기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증여재산과 상속재산의 취득가액(basis)과 관련

된 것입니다. 미국세법은 증여로 받은 증여재산의 취득가액은 증여자의 장부가액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고(장부가액이 공정가치보다 크면 별도 규정이 적용됨), 상속으로 받은 상속재산의 취득가액은 상속당시의 시가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로 받은 부동산A에 대한 김한국씨의 취득가액(basis)은 당초 부(父)의 장부가액인 1억원이며, 만약 상속을 받았다면 김한국씨의 취득가액은 상속당시의 시가인 10억원입니다.

참고로 한국의 세법은 증여의 경우 증여당시의 시가를 수증자의 취득가액으로 보며, 상속의 경우 상속당시의 시가를 상속인의 취득가액으로 봅니다.

결국 양도소득이 달라져

그럼 김한국씨의 취득가액(basis)이 서로 다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는 향후 부동산을 매각할때 발생한 양도차익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들어, 김한국씨가 부동산A를 시가 15억원에 양도했다고 가정하고 양도차익을 계산하면, 증여받은 경우는 14억원, 상속 받은 경우는 5억원으로 상속받은 경우의 양도차익이 증여받은 것에 비해 9억원 적습니다. 이는 김한국씨가 향후 자산의 양도를 고려한다면 미국 세법상으로는 사전증여보다는 상속이 유리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

니다.

3. 결론

여기서 위 김한국씨의 사례를 정리해 봅니다. 한국에서는 위 김한국씨의 경우 사전증여하는 것이 상속받는 것보다 유리했습니다(물론 향후 김한국씨가 부동산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까지 고려하면 그 효과가 줄어들 수는 있지만).

미국에서는 상속세와 증여세 관점에서는 사전증여 받는 것과 상속받는 것이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김한국씨가 부동산을 양도할 때 부담해야 하는 양도소득세를 고려하면 사전증여보다는 상속이 유리합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미국의 거주자가 한국의 거주자로부터 한국의 재산을 물려 받을 때, 증여가 유리한지 아니면 상속이 유리한지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 증여단계에서의 한국과 미국의 증여세,
- 증여후 증여자산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소득세
- 상속단계에서의 한국과 미국의 상속세
- 그리고 수증자 또는 상속자가 향후에 자산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양도, 증여, 상속 등)에 따른 한국과 미국의 세금(예를 들어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명덕, Ph.D., Financial Planner
& Registered Investment Adviser (RIA)
Copyrighted, 영민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세
rights reserved
www.billionsfinance.com
248-974-4212

영민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239)

욕심(Greedy)과 투자

2013년 주식시장(S&P 500 Index) 수익률이 32%를 기록했습니다. 기록적인 수익률 때문인지 2014년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많은 주식전문가가 비관적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2014년 초 약간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주식시장은 22번이라는 새로운 기록과 6월 30일 현재 수익률이 7%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많은 투자자는 주식에 더 많이 투자하지 않은 것을 후회합니다. 주위 친지들이 투자로 돈 많이 벌고 있다는 소식이 마음에 상생송합니다. 나도 모르게 욕심이 생깁니다. 그러나 마음의 욕심을 조절하지 못하면 은퇴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욕심이 커질수록 그만큼 투자 위험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하는 투자는 짧은 시간 내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대로 하는 투자란 실수와 잘못을 하지 않는 투자를 말합니다. 욕심으로 불필

요한 투자 위험을 선택한다면 실패하는 투자로 이어집니다. 수입이 있을 때 경험하는 투자실패는 좋은 경험했다고 간주하고 다음에 반복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나 많은 적든 정해진 은퇴자금에서 실수로 얼마를 손실하면 다시 일하기 전까지는 보충할 수가 없습니다.

투자하는데 욕심이 일어나는 가장 커다란 이유는 투자하는 뚜렷한 목적(goal)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실제 예를 들어봅시다. 1998년 한 은퇴자의 노후자금이 백만 불이었습니다. 일 년 생활비로 \$50,000이 필요합니다. 연금(Social Security)으로 \$15,000을 받으면 나머지 \$35,000이 필요합니다. 물가상승을 고려한 4%가 투자 돈에서 나오면 됩니다.

투자종목은 안전한 국채와 정기적금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자율은 약 6.5%이므로 일 년에 받는 돈이 \$65,000으로 계획했던 것보다도 거

의 두배입니다. 이러한 계획은 여유가 있는 은퇴생활은 물론 자녀에게 많은 돈을 상속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 기술주의 수익률이 20%~30%였습니다. 주위의 많은 친지가 주식투자자도 돈 벌었다는 이야기가 계속 들려옵니다. 주식에 투자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기 시작합니다. 주식시장은 연일 상승합니다. 시장에 들어갈 기회를 엿보다가 2년 지난 2000년 초에 많은 돈을 투자합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가기도 전에 주식폭락을 경험합니다. 백만 불의 은퇴자금이 삼십만불로 적어집니다.

많은 투자자는 이러한 쓰라린 경험을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함께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때 투자실패를 반복합니다.

다른 예를 하나 더 들어봅시다.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는 한 분이 게임과 교육에 관한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내는 회사에서 조만간 은퇴할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회사 성장

과 함께 은퇴자금도 많이 모았습니다.

은퇴자금의 90%가 본인이 일하고 있는 회사주식이었습니다. 오랫동안 같은 회사에서 몸을 담고 있었던바 앞으로도 주식가격이 계속 상승하리라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가까운 장래에 두 배로 될 것이라는 예상할 정도입니다. 그래도 은퇴를 준비하며 회사주식을 처분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 좋은지 의견을 상담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 세(3)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한 후 결정하라고 조언합니다.

첫째 질문은 회사주식을 계속 보유한 후 당신이 예상한 대로 주식가격이 두 배로 증가한다면? 결론은 은퇴 후 더 많은 돈을 보유하게 됩니다.

둘째 질문은 회사주식을 계속 보유하기로 한 후 당신의 예상이 맞지

않고 주식가격이 폭락한다면? 결론은 기대했던 은퇴를 포기하고 직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셋째 질문은 당신의 판단과 결정이 틀려 본 적이 있습니까? 대답이 '예(Yes)' 라면 결론은 회사주식을 파는 것이 현명한 결정입니다.

골프대회 마지막 날 마지막 홀을 남기고 2타차로 앞서고 있습니다. 마지막 홀은 매우 어려운 코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버디를 하기 위해 많은 위험을 택할 이유가 없습니다. 3타차로 우승하나 1타차로 우승하나 궁극적인 목적은 우승입니다.

투자도 이와 유사합니다. 부자라고 밥 한 끼 더 먹지 않습니다. 투자하는 목적을 이미 달성했거나 근처에 도달했다면 불필요한 투자 위험을 택할 이유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전 미주 최초! 방송 3사 모두 시청 가능한 유일한 TV - 엔티비

KBS1, KBS 2, MBC, SBS 인기 프로그램과 영화, 키즈, 교육, 신앙생활, 골프 등 수만여편의 콘텐츠 엔티비와 함께 다양한 재미와 유익한 정보를 무한대로 즐기세요!



enjoy & TV

www.enjoyandtv.com

문의 및 연락처

보스톤코리아 TV 사업국

617.955.9112/617.650.6656

엔티비 하나면 충분!
다른 한국어 패키지는 필요없습니다

\$24.99

(2년 약정시, Tax 면제) 1년 약정시 \$29.99

최대 2대까지 추가 TV당 \$9.99

MBC, SBS는 예능 2-4주, 드라마 5-6주 홀드백(일정기간 상영불가)기간이 있습니다. KBS와 CJ&M은 홀드백이 없지만 빠른 시청을 원하시면 편당 49-50센트의 금액을 추가로 부담하셔야 합니다. 프리미엄 고객의 경우 편당 시청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불법 콘텐츠를 시청하는 행위는 불법행위이며, 우리 문화 잠재력을 파괴하는 매우 해로운 행위입니다.

미국 유학 성공 가이드



오승준 (Albert Oh)

SD Academy 원장
SDAcademyOnline.com
617-505-1852, 510-387-0735
info@SDAcademyOnline.com

SAT는 1년에 7번 (1월, 3월, 5월, 6월, 10월, 11월, 12월) 있다. SAT 점수의 '유효기간'은 3년이기 때문에 단순히 계산해도 대학 지원 전에 20번 이상의 기회가 주어진다. 매년 SAT를 볼 기회가 7번이나 있음에도 시험 응시를 미루게 되는 이유는 많다. 학교 공부가 바빠서, 과외 활동이 너무 많아서, 준비가 덜 돼서, 자신이 없어서... 심지어 시험을 보고도 컨디션이 안 좋았다는 이유로 시험을 캔슬하는 경우도 있다. SAT외에도 SAT Subject test, ACT 혹은 봄의 AP 시험까지 준비하려면 갑자기 마음이 급해진다. 10월 달에는 Senior 들이 시험을 많이 봐서 상대적으로 내 점수가 저평가되고, 대학 입시가 끝난 1월 달에는 SAT가 쉬워진다는 루머까지 돌고, 체계적인 계획에 따른 시험 응시보다는 심리적으 로 더 편한 시간을 찾는 경우도 흔할 정도이다.

00월에 보는 SAT가 가장 유리하다?

본격적인 대입 시즌이 시작되면서 SAT 시험이 평가되는 방식에 대한 문의 또한 많이 받게 된다. 예를 들어, "시험이 쉽다고 생각했는데, 점수가 생각보다 너무 엉망으로 나왔다." "망친 것 같아서 시험을 캔슬했는데, 친구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니 다 점수가 괜찮게 나왔다." "지난 번에 봤을 때 3개 틀렸는데, 이번에 똑같이 틀리고도 점수가 더 낮아졌다" 라는 식이다. 이렇게 학생이 느끼는 난이도와 실제 점수가 차이가 나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 SAT의 채점 방식을 잘 모르는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은 헷갈릴 수밖에 없다.

하지만 모든 SAT의 난이도를 정확하게 맞추는 어렵기 때문에 매 시험 점수 도출 방식이 바뀔 수밖에 없고, 결국 오해와 루머가 퍼지게 된다. 각 시험의 난이도는 필연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답과 오답 개수만으로 정해지는) Raw score가 같아도 미리 정해진 계산식에 따라 800점 만점의 Scaled score로 변환되면서 점수의 차이가 생기는 것이다. 즉, 상대적으로 '어려운' 시험이라고 CollegeBoard가 미리 정해 놓았다면, 같은

raw score로 더 높은 scaled score가 나오게 되고, '쉬운' 시험이라면 그 반대가 되는 것이다. 극단적인 예로, 수학 영역이 매우 어려웠던 2006년 1월 달의 SAT의 경우, 한 문제를 틀리고 800점, 두 문제를 틀려도 780 점이었던데 비해 수학이 쉬웠던 2011년 1월 시험에서는 한 문제를 틀리면 수학 점수가 770점까지 떨어지고, 두 문제를 틀렸다면 740점이 나오는, 문제 당 30점으로 계산된 적도 있었다.

<표 1>을 보면 정답률로 계산되는 raw score와 변환된, 대학교에 제출하게 되는 scaled score의 상관관계를 더 자세히 볼 수 있다. CollegeBoard는 기본적으로 score equating (난이도가 다른 시험과 응시 학생들의 수준 차이를 감안하여 '균형'을 맞추는 작업)을 효과적으로 하는 편이기 때문에 같은 raw score로 나오는 점수가 크게 나는 편은 아니다. 그렇다고 작은 점수 차이로도 희비가 갈리는 학생들을 생각하면, 30-40 점씩의 차이는 무시할만한 수준도 아니다. (사실 최상위권 점수를 목표로 하는 학생들이 점수 평준화 때문에 가장 손해를 보게 된다.)

하지만 그 정도는 학생들을 직접 평가하는 대학 입학 사정관들도 이해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Score Choice (원하는 점수를 제출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Super Score (영역 별로 가장 높은 점수를 합쳐서 총점을 계산하는 시스템)가 있다. 또한, 종합적으로 학생을 평가하는 입학사정관제에서는, 시험 점수는 평가 항목의 일부일 뿐이기 때문에 학생의 평가가 SAT 점수 몇 십 점 차이 때문에 바뀔 일은 없다. 학생의 내신, 활동 이력, 인성 평가 등이 탄탄하다면 SAT 점수가 연습 때보다 조금 덜 나왔다고 붙을 학생이 떨어질 일은 없다는 것이다.

결국 중요한 것은 자신의 계획이다. 더 점수가 잘 나오는 기간, 남들이 못하고 내 점수가 더 높게 나온만한 달을 찾는 시간에 내가 원할 때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것이 더 현명하다. 지원하고자 하는 학교의 요구사항, 내가 장점으로 어필하고 싶은 과목들을 잘 생각해 시험 응시 계획을 세우자. 00월에 보는 SAT가 더 유리할 일은 없을 테니까.

<표 1> SAT 영역 별로 오답이 4개씩 있을 경우 점수 (Scaled score: 800점 만점)

시험날짜 (연도/월)	2007/1	2007/5	2007/10	2009/1	2009/5	2009/10	2011/1	2011/5	2011/10
Reading	760	740	770	750	750	760	760	760	780
Math	710	720	700	710	710	700	700	710	700
Writing (객관식)	690	690	710	680	680	690	690	700	680

오승준 (Albert Oh)

Copyright © 2014.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승준 원장의 미국 유학 성공 가이드는 SD Academy 홈페이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칼럼 내용이나 상담, 수업에 관한 문의는 전화(617-505-1852) 또는 이메일(info@sdcademyonline.com)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준기 원장 교육 칼럼

올바른 보딩 스쿨 선정 기준

세월호 사건 이후 대한민국은 정치, 경제, 교육, 사회, 문화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기분이 흔들리는 최악의 경험을 하고 있다. 이런 모든 것이 대한민국이 그동안 지향한 발전우선주의적 사고의 부작용일 수가 있다. 모든 일에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진행해도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지만 모든 일을 빨리만 해결하려는 사고, 관료주의적인 사고, 동시에 물질주의적인 사고방식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이런 사고 방식은 대한민국 모든 분야에 잠재하고 있어 언제, 어디서 유사한 일이 발생할지는 예측하기 쉽지 않다. 교육분야 역시 너무도 많은 문제점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한 사람도 교육관련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 이렇다보니 교육의 철학도 없고 질서도 없어 좋은 말만 하는 사람이 최고의 교육자가 되고 있는 곳이 한국이란 사실을 새삼 알게 되었다. 많은 유학 컨설팅을 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을 가졌다. 말로만 듣던 부정확한 정보, 고비용, 많은 부정등이 유학 컨설팅을 하는 업체와 학부모들 사이에 벌어지고 있어 가슴이 많이 답답함을 느꼈다.

미국 보딩학교는 획일화된 한국 교육과는 너무도 다른 교육 시스템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정보를 갖지 않고 인터넷에 떠도는 미국 보딩학교 순위로만 학교를 선정하고 속칭 30위 밖에 있는 학교는 지원하지 말라고까지 언급을 하고 있어 필자를 경악하게 만들었다.

미국 보딩 학교들의 순위는 존재하지 않고 학교마다 독특한 특징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학교 정보 없이 지원을 하게 되면 학생의 인생에 커다란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좋지않은 경험을 하게 된다. 보딩학교를 충분히 알고 정확히 각 학교 특징을 아는 교육 컨설턴트를 만나게 매우 중요한 첫번째 요소이다.

올바른 유학 컨설턴트인지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첫째, 최근 3년동안 어떤 학교를 보냈는지를 확인하고, 보낸 학교들의 특징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지 묻기. 둘째, 왜 이런 학교들을 자신에게 추천하는지 묻기. 셋째, 학교 캠퍼스 특징, 아카데미 특징, 그리고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기회들이 무엇인지 확인하기. 넷째, 학교 선생님들의 특징을 정확히 묻기 등의 절차를 확인하면 쉽게 파악할 수가 있다.

다음으로 중요한 요소는 보딩학교들의 교육 방식과 프로그램의 차이를 확인해야 한다. 미국이 오늘날 세계최고의 국가가 될 수 있는 요인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요소는 올바른 교육관에 있다. 모든 보딩학교들은 학교별 교육방식과 독특한 교육 철학으로 학생들의 획일화된 교육을 방지하며 다양한 사고 영역과 창의적인 교육을 지향하고 있기에 학교선정시 깊게 고민하고 신중히 선택 해야 한다. 몇가지 예를 들어보자.

학교의 규모와 위치 역시 중요한 요소들 중 하나이다. 일반적으로 전체 학생들 수가 400명

토른 수업이 추가된 학교:

필립스 엑시터 아카데미 (Phillips Exeter Academy), 로렌스빌 (Lawrenceville)

수학과 과학 프로그램이 강한 학교:

필립스 엑시터, 필립스 앤도버, 초트(Choate), 핫키스(Hotchkiss)

영어가 강한 학교:

미들섹스(Middlesex), 그로튼(Groton), 세인트폴(St Paul's), 밀튼(Milton), 테프트(Taft)

이하이면 적은, 400-600명 사이이면 중간, 600명 이상이면 큰 규모의 학교로 분류가 된다. 일반적으로 작은 규모와 중간 규모의 학교에서는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고, 학교 선생님들과의 유대관계도 좋게 유지할 수가 있다. 또한 선행학습면에서 사전에 선생님들의 특징을 선배들로부터 얻어 쉽게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준비할 수가 있어 좋다. 반면 선생님들의 강의 수준이 떨어져도 다른 선택이 없어 일년을 고생해야 한다.

큰 규모의 학교는 다양한 선택과 풍부한 경험을 할 수가 있지만, 특별분야에 월등한 재능을 가진 학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정말 자신이 우수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리더 위치까지 올라가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많은 우수한 친구들과 어울리며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는 많다. 선생님들이 많기에 선행학습 준비시 어려움이 많다.

위치적인 측면에서 볼 때 학생이 학교가 가진 리소스를 잘 활용할 수 있는 학생의 경우는 도시나 도시 외곽에 위치한 어떤 학교도 괜찮지만 특별재능이 있는 학생의 경우와 가끔 주말에 아카데미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의 경우는 도시 근교에 위치한 학교가 오히려 외곽에 위치한 학교보다 유리할 것이다.

기타 여러가지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 있지만 학교 명성보다 학생이 가장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는 학교, 그리고 그곳에서 최고의 경험을 할 수 있는 학교가 중요하다.

단지 최고의 보딩학교만을 고려해 지원하길 원하고 이런 점을 악용하는 소수의 교육 컨설턴트는 명문보딩 입학에 조건으로 높은 성공 사례금을 요구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기존 유출된 SSAT 문제를 이용하여 학원강사들이 고득점 보장을 약속하며 과도한 학원비를 요구하고 또한 이런 곳만 찾아가는 학부모님들 역시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 SSAT고득점이 명문보딩학교 입학을 보장해주지 않는다.

학교 선정시 가장 경계해야 할 대상은 부정직한 방법으로 부당한 요구를 하며, 그리고 마치 입학을 보장 해주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다. 진학 관련 부정을 학부모들이 주도적으로 행하고 있다는 점이 학부모로서, 교육 카운셀러로서 참으로 부끄럽게 생각하는 부분이다.

정준기 원장 (보스톤 교육원)
Tel:339-234-5255 / 5256 / 5257
Fax:339-234-5258
Email: bostoneducation@hotmail.com
Web: bostonedu.org



www.pospay24.com



POWERED BY
WorldPayTM
Authorized Representative Agent of

POSPay



 Leaf

무료기계(2중계약 없음)

One Touch Solution POS
24시간 이내 입금

모바일페이 (iPhone, Android)

Agent / 상담원 모집

TEL **617-466-2212**

TOLL FREE **888-604-2190**

150 Eastern Ave #2FL Chelsea, MA 02150



사업의 시작은

Lee Associates

이경해 부동산

1.800.867.9000



Broker & Realtor(1985년부터 보유) 사업 및 부동산 무료 상담

상가건물, 콘도, 아파트건물 투자하실 분 환영

1031 Exchange 서비스, 비즈니스 용자 알선

미 전역 프랜차이즈 비즈니스

항상 리스팅 80-100 보유

E2 비자 사업체, 비즈니스 무료상담

크고작은 세탁소들, 린드롬(Laundromat) 많음

주유소, 식당, 편의점, 주류판매점 등 다양한 사업체

항상 원하시는 사업체를 찾아드립니다.

Cell.....508.962.2689

Tel.....781.297.5679

www.leebrokers.biz

Email..kayleebrokers@aol.com

보스톤 북쪽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250,000 소유자 은퇴

다운타운 보스톤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250,000 금액 협상가능

보스톤 남쪽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80,000 매매가격 \$60,000

뉴햄프셔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267,000 부유한 동네

뉴햄프셔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100,000+

뉴햄프셔 드랍오프 스토어, 연매상 \$83,000 매매가격 \$39,000

뉴햄프셔 드랍오프 스토어, 연매상 \$82,000 매매가격 \$30,000

세탁소 뉴턴지역, 연매상 \$170,000+ 매출 계속 증가, 내부 리모델 완료

스넥(프레첼)가게, 매매가격 \$39,000 연매상 \$300,000 주인 부재

보스톤 북쪽 동양식당 연매상 \$600,000+, Full 리커 면허증

요쿠르트, 아이스크림 연매상 \$65,000 좋은 매매가격

드롭오프 스토어 연매상 \$155,000+ 부유한 동네

알링턴지역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245,000 변화가 좋은 위치

보스톤 남쪽 피자/델리/한식 성장가능성 많음. 연매상 \$330,000

메인주 컨비니언스, 연매상 \$600,000 E-2 비자 가능

보스톤 대학가 근처, 세탁소+셔츠유닛, 연매상 \$180,000+\$100,000(홀세일), 60lbs 세탁기(떡아님)

보스톤 북쪽 큰 몰안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220,000 소유자 은퇴

보스톤 북쪽 세탁소 Full Plant 연매상 \$360,000 매매가격 \$235,000 소유자 은퇴

아침, 점심(6일) 매상 \$180,000 주변에 아파트 신축 중

보스톤 북쪽 아침, 점심 5일 오픈, 건물안 위치 연매상 \$180,000

로드아일랜드 큰 몰 안 모자+악세사리, 연매상 \$500,000+

전국 체인 델리, 고급 몰 안에 위치 연매상 \$520,000

보스톤 북쪽 주유소+컨비니언스 (2 비즈니스), 연매상 \$1.4M

식당 아침, 점심 보스톤 북쪽 주 6일 오픈 연매상 \$180,000

뉴턴 세탁소: 연매상: \$120,000+ 홀세일: \$100,000 오너 파이낸스(50%)

동양그로서리 연매상 \$800,000+부가수익, 비어+와인, 로타리 저렴한 매매가격 \$129,000

보스톤 북쪽 세탁소 Full Plant 연매상 \$250,000 소유자 은퇴



명문 중.고 대학 진학상담 및 수속

- 전문적인 맞춤형 진학상담
- 최고 에세이 편집자
- 최고 전·현직 입학 담당자 상담

섬머/윈터 프로그램

- 전문적인 관리 및 실질적인 프로그램
- MIT/Harvard 특별 프로그램
- 다양한 주말 프로그램

가이드업 업무

- 수시 교사 면담 및 성적관리
- 아카데미 로드맵 작성 및 실행
- 다양한 경시 대회 준비, 섬머 및 교외 활동

2014 보스톤교육원 여름방학 SAT I Program

I. 내실있는 Program 구성

- 문제 유형별 수업 후 후반 실전 test 위주 수업
- 매일 단어 및 실전문제 test
- 3시간의 수업을 포함한 종일 프로그램(9:00~5:30)
- 엄격한 학생 및 학사관리 (home work, 매주 test 결과 보고서 발송)

III. 합리적인 수강료

- 정규반: \$950 / session (3주)
- 주말반: \$450 / 3주

II. 실력있는 강사진

- **Critical Reading**
영문학박사
다년간 SAT 강의 경력의 실력있는 강사
- **Writing**
15년 이상의 강의 경력
에세이 쓰기 및 교정 전문가
- **Mathmatics**
공학박사
오랜 경험으로 학생들 취약점 파악 후 지도

IV. 다양한 선택 가능성

- Session 별 각기 다른 수업 및 test 자료
- 실전문제 풀이 중심 주말 특별반
- New SAT (2016년 시행) 준비반

* 저학년을 위한 writing, reading class

Boston Education World, Inc. 보스톤 교육원
128 Wheeler Rd. #301, Burlington, MA 01803 3
tel. 339.234.5255~7 / fax. 339. 234. 5258
www.bostonedu.org 문의: info@bostonedu.org
수업문의: academicsservices@bostonedu.org